

연구보고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맹영임

IN

Y

P

I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홍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공급에 비해 충분한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정세의 불안 요인과 유럽경제의 침체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반 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가정신 및 창업 방안에 관한 교육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과 같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의성 차원에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2014년 1차 년도에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 국내외 사례조사, 초·중·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가능성과 정책추진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제도와 관련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창조산업분야별 인재육성 방안인 신성장동력, 사회이슈해결, 실용기술활용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정책대안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2014년 1차 년도에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 국내외 사례조사,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을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추진방안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가능성과 정책방안 추진 절차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제도와 관련법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창조산업분야별 인재육성방안 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회이슈해결, 실용기술활용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교육모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영역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 등과 같은 기업가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을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핵심적인 추진전략으로 생애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초중고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성과목표 및 학습내용을 체계화시킨 기업가정신 학습모형을 마련한다. 넷째,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교육기관 및 관계 부처들 간의 합의와 협조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단위 다양한 기업들과 학교 간의 전문 인력과 실습장소 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실천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 기관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과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제어: 청소년 기업가정신, 창업 역량, 창조경제, 창업활성화 방안
생애 전주기적 학습체계, 중앙과 지역 단위 컨트롤타워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적 지원 방안과 영역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개념, 국내외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지원 현황 및 정책 고찰, 정부와 민간 영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등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였음.
- (면접조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창업활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외출장)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선진국의 지원 기관을 탐방하여 운영시스템에 관한 인터뷰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독일과 핀란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음.
- (세미나 및 워크숍) 2014년 1월 전문분야별 연구팀 구성과 정기적인 회의, 그리고 영역별 연구과정을 거쳐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2014년 6월 13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제1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세미나에서 연구진들의 영역별 주제 발표 및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제기된 의견과 연구진 회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원고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원고를 토대로 9월

19일 정책개발팀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2014년 10월 24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I’에 관한 영역별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개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014년은 3년(2014-2016) 연속 과제의 첫해로 기업가정신의 개념, 유형, 특징을 비롯하여 창업 관련 개념 및 중요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였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실태 분석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현황, 청소년 창업활성화의 배경 및 지원 현황, 대학생 창업 지원제도 등을 고찰하였음.
- 청소년 창업의 필요성을 탐색하고 창업교육 통합모형과 모듈을 제시하였음.

2)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지원체계 분석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교육 수준의 미흡, 사회적 인식전환 교육 미흡, 통합적 접근 방법 부족, 일반기업들의 교육 참여 미비, 지원체계 부족 현황을 제시하였음.
-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 사업과 정책을 정부 주도의 8개 프로그램과 민간 차원의 7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음.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7명과 창업활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3)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국외사례 분석

-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실태로 오슬로 아젠다(2006)를 비롯하여 국가별 정책 수립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제, 국가교육과정 내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실시 현황 및 세부 목표, 대표적인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류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와 “YES(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 청년 기업가정신함양 전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결론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추진 방안을 제언하였음.
-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정책에서는 기업가 및 창업교육의 등장 배경,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정책 기조 고찰하였음. 또한 관련 정책과 사례로써 학교 급별 기업가교육 모형, 중학교 기업가 교육 사례, 창업의식 환기 활동사업, 기업가교육 촉진 사업, 기업가 및 창업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였음.
-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으로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민간 주도의 참여 기관(5개) 소개, 교사인증제도 활성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 창업지원프로그램인 JUNIOR 프로그램의 목표와 역할 및 운영과정과 연계프로그램인 JUNIOR 콤팩트, JUNIOR-Basic, JUNIOR 테크 등을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핀란드의 알토대학의 창업프로그램으로 디자인 팩토리(Design Factory)와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기술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유럽, 일본, 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고찰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보완 등과 더불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언하였음.

4)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성공 및 장애 요인 분석에서는 창업가의 공통적 성공요인, 청소년 기업가의 성공법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약화 및 창업 장애 요인과 창업 실패 요인 및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교육모형 개발은 먼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영역을 구분하고 핵심적인 교육요소 및 개념정리와 교육방법 및 전략을 구상하였음. 다음으로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음. 모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학부모동아리위원회, 학교, 지역 창업센터, 기업 및 기관/단체, 전문가협의체 등의 6개 협조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개발 절차(기획, 설계, 실행, 평가)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체험학습, 자기주도학습, 문제기반학습 등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프로그램 주체와 내용, 프로그램 실제 사례(안): VENTURE STAR를 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 창조경제의 국정전략은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전정신과 아이디어 창출력, 혁신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 3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하나의 대안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시의성과 당위성에 대해 관련 주체들 간 즉,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교육기관 및 부처들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콘텐츠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업가적 사고방식 및 태도 더 나아가 행동양식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개발이 시급함.
- 실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이론중심의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 실습, 견학 및 체험, 캠프, 경진대회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통합 교육프로그램 형식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 운영자들과의 연계는 실제 창업 경험과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과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인력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주체들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예산과 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과의 후견인, 전문 강사, 사업장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불릴 수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규교육과정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일부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또한 전문 교원 양성과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창업교육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사회투자가 전제되어야 함. 실질적인 체험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함양되고 실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와 실천이 기업가정신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검증해 가야 할 것임.
- ‘생애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 운영 방안으로 초·중·고는 기초단계→역량인식단계→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 운영하고, 대학생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창업단계→성장 단계로 운영하여 초중고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성과목표 및 학습내용을 체계화시킨 기업가정신 학습모형을 마련해야함.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과 학교 간의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 교과담당 교사, 진로지도 교사, 대학생, 청년창업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도록 연수 및 자격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다양한 학습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정책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실천방안으로 먼저 지역사회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 등이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수렴하여 총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산하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센터(사업총괄본부)」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시도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과 적극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달체계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 간 협력 모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함. 학교 교육만으로는 실천적인 자질 함양이 부족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5
3. 연구 모형	7
4. 연구 방법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3
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개념	15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실태	31
3. 청소년 창업의 필요성 및 창업교육 모형	43
III.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지원체계 분석	49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 진단	51
2.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학교 교육과정 분석	54
3. 정부와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찰	66
IV.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에 관한 국외사례	83
1.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실태	85
2.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정책	119
3.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	138
4. 독일과 핀란드의 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례	156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제언	165

V. 전문가 및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171
1. 면접조사의 개요	173
2. 면접조사의 결과 분석	177
3. 결론 및 제언	191
VI.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195
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성공 및 장애 요인 분석	197
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교육모형 개발	211
3.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224
VII. 정책제언	241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방향	243
2.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지원 단계별 추진 전략	248
3. 청소년 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 연계방안[2015-2017년 추진]	258
참 고 문 헌	265
부 록	279

표 목 차

〈표 Ⅰ-1〉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집필 영역	10
〈표 Ⅱ-1〉 기업가의 정의	20
〈표 Ⅱ-2〉 연령대별 창업사유	32
〈표 Ⅱ-3〉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2013)	34
〈표 Ⅱ-4〉 대학교 분야별 창업동아리 현황	36
〈표 Ⅱ-5〉 대학생 창업현황(2010~2013년)	37
〈표 Ⅱ-6〉 학생 창업관련 순위(2010~2012년)	37
〈표 Ⅱ-7〉 미국의 창업 관련 상위 10개 대학(2013년)	38
〈표 Ⅱ-8〉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교과목 및 특성	39
〈표 Ⅱ-9〉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40
〈표 Ⅱ-10〉 창업관련 학사제도 확대	41
〈표 Ⅱ-11〉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45
〈표 Ⅱ-12〉 창업교육모듈	47
〈표 Ⅲ-1〉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56
〈표 Ⅲ-2〉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관련 단원 내용	56
〈표 Ⅲ-3〉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58
〈표 Ⅲ-4〉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관련 단원 내용	58
〈표 Ⅲ-5〉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59
〈표 Ⅲ-6〉 고등학교 ‘경제’과목 내용 체계	60
〈표 Ⅲ-7〉 고등학교 보통 교과 생활·교양 교과 영역 과목	61
〈표 Ⅲ-8〉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경제과목 편성 학교수(2011~2012)	62
〈표 Ⅲ-9〉 고등학교 ‘창업과 경영’과목 내용 체계	63
〈표 Ⅲ-10〉 상업정보계열 ‘기업과 경영’ 및 ‘창업 일반’ 과목 내용 체계	65
〈표 Ⅲ-11〉 정부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종합	67
〈표 Ⅲ-12〉 청소년비즈쿨 대상별 지원내용	68
〈표 Ⅲ-13〉 비즈쿨 지원 규모	68

〈표 III-14〉 비즈쿨 일반교육지원 체계	69
〈표 III-15〉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구성(안)	70
〈표 III-16〉 기획재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제공 교육콘텐츠	71
〈표 III-17〉 한국은행의 어린이 경제마을·청소년 경제나라 제공 콘텐츠 내용 ..	72
〈표 III-18〉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실적	73
〈표 III-19〉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74
〈표 III-20〉 wi-fi 창업체험 프로그램 구성	76
〈표 III-21〉 민간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77
〈표 III-22〉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교육 현황	78
〈표 III-23〉 JA-Korea 기업가정신교육 현황	80
〈표 III-24〉 Start up alliance의 역할	82
〈표 IV-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	87
〈표 IV-2〉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특징	91
〈표 IV-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	93
〈표 IV-4〉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	94
〈표 IV-5〉 초중등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유형	97
〈표 IV-6〉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세부 목표	98
〈표 IV-7〉 예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계	101
〈표 IV-8〉 기업가정신 교육 국가별 SWOT분석	109
〈표 IV-9〉 1980년대 이후 창업 및 기업가교육지원 관련 법령	120
〈표 IV-10〉 청소년 기업가지원 자금제도	121
〈표 IV-11〉 기업가교육과 진로역량과의 관계	122
〈표 IV-12〉 각 학급단계별 배양 능력 및 학습프로그램 예시	129
〈표 IV-13〉 기업가교육 프로그램	130
〈표 IV-14〉 교육과정의 개요	133
〈표 IV-15〉 기업가교육촉진사업실적	136

〈표 IV-16〉 미국의 각 주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140
〈표 IV-17〉 중등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145
〈표 IV-18〉 J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	146
〈표 IV-19〉 JA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148
〈표 IV-20〉 JA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프로그램	148
〈표 IV-21〉 JA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	149
〈표 IV-22〉 Kauffman 재단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50
〈표 IV-23〉 DECA의 프로그램	151
〈표 IV-24〉 NCEE에서 운영하는 초·중·고학생 대상 프로그램	152
〈표 IV-25〉 NFTE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152
〈표 V-1〉 포커스 온라인 인터뷰(면접) 대상자 현황	176
〈표 V-2〉 면접조사 주제영역 및 내용	177
〈표 V-3〉 전문가 인터뷰 문항별 분석내용 요약	178
〈표 V-4〉 청소년 인터뷰 문항별 분석내용 요약	183
〈표 V-5〉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	187
〈표 V-6〉 창업 결정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	188
〈표 V-7〉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	189
〈표 V-8〉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189
〈표 V-9〉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	190
〈표 V-10〉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	191
〈표 VI-1〉 청소년 기업가의 성공에 이르는 단계	206
〈표 VI-2〉 성공적인 팀 창업가의 핵심특성	207
〈표 VI-3〉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약화 요인	209
〈표 VI-4〉 기업가정신 함양 핵심 교육요소 및 개념	212
〈표 VI-5〉 기업가 개인적 특성 요인 및 세부 항목	213
〈표 VI-6〉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215

〈표 VI-7〉 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역량 개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영역	215
〈표 VI-8〉 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주요 교육내용과 전략	216
〈표 VI-9〉 벤처스타: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구성 및 근거	234
〈표 VI-10〉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벤처스타 12회기 주제 및 내용	235
〈표 VI-11〉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 1회기	236

그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추진과정 및 계획	6
【그림 Ⅰ-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	7
【그림 Ⅰ-3】 조사설계	8
【그림 Ⅱ-1】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접근	22
【그림 Ⅱ-2】 기업가 정신의 과정	23
【그림 Ⅱ-3】 기업가 정신의 유형	26
【그림 Ⅱ-4】 청소년 기업가의 역량	28
【그림 Ⅱ-5】 연령대별 창업자 분포	33
【그림 Ⅱ-6】 창업교육 결정 통합모형	46
【그림 Ⅲ-1】 학교급별 기업가정신 함양 정규 교육과정 체계	54
【그림 Ⅲ-2】 2011 고등학교 일반사회관련 선택과목 개설 현황	62
【그림 Ⅲ-3】 금융교육 토털네트워크 체계도	73
【그림 Ⅳ-1】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	90
【그림 Ⅳ-2】 예비 창업가 현장실무교육 개요	100
【그림 Ⅳ-3】 초등학교 기업가교육모형	124
【그림 Ⅳ-4】 중학교 기업가교육모형	125
【그림 Ⅳ-5】 고등학교 기업가교육모형	126
【그림 Ⅳ-6】 창업의식 환기활동 사업 추진체제	131
【그림 Ⅳ-7】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의 개념도	134
【그림 Ⅳ-8】 인터뷰 스킬업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념도	134
【그림 Ⅳ-9】 기업가교육 평가모형	135
【그림 Ⅳ-10】 JA 연령단계별 교육프로그램	147
【그림 Ⅳ-11】 알토대학의 로고	163

【그림 VI-1】	티몬스의 창업 성공 모델(Timmons model)	199
【그림 VI-2】	성공한 청소년기업가의 자질	202
【그림 VI-3】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	228
【그림 VI-4】	학습피라미드	229
【그림 VI-5】	창의성과 혁신의 구성요소 모델 T.M.	230
【그림 VI-6】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	234
【그림 VII-1】	‘청소년주도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254
【그림 VII-2】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257
【그림 VII-3】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 활동지원센터 시범운영 모델	26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장 불균형과 산업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시장은 공급에 비해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비롯하여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세계정세의 불안 요인과 유럽경제의 침체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제반 여건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22).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삶의 중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확고하다. 이는 학생 스스로의 선호라기보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선호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동, 2013: 69). 대학 생활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안정된 직업을 위한 준비와 다양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관리와 학업 경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39%수준이며, 그 중에서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59.5%로 40%에 이르는 대졸자들이 사실상 실업상태이다. 그나마도 취업자들 중 50% 이상이 파트타임과 임시직 등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취업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박동, 2013: 70).

이러한 시점에서, 이현숙 외(2012) 연구에서 앞으로 사회는 유형 자산보다 창의성과 지적재산권이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창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외(2010)는 창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 고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등 대체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선영·김희진, 2011: 81).

또한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종태·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 함양이나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know-how)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진로지도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와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청소년 창업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방안에 관한 교육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출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노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인식 수준에 관한 분석과 국내외 사례 고찰 등을 토대로 올바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개발 방안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과 정책적 지원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본 연구는 2014년도에 시작되어 3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구 1차 년도인 2014년에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청소년 창업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 역량 관련 개념과 교육 및 지원 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치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① 기업가 정신 관련 인식 및 가치, 태도(경험) ② 창업 관련 인식 및 가치, 태도(경험) ③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④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방안 ⑤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 경제수준, 성격 등)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의견조사' 분석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셋째,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현주소 및 정규 교육과정 실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분석, 정부와 민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프로그램 고찰,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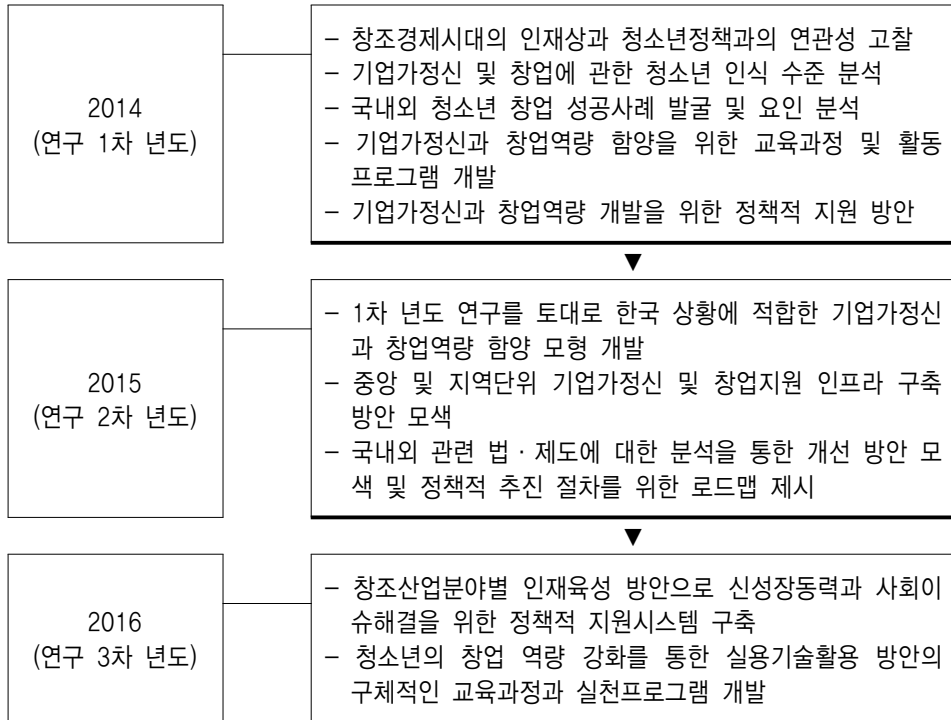
넷째,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등에 관한 국외사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럽, 일본, 미국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현지답사를 통해 독일과 핀란드의 실제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실태와 창업 애로사항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모형과 적용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실풠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과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및 청소년활동 정책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과 지원을 위한 영역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2차, 3차 년도의 추진 계획은 아래의 【그림 I-1】 과 같다.



【그림 I-1】 연구 추진과정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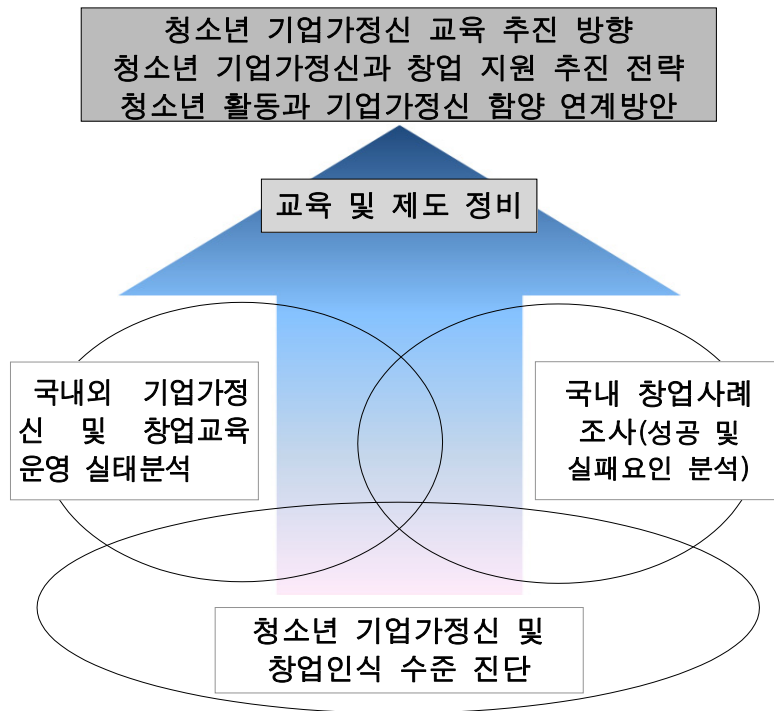
2차 년도는 1차 년도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관한 실태 진단과 인식 수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모형을 도출한다. 영역별 교육커리큘럼 개발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영역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및 청소년활동 정책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중앙 및 지역단위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마지막인 3차 년도는 창조산업분야별 인재육성 방안으로 신성장동력과 사회이슈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활성화를 통해 실용화기술 활용 방안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3. 연구 모형

1차 년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추진 방안과 영역별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1-2】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연구, p.4-5.

4.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에 관한 국책연구의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문헌을 통한 이론적 토대를 충실하게 구축하고자 했다.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학술지, 저서, 연구보고서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개념을 포함하여, 국내외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탐색 및 청소년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설문조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청소년 의견조사(별도보고서 작성)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로 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에 대한 표집과 조사 설계, 그리고 설문조사 실시와 기초통계 분석은 2013년도 교육통계연보와 본원의 통합조사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계 내용은 【그림 1-3】 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 대상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표 본 수	1,270명	2,307명	2,423명
조사 방법	방문면접조사		
표본 추출	확률표집(비례층화집락추출법)		
예비 조사	2014년 5월 9일 ~ 5월 10일		
조사 기간	2014년 6월 16일 ~ 7월 20일		

【그림 1-3】 조사설계

3) 심층면접조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교육 주체,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의 전문 인력 육성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지는 관련 자료 검토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다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안면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면접 조사 대상은 전문가 그룹 10명과 청소년 그룹 10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부실한 6명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활용된 조사지는 전문가 7명과 청소년 7명 총 14명이었다. 전문가는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5명, 민간단체 교육운영 담당자 1명, 박사논문 진행자 1명, 청소년은 창업 혹은 창업동아리 경험이 있는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3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면대면 인터뷰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기간은 2014년 05월 09일 ~ 05월 21일 및 2014년 07월 28일 ~ 08월 11일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4) 국외출장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탐방하고 운영시스템에 관한 인터뷰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2014년 06월 23일 ~ 06월 30일 기간 동안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출장 대상 국가와 기관으로 독일의 Baden-Wuttenberg주 문화청(Ministerium fuer Kultus)과 쾰른주 JUNIOR 프로그램과 핀란드의 청소년연구네트워크(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및 테크노폴리스 벤처스(Technopolis ventures Ltd. TeVe)를 방문하였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 및 다양한 창업 활동을 위해 주정부와 민간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체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Baden-Wuttenberg주 문화청 담당자의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핀란드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청소년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토(Aalto)대학 교수와 청소년연구네트워크 전문가들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두 나라의 관련 기관과 시설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벤치마킹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5) 세미나 및 정책개발 워크숍

본 연구는 3년(2014-2016) 연속과제로 진행되며, 올해 제1차 년도에는 영역별 전문가 그룹 구성 하고 연구진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논리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9명 각자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표 I -1>과 같이 연구 영역을 선정하였다.

표 I -1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집필 영역

성 명	집필 영역	비 고
오해섭 (연구책임)	전문가와 청소년 면접조사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추진 전략 등 총괄	생애주기별 학습체계,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영역별 지원 전략
천정웅 교수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중요성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특징과 역량
박주현 박사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운영 실태	학교 및 민간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박선영 교수	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체계-유럽사례 중심-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제시
강영배 교수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	관련 정책 및 운영 체계
조영아 박사	한국 학교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한국의 교육시스템
임효신 박사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남부현 박사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	교육모형의 틀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김세광 교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 개발 (VENTURE STAR)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실제 프로그램(안)제시

각자의 연구 영역과 추진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연구진 회의를 거치면서 연구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켰다. 연구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2014년 6월 13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연구진들의 영역별 주제 발표 및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제기된 의견과 연구진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원고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원고를 토대로 9월 19일 정책개발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자신이 맡은 영역의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제출된 원고를 연구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6)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2014년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I’을 최종 정리하면서 정책제언 영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는 현재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를 섭외하였다. 또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양뜨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교감선생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 전문위원, 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진흥팀장이 참석하였다.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 먼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역량 개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학교교육과정 및 청소년활동 정책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영역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개념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실태
3. 청소년 창업의 필요성 및 창업교육 모형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개념¹⁾

1) 개요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바탕이 된 산업을 전제하며 젊고 진취적인 인재를 그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본다(김승경·김명희, 2013: 66). 최근 들어 기업가(entrepreneur) 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 기업가(young entrepreneur) 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 나아가 10대 기업가(teen-entrepreneur), 키즈기업가(Kidpreneur)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Rispoli, 2013).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슈페터(Schumpeter, 1934)에 의하면 ‘산업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여겨 왔으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시대 대표적인 기업가로서 스티브 잡스(Steve Jobs)나 빌 게이츠(Bill Gates)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은 전 세계에서 성공 아이콘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주커버그(Zuckerberg)는 자신의 기숙사에서 시작한 일로 Harvard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으며, 마침내 Facebook을 완성하였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에서도 두드러진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Islam, 2012).

또한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재정적 위기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둠.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청년실업문제는 청년취업과 창업활성화를 해결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새롭고 다양한 접근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점차 청소년들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과 취업,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박동, 2013).

실제로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성향과 문화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이 되며, 기업가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가와 어떻게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각기 다른 의도된 성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가정신이 부(wealth)를 가져다주거나, 자립이나 사회변화 또는 또 다른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김영환·양태용, 2013; Zimmerman, 2009).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업가, 청소년 기업가정신, 청소년창업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hane, 2003).

또한 창업 역시 국가 경제의 유연성과 혁신성,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고용기회의 축소 및 불균등·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적 분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은 성장과 고용 간의 선순환구조의 매개 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지속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황성수, 2013: 58).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앞으로 기술할 내용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개념적인 분석(conceptual analysis)에 주안점을 두면서 선행 연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 기업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셋째,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른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특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넷째, 그리고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의 동인과 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술과정에는 창의성/혁신성과 지도력 행위와 스타일의 역할로서의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벤처(venture)의 성공과 실패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포함될 것이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ship)의 시의성

청소년 기업가 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여건이 호전되어 청소년 기업가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투입된다고 해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처한 실업문제와 경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은 청소년 기업가와 관련한 몇 가지 잠재적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Blanchflower와 Oswald(2009: 188-189)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 ①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새로운 청소년 기업가들이 동료 청소년들을 고용한다면 직접적인 고용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 ③ 새로운 중소기업들은 생산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④ 청소년 기업가들은 특히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동향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 ⑤ 청소년들 상호간의 창업 증가는 그만큼 독립성과 복리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 ⑥ 그러나 현 시점에서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적 혜택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연구결과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적 혹은 국내 상황은 이러한 주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추세이며, 청소년 기업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와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기술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시장의 분절화와 탈규제의 증대 등과 같은 요인들이 더욱 기회를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와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창업이란 말은 창업을 하는 주체가 청소년을 의미하거나 청소년기부터 창업을 준비하여 창업을 하는 주체들의 사업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물론 청소년이 취업전선과 창업활성화에 뛰어들게 하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으로 이해되어 왔다(김종재·윤종록·이경근, 2005).

- ① 기업가의 위상증대로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 ②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과 같은 아이디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단기성장가능사업의 확대되고 있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야후, 구글, 카카오톡 등).
- ③ 단기간에 성공한 신화적인 창업사례들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을 창업성공의 무대로 유인하고 있다.
- ④ 소규모 투자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이면서 성공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면 쉽게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회가 확대되는 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⑤ 인터넷 등 정보통신환경의 발달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영업이 가능하고 시간에 구애 없이 주문과 판매가 가능하다.
- ⑥ 실리콘 벨리의 예에서 보듯이 많은 선진국들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지원 하는 등 창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대학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청년실업현상,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시대(DIY: Do It Yourself)가 되어 누구나 상품을 만들고 매매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창업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요인들은 청소년 창업 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에서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 기술(entrepreneurship skills)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urlong, 2012).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저수준(low-level), 위험(dangerous), 생존(survival) 기업가정신의 형태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사업체(enterprise)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이며 때로는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과 같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게하는 수단을 제공하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지만 청소년 기업가정신은 점차 지각가능한 전략(sensible strategy)이 되고 있다. 기업가적 활동은 가족과 재정적 책임이 부족하지만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 그러한 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실이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개념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기업가(entrepreneur)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새로운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먼저 개념정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원어의 entrepreneur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로 'entrepreneur'는 1437년에 처음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a person who is active and achieves some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래가 된 불어는 동사 *entreprendre*로서, 그 뜻은 "무엇인가를 수행하다(to undertake something)"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Westhead & Wright, 2013).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창업가정신, 벤처정신 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별다른 대안적 용어를 찾기 어렵고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공식 용어로 사용하였다.

(1) 기업가(entrepreneur)의 정의

영어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를 기업가로 이해하더라도 그 개념정의는 배경과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17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entrepreneur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a person who takes risks)"으로 이해되었지만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다. 18세기까지는 불어의 entrepreneur에 상응하는 영어는 따로 없었으며, 18세기 말에 가서야 부분적으로 businessma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Westhead & Wright, 2013).

오늘날까지 entrepreneur나 entrepreneurship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정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대표적인 몇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그 개념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18세기 entrepreneur를 연구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캄띠용(Cantillon)은 “기업가를 사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위험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송재길, 2011: 7,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는 1800년대 초에 한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entrepreneur를 “하나의 사업체(enterprise) 특히 계약자(contractor)를 맡아하는 사람이며, 자본과 노동 사이의 중간매개(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술하고 있다(Hindle, 2008: 77).

또한, 1934년에 슈페터(Schumpeter)는 기업가를 “창조적 파괴자”라고 말한 바 있다. 슈페터는 기업가들이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 또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드는 경제발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생산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인 것이다.

한편, 세이(Say), 캄띠용(Cantillon)과 같은 학자들은 기업가란 생산요소나 생산과정을 조직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변화를 위한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셰이클(Shackle)은 기업가란 새로운 기회 시장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해내는 고도로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지적했다. 브로드스키(Norm Brodsky)는 “기업가는 새로운 벤처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성장시키며, 그 사업으로부터 나온 자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김홍길, 2014, 재인용).

오늘날의 여러 가지 개념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나 벤처를 책임지는 사람, 특히 위험부담이 성과와 관련되어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Me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기업가는 “하나의 사업이나 기업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른 정의로는 기업가는 야심 있는 지도자(leader)이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을 찾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사람으로 본다(Westhead & Wright, 2013). 지금까지 살펴 본 기업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표 II-1>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II-1 기업가의 정의

구분	기업가 정의
Cantillon	· 사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위험을 밀고 나가는 사람

Schumpeter	· 창조적 파괴자 ·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생산요소 결합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
Say & Cantillon	· 생산요소나 생산과정을 조직하는 사람 · 경제발전의 기폭제
Brodsky	· 새로운 벤처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성장시키고 그 사업의 자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사람
Westhead & Wright	· 야심 있는 리더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을 찾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사람
Miriam-Webster	· 하나의 사업이나 기업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

최근의 연구에는 이러한 정의보다 더 광범위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에서 ① 기회를 인식하여 포착하며, ② 포착한 기회를 사업으로 조직하여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③ 자본을 출자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④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시장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고, ⑤ 위험을 극복하는 노력으로부터 보상을 추구하는 혁신자이며 개발자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 세계를 변화시키는 매우 공격지향적인 자로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진부한 능력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를 지칭하기도 한다(조건목, 2008: 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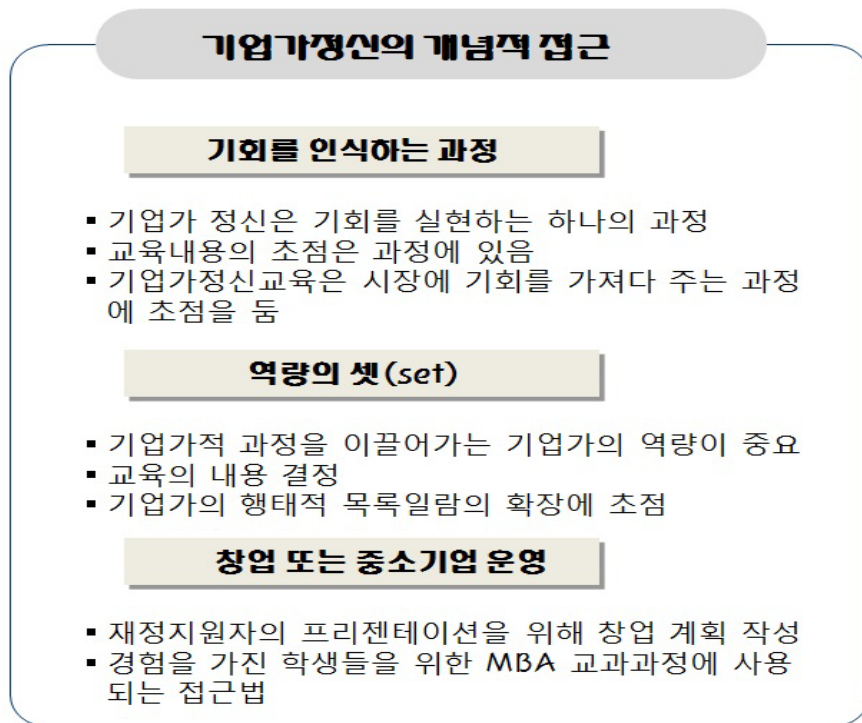
(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개념

기업가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의 개념정의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기업가에 대해 깡띠용(Cantillon)이 정의한 ‘위험부담자로서의 기업가 이론’은 나이트(Knight)에 의해 기업가정신으로 발전되었다. 나이트는 “기업가란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제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며, 이들 간의 차액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윤은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의 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홍길, 2014, 재인용).

Hisrich와 Peters(1989: 6)는 “기업가정신은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을 전제로 성취감을 포함하여 재정적인 만족이란 보상(reward)을 받는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Tan, Williams와 Tan (2005:

357)은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에 직면하여 시간을 두고 혁신을 통해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기업가정신의 다음의 【그림 I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에 관한 접근법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Van der Sijde, Ridder, Ballauw, & Diensberg, 2008).



【그림 II-1】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접근

첫째, ‘기업가정신 = 기회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것은 기업가 정신을 어떠한 상황에서 기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회 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에 관한 문헌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의 초점은 그 과정에 있으며, 기업가들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은 시장에 기회를 가져다주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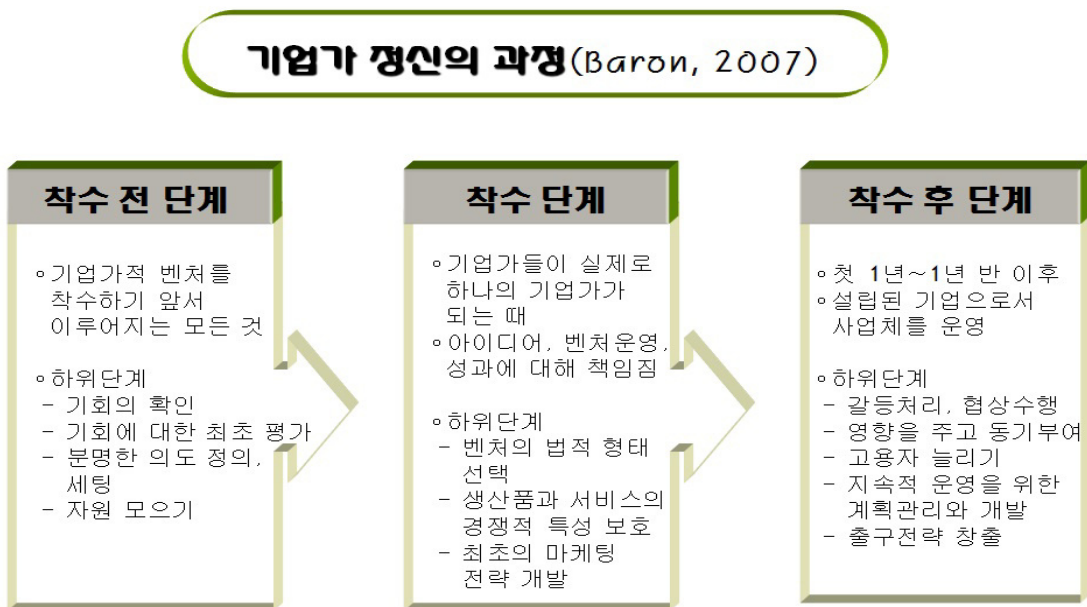
둘째, ‘기업가 정신 = 역량의 세트(set)’로 보는 실제적인 것이다. 초점은 기업가적 과정을 이끌어가는 기업가의 역량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법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며, (학습 성과로서

의)기업가의 행태적 목록일람(repertoire)의 확장에 초점을 둔다.

셋째, ‘기업가정신 =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 과정은 재정지원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창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중소기업의 운영으로 보는 것은 주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MBA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접근법으로 새로 만든 기업에서 여러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업가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기업가정신은 기회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창업 과정을 거쳐 기업을 운영하는 일련의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벤처(venture)설립의 하나의 과정 또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Baron(2007)은 기업가정신의 과정을 【그림 II-2】에서와 같이 세 개의 기본적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는 하위 단계에 해당되는 활동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가지고 있다.



【그림 II-2】 기업가 정신의 과정

첫 단계는 착수 전(pre-launch)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기업가적 벤처를 실제로 착수하기

에 앞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이나 하위 단계에는 기회의 확인, 기회에 대한 최초의 평가, 추진과정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명료화하고 세팅하는 것,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착수(launch) 단계에서는 대체로 벤처 설립의 첫해를 의미하며, 기업가들이 실제로 하나의 기업가가 되는 때를 말한다. 착수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가장 잘 발휘되고 모아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용된다. 일단 조직이 실제로 착수되면, 그 다음에는 기업가들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벤처를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까지 맡게 된다. 착수단계 동안에 일어나는 활동이나 하위 단계는 벤처에 대한 법적 형태를 선택하고,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쟁적 특성을 보호하고, 최초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첫 1년에서 1년 반 이후 하나의 벤처는 착수 후(post-launch) 단계로 진입한다. 하나의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하위 단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여기에는 갈등 처리, 협상 수행, 다른 것에 영향을 주거나 동기를 제공하는 것, 고용자를 늘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일, 그리고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창출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단계들은 성공적인 벤처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각 단계는 이론으로 정리된 내용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Baron, 2007). 각 단계들은 기간이나 활동이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기업가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쉽게 끝낼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만든다. 반대로 시도가 잘못되면, 단계를 뒤로 가게 할 수도 있으며,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자원을 재평가하기도 한다. 착수 전 단계가 수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준비된 후 몇 개월 만에 성공할 수도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정의는 이상에서 고찰한 것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여러 관점과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이란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업가정신이란 모험적 기업이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려는 능력과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홍길, 2014).

(3) 기업가정신의 유형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란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하려는 시도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예의 하나로 “전통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두 용어의 복잡성을 교정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 이론으로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는 전통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모두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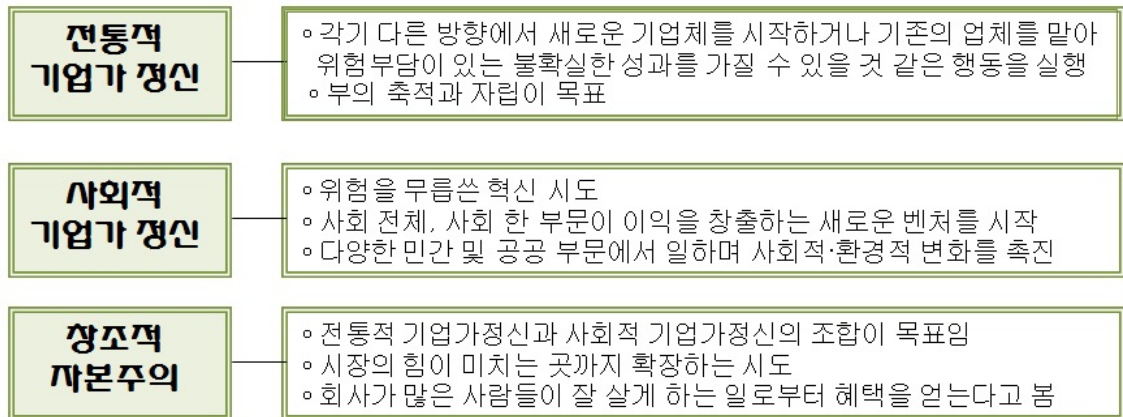
전통적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은 역동적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기업체를 맡고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불확실한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을 갖는 것이다. 전통적 기업가는 이러한 위험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궁극적 목표는 부의 축적과 자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Tan et al., 2005).

스펙트럼의 다른 한 끝에는 그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노력에 따른 결과가 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측정가능한 차이점이 되는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기업가정신의 유형이 있다.

Tan 외(2005: 658)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나 사회의 한 부문이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갖는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는 아마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기업가적 원칙을 사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시작하려는 하나의 벤처를 조직하고 창출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본다. 반면에 전통적 기업가는 전형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며, “사회적 기업가는 성공을 이익과 대가에 추가하여 그 또는 그녀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Tan 외(2005)의 개념정의는 사회적 변화는 단지 사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와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다양한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직업에서 일하며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아이디어의 또 다른 변용은 【그림 II-3】에서 요약한 전통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정신의 개념과 비교되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고 알려진 것이다. 오늘날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회는 개인과 조직 모두 창조적 자본주의를 향하여 가시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목표가 전통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조합이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개념은 이익을 전환하는 것이 주 책무인 사업들은 또한 생산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혜택을 주기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예를 들면, 생산품에서 나온 이익의 일정 몫을 자선을 위해 기부하는 조직은 이러한 창조적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II-3】 기업가 정신의 유형

4) 청소년 기업가(Young Entrepreneur)의 특성

청소년 기업가 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기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업가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가정신의 본질적인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기회에 대한 갈망과 애착, 집요한 추구(obsession to opportunity)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새로움을 향한 모험과 탐험의 여정(entrepreneurial journey)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향한다(배종태·차민석, 2009: 9; 김홍길, 2014).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무조건 위험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자원보다 기회를 먼저 생각하고, 기회포착에 더 중점을 둔다(배종태, 2009: 3).

McGrew(2001)는 많은 연구들에서 고등학생들이 자신만의 기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전의 Gallo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고등학생들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Nelton, 1995).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성공적인 기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였다. Kaufman 기업가정신 지도력 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교육과 기업가들을 위한 지지와 교육자료, 세미나 및 워크숍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의 기업발전센터와 상공회의소들에서는 교사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청소년이 하나의 기업가가 되는데 관련되는 특징들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들을 탐색한 것이다.

(1) 개인적 특징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에서는 개인적 특징과 성공 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개인성에 관한 논의에서 Rauch와 Frese(2007)은 개인적 차이가 기업가정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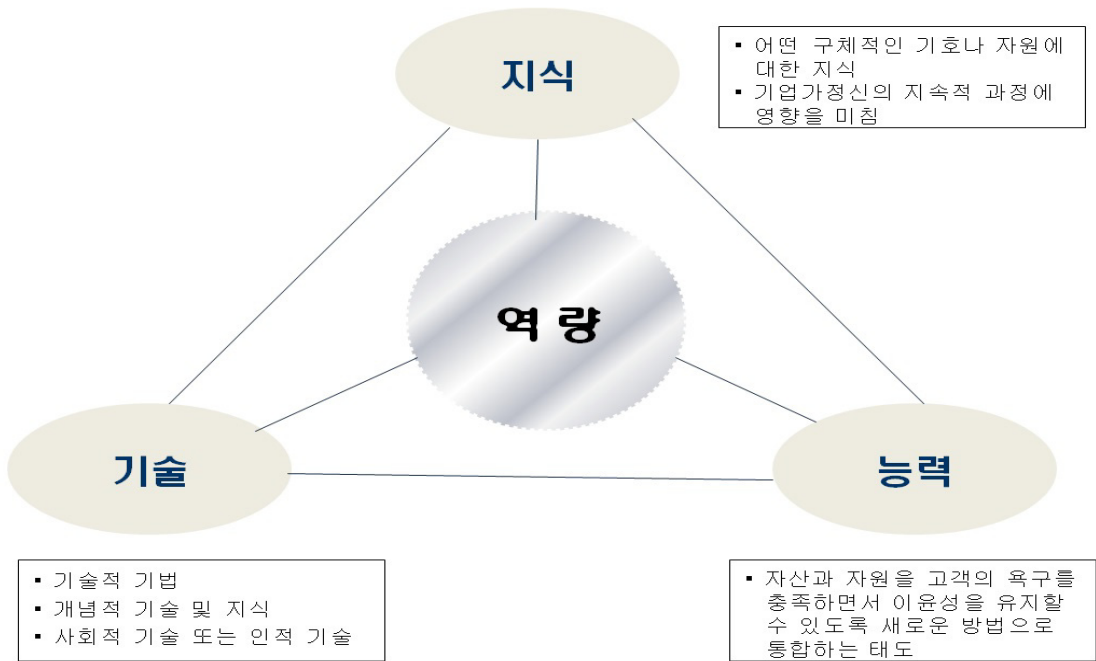
우선, 소기업 소유주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일반인보다 더 높으며, 그것이 벤처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auch & Frese, 2007). 기업가를 볼 때 조사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경향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정적(+)인 관계이지만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성 변수로서 개혁성은 또 다른 정적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가가 되는 가능성과 혁신성이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성공과도 관련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개인적 차이와 특징에는 또한 통제력(control)과 자기효율성(self efficacy)이 포함된다. 통제력과 관련된 요소는 자율이라는 구성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다소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적 통제력을 가진 개인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경향이 더 많다는 점과 다르다. 자기효율성과 긍정적 성과 간의 관계성도 모든 고용자 유형에서 강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들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에도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uch & Frese, 2007).

(2) 개인적 역량 요인

Markman(2007)은 개인적 차이점과 특징에 더하여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여 성공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이 세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는 【그림 II-4】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각각의 요소 중 무엇이 기업가를 도와 성장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그림 II-4】 청소년 기업가의 역량

먼저 지식은 특별한 지식으로서 보통 개념화된다. 다른 말로는 어떤 구체적인 기호나 자원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지식은 또한 그것이 기업가정신의 지속적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은 보통 훈련과 실천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식의 파생물이기도

하고 능력의 개발에도 통합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기술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Ensley, Carland, & Carland, 2000). 기술적 기법(technological skills)은 벤처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s) 또는 지식(knowledge)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생산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또는 인적 기술(human skills)이라는 것은 기업가들의 지도력, 피고용자들의 동기, 그리고 조직 내외의 네트워킹과 관련된다.

능력(ability)은 “자산과 자원(지식을 포함)을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윤성(profita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통합하는 태도”라고 본다(Markman, 2007: 79). 기술이 훈련과 실천에 관련된다면, 능력은 학습과 경험에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기술과 지식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인지성(cognition)이다. 인지성은 자각, 인식, 사고 및 판단 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는 앎의 정신적 과정이다(Markman, 2007).

5) 청소년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²⁾

창업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 중 모기업 없이 새로이 형성된 기업이라는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업의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일이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승배, 2014: 117). 창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이란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Start-up)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인수(Buyout)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김홍길, 2014: 237). 즉, 창업이란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기업가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기회를 포착한 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자본, 노동력, 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김충렬, 2007: 15).

슈페터(1984)는 기업가가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결합 또는 재분배함에 따라 부의 창출 및 증식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새로운 모험적 사업을 시작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했으며(남춘애, 2012: 5, 재인용), 베스퍼(Vesper)는 창업을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시켜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박주현 외래교수(경산1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이전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정의를 내렸다(이승배, 2014: 118, 재인용). 그리고 피터 드러커(P. F. Drucker, 1985)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 했으며, 티몬스(Timmons, 1992)는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 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그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남춘애, 2012: 5, 재인용).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의 제프리 베저스, 델컴퓨터의 마이클 델, 바디숍의 창업자 아니카 로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등 지난 수십 년 간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의 공통점은 벤처 사업가 혹은 창업자란 점이다. 이러한 창업자들이 최근 들어 주목받는 것은 창업활동이야말로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반성식 외, 2012: 20).

대졸자 실업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취업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있다. 이승배(2014: 119-12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들이 일하기 원하는 고용 인원 500인 이상 대기업이 전체 신규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17%에서 2012년 7.6%로 낮아졌으며, 300인 이상 기업 비중도 11%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기 어려운 시점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구상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에게 부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이란 단순히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생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따라서 창업은 본인과 그가 고용한 종업원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창업은 고용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분담한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쏟아지는 200만 명의 신규인력의 2/3을 전 직원 20명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창업을 통한 중소기업 비중의 확대가 실업문제와 함께 경제성장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을 통하여 고용 안정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창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실태

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현황

한국은 정규과정 내에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초·중·고등과 대학까지의 필수과정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육목표를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교육과정 역시 중소기업청의 비즈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관련 과목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입시와 연관이 적은 과목 중 하나로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규과정 내에서는 경제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명확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입시주의의 교육현실에서 경제, 금융,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의 질적, 양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하여 7차 교육과정 중 경제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고(고교 정규과정 내에서 제외) 선택과목인 경제과목의 경우도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창업진흥원, 2009: 64-65).

한편, 정부 부처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교육 중심의 교육과 경제교육 및 창업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구분된다.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부분인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및 지원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제교육 중심의 교육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이 있다. 한국은행의 ‘어린이 경제마을’,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실’,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체험 위주의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창업진흥원, 2009: 67-68).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목적을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비즈쿨(Bizcool)’이 유일한 교육제도이다. 비즈쿨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 및 금융 기초이론에서부터 비즈니스 리더십 및 실천 창업체험까지를 종합적인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 중 가장 청소년에게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09: 13-17).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 명) 대비 0.1%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을 포함,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백 개에 달하는 창업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2012년 전체 424개 대학 중 175개 대학에서 학생 창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창업지원액 239억 원 가운데, 84%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확실적 지원내용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창업 후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멘토가 부족하고 인력채용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장현숙, 2014: 1).

2) 청년창업활성화의 배경

청년창업이란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청년창업지원제도가 40세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에 대해서 사후적인 검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먼저 <표 II-2>에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를 살펴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이유를 든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의 통계치를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창업자는 40대를 기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 연령대별 창업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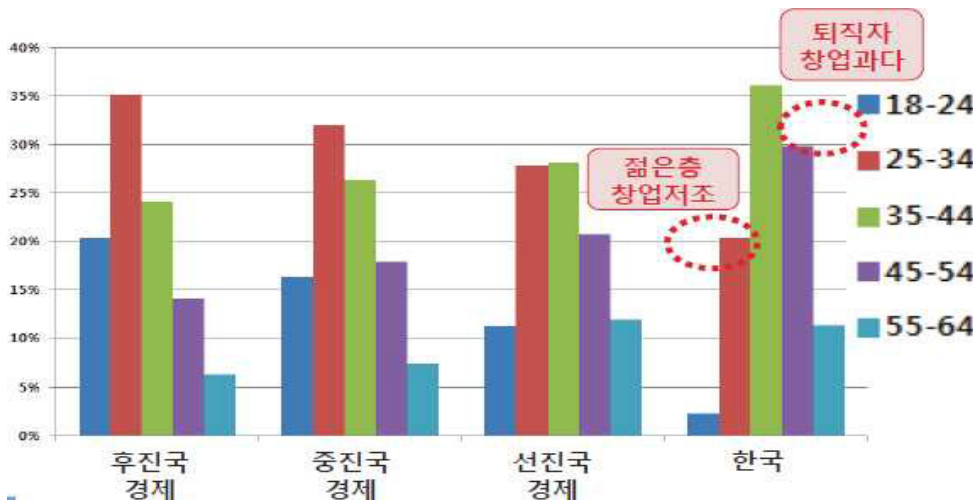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계유지 (다른대안부재)	창업을 통한 성공 가능성	가업 승계를 위해	전공분야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	100	79.2	16.3	2.1	0.5	1.7	0.1	0.1
소계	7,039	5,575	1,147	148	35	120	7	7
40대 미만	1,274	64.9	29	2.1	0.9	2.9	0.1	0.1
40대 이상	5,752	82.4	13.5	2.1	0.3	1.4	0.2	0.1
모름/무응답	13	66.8	33.2	-	-	-	-	-

* 출처: 김종훈(2013). 창조경제를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p.2.

이를 비율 검정으로 보면, 40대 이상과 미만의 창업사유는 그 구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이 40대 이상에서는 40대 미만보다 확률이 높으며,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기업가적 창업은 40대미만이 40대 이상보다 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할 수 있어서 현재의 정부정책이 통계적 타당성이 있음을 검정하였다(김중훈, 2013: 2).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시작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도 선행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실 생활형 창업을 진행하므로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자영업자의 수가 OECD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과, 자영업자의 80%가 창업 후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실로 실증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의 연령대별 창업형태를 비교해보면 이의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연령대별 창업자 분포와 비교할 때 젊은 층(18세~34세)의 창업은 극히 저조하고 퇴직자(45세~64세)의 연령대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을 알 수 있다(김중훈, 2013: 4).



【그림 II-5】 연령대별 창업자 분포

* 출처: 김중훈(2013). 창조경제를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p.4.

또한 【그림 II-5】의 통계를 볼 때, 40대 이후의 창업은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기존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생계형창업자들을 상당수 기업가형 창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공가능성을 위해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중 상당수가 창조경제에 필수적인 기술과 ICT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형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종훈, 2013: 5).

3) 한국에서의 창업활성화 지원 현황³⁾

정부는 국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속되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유형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성수, 2013: 58).

표 II-3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2013)

유형	사업명	소관 부처	지원내용	예산 및 시행연도
사업화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3년 이내의 초기기업의 CEO(만 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	253.9억 원 (2013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협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의사업화 지원	500억 원 (2013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우수 아이템개발을 통해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 희망자(팀)	75억 원 (2013년)
	연구원 예비기술창업지원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연구개발 또는 연구기관 제공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20.5억 원 (2013년)
	실전창업리 「슈퍼스타 V」	중소기업청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 및 창업 멘토링 지원	17억 원 (2013년)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지식의 사업화 역량 강화	30억 원 (2013년)
교육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의지가 높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연	20억 원 (2013년)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박주현 외래교수(경산1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수 및 보육지원	
	창업선도 대학육성	중소기업청	지식·기술 집적된 창업특화대학에 창업교육부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지 지원	402억 원 (2013년)
	창업아카데미 지원	중소기업청	일반인 창업교육기관 40개, 대학교 40개에 사업비 및 교육생 창업지원금, 멘토링비 지원	69.5억 원 (2013년)
	청소년 비즈쿨 지원	중소기업청	전국(130개) 초·중·고교의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화 체험활동 지원	45억 원 (2013년)
기타	청년창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기회 제공	(2013년)
	사회적 기업육성	고용노동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에 경영지원, 운영비 대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및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201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에 사업참여자 배정물량에 따른 육성비용 제공, 참여자에 여비,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 정보활동비, 창업관련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월별 지급	(2013년)

* 출처: 황성수(2013).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 p.58-59, 재구성.

주요 부처(중기청, 고용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정책이 6개, 배정예산은 896.4억 원이며, 창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4개, 배정예산은 536.5억 원이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단계에 있는 정책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전 단계(창업교육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확장, 출구 전략 등)를 아우르려는 정부 창업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4) 대학생 창업 현황 및 지원제도

(1) 대학교 창업동아리 현황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은 청년실업의 대안이자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사회의 창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이나 관심은 매우 낮다. 대학생 중 창업 관련 과목의 이수 비율은 2.6%이며,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도 0.87%에 불과하다. 전 대학(466개)의 창업동아리와 참가자는 각각 1,833개와 22,463명으로 집계되었다(장현숙, 2014: 1-2).

표 II-4 대학교 분야별 창업동아리 현황

(단위 : 개)

구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재료	공예 디자인	생명식품	화학섬유	환경 에너지	기타 (전문분야)	전체
대학 (127개교)	503	199	137	116	92	61	34	305	1,447
전문대학 (63개교)	69	44	61	68	37	8	5	94	386
전체 (190개교)	572	243	198	184	129	69	39	399	1,833

* 출처: 창업진흥원(2013), 장현숙(2014).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p.1에서 재인용.

정부는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해 관련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2013년 9월, 대학 내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장현숙, 2014: 2).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재 61개 창업교육센터를 100개로 확대, 실전중심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연간 500만원 내외 초기 활동비 지원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8개, 창업보육센터 208개, 창업아카데미 30개교 (대 학) 고려대 ‘캠퍼스 CEO’,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KAIST ‘사회적기업가센터’ 등

(2) 대학생 창업 추이

우리나라는 start-up 발굴 및 육성이 국가과제인 가운데서도 대학생 창업자 수 및 이에 따른 매출실적 모두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대학생 창업자현황은 창업자가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 명) 대비 0.0007%, 기업이 전국 466개 대학 중 377개로 학교당 평균 0.8개에 머물고 있으며 2012년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은 236개를 기록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약 35억 원 수준이다(장현숙, 2014: 3-4).

표 II - 5 대학생 창업현황(2010~2013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대졸자수(명)	540,819	562,070	570,049	561,450
창업자수(명)	201	272	242	407
창업기업수(개)	195	263	236	377
창업기업 매출액(천원)	16,489,039	242,945,596	3,494,322	-

* 출처: 대학알리미, 교육통계서비스, 창업진흥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장현숙(2014)이 재구성, p3.

대학별로는 지난 3년간('10~'12)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45명)와 창업기업(60개)이 배출되었으며, 연세대는 같은 기간 창업한 29개 기업이 총 2,33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출액 순위 1위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핀란드 알토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매년 평균 40여개의 신생 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대조된다.

표 II - 6 학생 창업관련 순위(2010~2012년)

순위	학교	창업자수	학교	창업기업수	학교	매출액(천원)
1	KAIST	45	KAIST	60	연세대	233,584,907
2	연세대	28	연세대	29	KAIST	5,386,425
3	한남대	28	한남대	28	가천대	2,047,329
4	원광대	27	원광대	27	한양대	724,199
5	한양대	26	한양대	24	울산대	694,653
6	계원예술대	23	동서울대	21	한남대	480,320
7	동서울대	21	울산대,충남대	21	계명대	293,822

* 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장현숙(2014).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p.4, 재인용.

대학생이 속한 30대 이하 청년창업의 업종을 보면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창업보다 초기 진입이 용이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창업 통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30대 이하 청년창업은 신설법인수 74,162개의 4.7%(3,510개)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73.9%(2,596개)가 서비스업에 편중되었다.

- 연령대별 신설법인수('12년, 중기청) : 30세 이하(3,510개), 30~39세(17,538개), 40~49세(29,347개), 50~59세(18,410개), 60세 이상(5,277개), 기타(80개)

연세대(4억 7,238만원), 동서대(3억 2,290만원), 안동대(3억 1,002만원), 강원대(2억 9,417만원) 등 38개교는 정부지원금만으로 지원하였으며, 조선대(8,663만원), 광주과학기술원(5,499만원), 대구한의대(2,252만원), 울산과학기술대(1,717만원), 대경대(1,518만원) 등 10개교는 교비로만 창업학생을 지원하였다.

또한 계명대는 학생창업지원을 위해 전담인력(교원 6명+직원 14명)을 가장 많이 두고 있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20,496㎡의 창업전용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4)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표 II-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관련 개념이나 창업과정,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일반에서 취급하지 않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16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통해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창업 또는 창업 컨설턴트 양성이 목표인 창업 전문대학원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표 II-8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교과목 및 특성

연도	주요교과목	특성
1970년대 후반~ 1990년	중소기업경영론	• 경영학 위주의 기업 컨설팅 능력 배양
1990년~2000년	중소기업론 중소기업창업론 중소기업지원체계론	•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지원차원 창업 소개 • 비학위 과정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한 창업활동 강화
2000년 이후	벤처창업론 창업론 창업이론과 실무 창업과 정보기술 창업과 경영	• 경영학에서 다루지 않는 실용적인 과목 포함 • 창업 관련 개념, 창업과정의 개요, 창업의 결정요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자본조달, 사업운영 창업윤리, 각종 기업지원제도 등 지원프로그램 •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한 국내외 연수와 개별지도, 인턴십 등 구체적인실용 교육 실시

* 출처: 김주미·권선윤(2013).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p.4.

창업교과목은 전문대학교는 50% 이상의 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반면 4년제 대학은 전체의 8.5%만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전문대학교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 비중이 각각 44.4%, 54.4%, 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학교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비중이 각각 91.5%, 8.5%로 교양선택 과목 선택이 절대적으로 높다.

표 II-9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항목	전문대	4년제
창업교과목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학과별 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다수가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
전공 VS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 비중이 각각 44.4%, 54.4%, 1.2%를 차지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7.6학점, 전공과목으로 10.3학점의 창업과목을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선택, 전공선택 비중이 각각 91.5%, 8.5%로 대다수가 교양 선택
계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계열 21과목(30.4%), 인문사회계열 35과목(50.7%), 교양 11과목(16%), 자연보건 계열 2과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계열 20과목(42.5%), 인문사회계열 11과목(23%), 교양 16과목(34%)
동아리 활동과 창업교육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학계열 창업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7개 학교가 인문사회계열 창업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중에는 1개 학교가 일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교육과 무관하게 모두 공학계열 중심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음

* 출처: 김주미·권선운(2013).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p.5.

창업 열풍이 불면서 전국 대학에선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2013년 현재 대학들이 개설한 창업 강좌는 1,051개로 지난해에 비해 86개로 증가하였다(창업진흥원, 2013). 수강 인원은 4만 8,747명으로 2012년에 비해 608명 증가(전체 대학생의 1.6%)하였다. 그러나 전체 대학으로 살펴보면 창업 강좌 비중은 학교당 평균 2.3개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경우 벤처사업 지원 대학은 252곳으로 대조적이다(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2014: 10).

표 II-10 창업관련 학사제도 확대

단계	2012년	2013년
창업학과	11대 대학(772명)	12개 대학(871명)
학업학과 교수	101명(학과당 9.2명)	113명(학과당 9.4명)
창업 특기생	6개 대학(100명)	7대 대학(120명)
창업강좌 수	965개 강좌(113개 대학)	1,051개 강좌(135개 대학)
수강 인원	4만 8,139명	4만 8747명

* 출처: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4). 미국대학생 창업인프라 심층조사. p.10.

2000년대 이후 대학 창업교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창업교육은 ‘(벤치)창업론’, ‘창업과 경영’ 등과 같이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정차근, 2013: 45). 또한 전체 대학 중 창업학과를 개설한 학교 수도 12곳(2.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정부지원을 통한 창업지원단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5) 대학생 창업의 장애 요인

(1) 제도 활용

첫째,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획일적 지원내용 등 수요자인 창업가에게 어렵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관련제도가 218개에 달하는데다 제도별로 신청 시기,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해, 창업초기기업이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중 시장성 평가나 사업성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고, 심지어 창업 경험이 없는 위원들도 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자금지원은 대부분 사전승인요청을 거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매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학력중심의 획일적인 인건비 산정 기준 등 현실과 괴리된 절차

규정이 산재한다.

넷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는 정해진 시간만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학내 사무공간에 입주해야 하는 등 업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시행으로 낭비를 초래한다.

다섯째, 웹서비스, 앱개발 등 서비스업 관련 창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원제도의 관행이 그대로 존속되어 창업선도대학의 지원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 경영관리

대학생 창업은 학내 창업의 한계로 인력채용과 자금조달에 특히 애로를 호소한다. 창업 후 동아리,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 교내 창업의 장점이면서도, 학교 내 위치하다보니 외부 전문가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두기 어려워,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창업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 투자처를 찾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반사이다. 정부 지원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후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3) 창업자간 네트워크 활용

동종업계 창업 선배나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창업 후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멘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 경험이 없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전후 겪게 되는 수많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종업계나 관련분야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창업이 활발한 밥손대학(미국), 아헨공대(독일) 등은 상시적인 멘토가 가능하도록 산업현장 경험을 교수의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기업인 교수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이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 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때 현장 경험중심의 전문 멘토링 서비스와 동종업계 창업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창업 자금 지원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구비서류의 간소화, 부처 간 서류양식의 통일, 지원금 총액을 카드로 일시 선지급하는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창업자의 행정편의성을 증대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지원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자금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대상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창업기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초기 창업기업의 인턴 활용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초보자인 학생 창업가는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며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창업 이후 성장단계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넓혀서 장기적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소년 창업의 필요성 및 창업교육 모형

1) 청소년 창업교육의 필요성

창업교육이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된다. 아울러, 청소년 단계에서의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로서 경영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의미하고(김주미·오상훈·양재동, 2007: 3). 창업교육을 통해서 는 창업을 위한 과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윤석, 2014: 15).

Ronstadt(1985)는 창업교육은 일방적으로 학습자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촉진자나 대리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줌으로써 학습자가 경험과 필요를 느껴 체득하게 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na(2003)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창업교육은 창업 기업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므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재환·김용태, 2009: 1780, 재인용).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생 86.4%, 교수 94.5%, 입주 업체 대표 95.0%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향후에 창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다(박선영, 2013: 16-17).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필요성을 볼 때 앞으로도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창업자가 성공하려면 교육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 경제적 사고를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박재환·김용태, 2009: 1779).

이와 관련하여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2.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양현봉, 2011: 16). 창업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의 축적'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지원기관 활용방법의 안내(20.35)', '기업가 마인드 제고(12.3%)', '창업에의 자신감 고취(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충분한 여건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양현봉, 2011: 16-17).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해 주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해 주는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승배, 2014: 172-173). 교육을 통해서 창업 활동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많은 수의 성공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분야와 영역에 도전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이 꿈을 펼칠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미국 카우프만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 열기가 높을수록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반면 창업 열기가 낮을수록 성장률은 저조해진다고 한다. OECD의 연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이 고용증대뿐만 아니라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한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 활동과 벤처기업의 활성화, 나아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의지 배양은 물론 창업 준비과정 및 기업성장 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준비기간인 학창시절은 앞으로 계획할 창업에 대한 준비 기간이므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창업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창업학습은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창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도 창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가적 창업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창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 관리, 사업 계획 등 창업경영 방법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창업교육 통합모형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교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창업교육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들의 관점은 <표 II-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길석, 2007; 정지호, 20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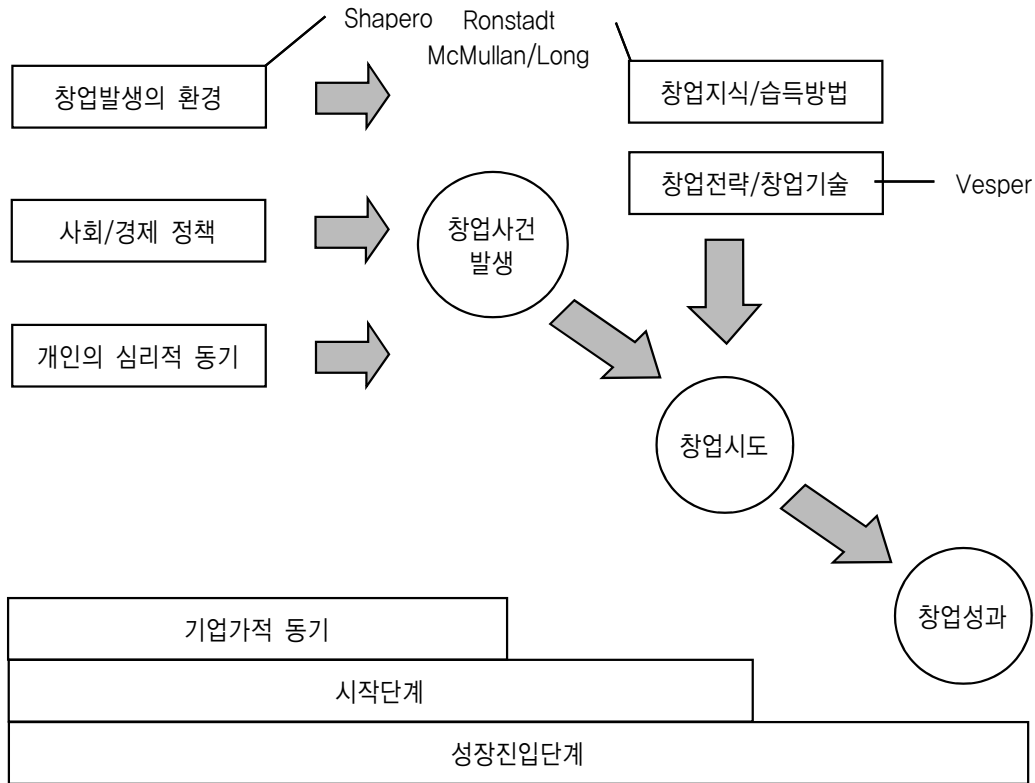
론스타드(Ronstadt)와 맥멀론(McMullan)과 롱(Long)은 창업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창업지식과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베스퍼(Vesper)의 경우, 창업을 초기단계의 시작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샤프로(Shapero)는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학자의 주장을 강조한다면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표 II-11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학자 구분	Ronstadt	McMullan & Long	Vesper	Shapero
창업에 관한 관점	New School	Growth Venture P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계획	창업발생 조건과 개인동기 요인
창업교육의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창업초기과정과 성장진입 단계	창업의 시작 단계로 한정	창업발생 조건 개인동기 창업기술/지식

* 출처: 정지호(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13.

그러나 현재 창업이란 영역은 하나의 종합학문으로 창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모형의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길석(2007)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정 결정 통합모형과 창업교육모듈을 【그림 II-6】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형은 창업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이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고 있다.



【그림 II-6】 창업교육 결정 통합모형

* 출처: 한길석(2013). 창업과 기업가정신. p.12.

이러한 통합모형에 맞추어 창업교육이 실시될 경우 5명의 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교육 영역을 통합한 것으로 교육대상자와 교육목적에 따라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창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표 II-12>과 같이 창업동기 유발, 창업지식, 창업기술, 창업전략 및 창업성과의 5개 교육모듈을 생각할 수 있다.

표 II-12 창업교육모듈

중점 교육 분야	창업동기 유발	창업지식	창업기술	창업전략	창업성과
모듈	창업환경 분석	사업개념 전략		창업환경 분석	창업성과 분석
	창업기회 탐색				
비중	17%	23%		25%	14%
	21%				
교육방법	팀티칭, 사례연구	팀프로젝트		팀티칭, 멘토십, 인턴십	인턴십, 멘토십
	인턴십, 해외연수				
강의참여	창업경험교수, 기업가, 전문가	전문가, 창업경험교수, 기업가		전공교수, 전문가	전문가, 기업가
	전문가, 기업가				

* 출처: 한길석(2013). 창업과 기업가정신. p.13.

제 Ⅲ 장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지원체계 분석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 진단
2.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학교 교육과정 분석
3. 정부와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찰

제 III 장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지원체계 분석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 진단⁴⁾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크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정부와 민간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요 특징을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주체 그리고 지원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미흡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많지 않다. 실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육들(중소기업청의 비즈쿨 등)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다루어지는 형태로 이들 교육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만을 위한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NFTE-Koea와 JA-Korea와 같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매우 한정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내용은 창업 및 경제교육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조영아 박사가 집필하였음

다만 최근 들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양성이 강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업가정신’ 과목을 새롭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단계 이기에 아직까지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 미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자체에 주요하게 초점을 두는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기업가정신이라 불릴 수 있는 교육내용들은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에서 일부 다루어지기도 하고 있으나 내용 및 시수 면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경제개념 및 이론 중심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상업정보계열의 전공 교과에서 사례를 통해 기업가 정신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프로그램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방문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개념과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들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창업교육의 경우 보다 실제적인 실무 내용들이 다루어지기는 하나 이 또한 스킬 위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하여 기업가적 태도 및 사고방식을 위한 관련 내용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법 부족

현재 기업가정신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념 및 이론중심의 교육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정부 및 민간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의 경우, 모의투자, 모의창업 등 실습 및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도 운영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경제 및 창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강의, 실습, 체험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 대부분은 강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및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멀티미디어 영상 또는 게임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정부 및 민간 기관에서는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연구 활동, 기업

방문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이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실제적인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이론, 실무, 체험(견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4) 일반 기업들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미비

현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은 정부 및 민간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기업들은 대부분 신문 관련 기업, 비영리 교육 기관 등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가장 많은 관련성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반 기업 및 창업 관련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대표 단체라 할 수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과 방법, 대상, 시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 및 금융교육 역시 일회적인 단기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지원체제 부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법, 제도, 인프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경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 등을 일부 존재하나 경제교육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깊은 경제 및 창업교육 역시 정규 교육과정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학생들이 경제 및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공유 및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이 부재하여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창조경제의 강조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 및 과제(중등기술창업교육 패키지 개발 등)들이 조금씩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범단계이기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지원체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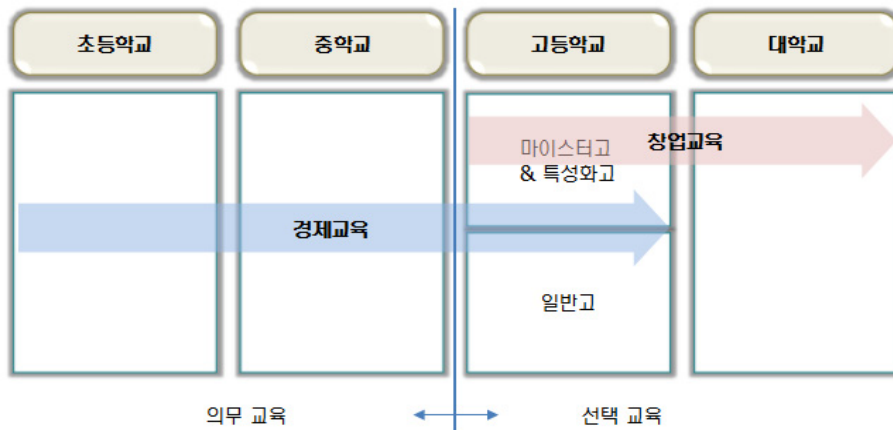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교육과정과 정규 교육과정 외 정부와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학교 교육과정 분석

정규 교육과정 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까지 포함하여 필수 과정이 전무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교육 목표를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교육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경제교육 중심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는 경제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 경제교육과 더불어 창업교육이 일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Ⅲ-1】 학교급별 기업가정신 함양 정규 교육과정 체계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95 재구성.

경제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크게 ① 교과 영역으로의 경제교육과 ②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 영역의 경제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과 영역의 경제교육은 다시 사회 교과와 경제 단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와 독립된 교과인 심화 선택 교과로 운영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교과 영역의 경제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사회 교과와 경제 단원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나 심화 선택교과로 독립된 교과형태의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교육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 중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 '창업과 경영'이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비율이 낮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중심으로 일부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태도)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창업 관련 지식 및 스킬 습득을 중심으로 창업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과 영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일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각 학교급별로 정규 교육과정 내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경제관련 교육은 3학년을 시작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합리적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용돈 관리, 근검절약, 소비생활 등)이 실과(기술/가정) 및 도덕 과목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회교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수준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제가 포함된 일반사회와 지리 그리고 역사영역이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각 영역이 구분되어지나 경제는 여전히 일반사회 영역 속에 포함되어 사회 단원 내에서 일부 경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학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 모습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과 소통하기 우리 지역, 다른 지역 경제 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지역 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3.

경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3~4학년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5~6학년의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각각 1개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내용은 희소성에서부터 합리적 소비, 국제거래, 자원고갈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경제 개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다루어지고 있다.

표 III-2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관련 단원 내용

학년	관련 단원	경제교육 관련 내용 요소
3~4학년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소성 합리적 선택 생산 활동 합리적 소비 소비자 권리 노동
5~6학년	우리 경제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와 경쟁 경제성장 국제거래 국제경쟁력 빈부격차 노사갈등 자원고갈 정보화와 세계화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8-11 재구성.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실과(기술/가정)교과 내에서 직업과 진로 내용, 경제에 관한 기초 지식 및 소비와 저축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내용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 밖에도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관련 내용들은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교육과학기술부, 2010)을 통해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교육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들이 일부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관된 경제교육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경제교육협회(2012)는 ‘아하! 경제 신문’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조원표, 2011).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교육 시범학교였던 온양풍기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활동 중심의 경제교육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운영하였다(온양풍기초등학교, 2012). 이외에도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창의적 특색활동 영역)시간에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범교과 학습주제로 경제 교육을 다룬 초등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은 일반 교원이 가르치게 되지만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량이 학부 재학 중 이수한 경제 관련 과목이 1과목 이내이고 경제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견학 및 체험이 27.3%, 기타 27.9%, 없음이 25.2%로 나타났는데,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실시한다는 의견이었다.

2) 중학교

중학교 역시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서 주로 경제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역사는 독립되고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에서 경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지리 영역에서는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사회 영역에서 정치, 사회, 문화, 법과 함께 경제 관련 교과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III-3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학년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1~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는 세계 •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 자원의 개발과 이용 •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 우리나라의 영토 •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사회생활 • 문화의 이해와 창조 • 사회의 변동과 발전 •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 경제 생활의 이해 • 시장 경제의 이해 • 인권 보장과 법 • 헌법과 국가 기관 •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 국제 경제와 세계화 •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4.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지리 영역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단원만이 다루어지며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경제생활의 이해’, ‘시장 경제의 이해’,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국제 경제와 세계화’ 등의 단원에서 미시경제 및 거시경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 비해 일반사회영역에서 경제 관련 단원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 사회과 교육과정 내 경제 과목 비중은 미흡하다.

표 III-4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관련 단원 내용

영역	관련 단원	경제교육 관련 내용 요소
지리	글로벌 경제와 지역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기업 • 국제경제협력과 경쟁
일반 사회	경제 생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 자산 관리
	시장 경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와 공급 • 가격결정의 원리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인플레이션과 실업
	국제 경제와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거래 • 국제경제협력과 경쟁 • 환율과 국제 수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20-26 재구성.

중학교 교육과정은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경제 개념 및 이론 중심의 내용들이 다루어져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에 미흡하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근영, 최숙희, 2004; 1-37). 창업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 역시 경제이론 교육에 편중되어 직접적인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중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일부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가 한정적이었으며,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경제교육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 중심으로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경제 관련 교육은 일반사회를 정공한 사회과 담당교과 교사가 주로 지도를 맡고 있다.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교사 응답자의 41.8%가 학부 재학 중 이수한 경제 관련 과목이 3~5개 과목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경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수업 외 경제교육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나 되었으며, 경제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경제교과서 외에 경제기사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8%).

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된 경제교육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일반	심화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 • 경제 • 법과 정치 •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치 • 국제경제 •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 세계 문제 • 비교 문화 • 사회과학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사회와 문화 • 국제법 • 지역 이해 • 인류의 미래 사회 • 과제 연구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p.15.

* 주: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가능

고등학교는 초등 및 중학교와는 달리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하나 경제가 하나의 독립된 일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고 심화된 경제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일반 선택과목으로 경제과목, 그리고 심화 선택과정으로 국제경제가 편성되어 있다. 주용 내용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 경제개념을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는 <표 III-6>과 같이 총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중학교에 비해 해당 범위가 폭넓고 심화된 내용이다. 고등학교 경제 선택과목의 내용 체계 가운데 '경제생활과 금융'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되었다. 금융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생활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내용면에서도 수입/지출/저축과 금융계획, 자산과 부채/신용 관리/금융수단/투자계획 등 보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경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김진영, 2010: 32-33).

표 III-6 고등학교 '경제' 과목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합리적 선택 • 비용과 편익, 경제적 유인 • 분업과 특화, 자발적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체제 •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상품의 수요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 • 기업(상품의 공급자, 생산 요소의 수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 활동)
시장과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공급, 탄력성 • 시장 균형 •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시장, 금융 시장 • 시장 실패, 정부 개입 • 정부 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한국 경제의 변화 • 국민 경제의 순환, 국내 총생산 • 실업, 인플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요와 총공급 •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의 원리 • 무역 정책 • 외환 시장,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수지 •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경제생활과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 • 자산과 부채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계획 수립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108.

또한 심화 선택과목으로 '국제 경제'가 편성되어 있어 '국제 경제의 이해', '국제 교역체제의 변화', '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 '국제 경영과 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의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국제 경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생활·교양 교과 영역 중 교양 교과(군)의 하나로 생활 경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생활경제 교과목은 심화과정인 ‘경제’ 또는 ‘국제 경제’와는 달리 일반 생활 속의 경제 지식 활용에 염두에 두고 설정된 일종의 ‘교양’과목에 ‘창업과 경영’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7 고등학교 보통 교과 생활·교양 교과 영역 과목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가정*, 농업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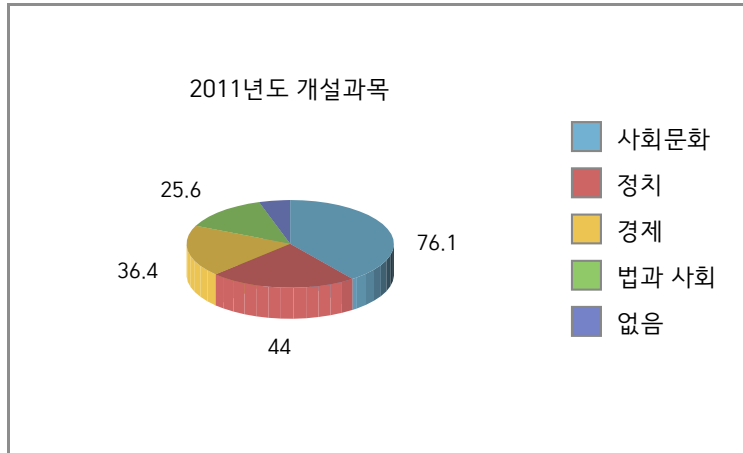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p.16.
 * 주1: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가능
 2: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 가능

교과서 편찬 방식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검정 교과서와 달리 시도 교육감에게 승인이 위임되어 있는 인정 교과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경제는 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택률 역시 상당히 낮은 편이다(김종석 외, 2005). 또한 생활경제는 경제과목에 비해 더 쉬우면서도 기본이 되는 내용, 실생활에 근접한 내용을 다루어 실제적인 기업가정신 및 경제학 중심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나 경제와 관련된 단순지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종석 외, 2005).

이처럼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경제교육의 내용이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보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금융관련 내용 및 생활 경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제개념과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단위학교에서 사회과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문화나 정치에 비해 경제를 선택한 학교와 학생 수는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 고등학교에 개설된 일반사회 관련 선택과목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I-2】**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문화가 76.1%로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44.0%)와 경제(3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 -2】 2011 고등학교 일반사회관련 선택과목 개설 현황

* 출처: 오영수 외(2012).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 설문조사. p.110.

또한 학년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경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설치한 편성학교 비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2012년 실제 서울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볼 때 2009학년도 86.2%의 학교가 경제과목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표 III-8>를 보면, 2011학년도에는 82.0%, 2012학년도에 78.2%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경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하는 학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8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경제과목 편성 학교수(2011~2012)

학년도	과목	경제			비고
		1학년에 편성	2학년에 편성	3학년에 편성	
2011 (222교)		-	173교 (77.9%)	110교 (49.5%)	40개교 미편성 편성학교 비율 82%
2012 (225교)		2교 (0.8%)	143교 (63.6%)	99교 (44.0%)	49개교 미편성 편성학교 비율 78.2%

* 출처: 김종호(2012). 경제교사 연수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p.52.

이처럼 경제 과목 편성 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 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중호, 2012: 52). 2012년 경제교육협회에 의해 실시된 경제교육 실태조사의 전국 초·중·고등학생 경제 이해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2년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실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20.1%, 중학교 교사의 31.2%, 고등학교 교사의 36.9%만이 경제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 있다.” 라고 응답(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응답)하고 있어 교사 역시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보통 교과 중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 기업경영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데 기업경영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경영’으로 교과목이 변경되었다(<표 III-9>참고). ‘창업과 경영’ 과목은 창업과 경영에 관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9 **고등학교 ‘창업과 경영’ 과목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경영의 기초	경영과 경영자	• 경영과 경영자의 뜻/ 경영의 주체와 역할/ 경영자 정신과 경영 윤리
	기업과 경영 환경	• 기업의 경영 환경/ 경영 환경의 구성 요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관리의 과정	경영 계획의 수립	• 관리 순환 과정/ 경영 목표의 설정 /경영 계획 수립의 과정
	조직과 지휘	• 조직화와 조직 구조/ 조직 내의 동기 유발/ 지휘와 리더십
	통제와 경영 정보	• 경영의 통제 활동/ 회계 정보의 활용/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활동과 미래 경영	경영 활동과 기능	• 인사 활동과 생산 활동/ 마케팅 활동/ 재무 활동
	경영 전략	• 경영 전략의 뜻/ 경영 전략의 수립/ 경영 전략의 실행
	현대 경영과 창업	• 현대 경영의 혁신과 비전/ 현대 경영의 국제화/ 미래 경영과 기업의 창업
창업의 준비	창업과 창업자	• 창업의 뜻과 형태/ 창업자의 역할과 자질 / 창업자의 강점 및 약점 분석

	창업과 환경 분석	•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창업의 성공과 실패 요소/ 환경 분석과 창업의 방향 선정
	창업의 설계	• 창업 아이템 선정/ 창업 타당성 분석/ 창업 계획서 작성
창업과 운영	창업과 자금 조달	• 창업의 형태와 설립/ 창업 자금의 조달/ 창업 자금의 지원 제도
	창업 생산과 마케팅	• 창업과 생산 계획/ 품질 경영 및 재고 관리/ 창업 마케팅
	창업 인적 자원과 세무	• 창업 인적 자원과 영역/ 창업 인적 자원의 단계별 활동/ 창업 세금과 기타 세무 상식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4). 창업과 경영 교육과정 개정 시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 p.3-4.

이와 같이 ‘창업과 경영’ 교과목의 경우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 외에도 경영자 정신, 창업자의 역할과 자질과 같이 기업가정신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기업경영교과 편성에 있어 교육과정 반영 고등학교는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총 1,591개교 중 73개교만(4.6%)이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교육 내용을 학습하는 학생의 수(12,610명)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기에 관련 교육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한문성 외, 2010).

이 밖에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표 III-10>에서와 같이 상업·정보계열에서 ‘상업 경제’, ‘회계 원리’ 등의 다양한 회계 관련 과목들, ‘금융 일반’, ‘금융 실무’ 등의 금융 관련 과목 등 경제과목이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공 선택 교과 내용 중 직접적으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과목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업·정보계열 교과 중 전공 선택 교과로 ‘기업과 경영’ 및 ‘창업일반’ 교과가 편성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경영은 상업·정보 계열 학생이 경영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 총 4개 단원으로 구성하여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창업일반은 상업정보계열의 교양적 성격을 갖는 과목으로 창업에 대한 절차와 세무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된 과목으로 총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창업사례들이 각 단원별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해외 유학 또는 경제관련 각종 테스트, 대학교 수시 입시 등에 대비하여 AP코스(대학 선수학습과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학 원론 수준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종호, 2012).

이 외에도 고등학교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청소년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미래창조과학부, 2013),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어 청소년 창업동아리 활동이 향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0 상업정보계열 ‘기업과 경영’ 및 ‘창업 일반’ 과목 내용 체계

구분	영역	내용 요소
기업과 경영	기업 경영과 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경영의 의의 기업의 경영 환경
	경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조직
	기업의 경영 관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관리
	기업의 국제화와 경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국제화의 의의와 단계 기업의 국제 활동 유형
창업 일반	창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의 뜻 창업의 성공 요소
	창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의 기본 절차 창업 환경 분석 사업의 타당성 분석
	창업과 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자금의 조달·운영 창업 자금의 지원 제도
	아이디어 창출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재산권 신지식 재산권
	사업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계획서의 뜻 작성 순서 구상 및 내용
	CEO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기업 서비스 기업

* 출처: 교육부(2011). 상업정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25, p.171 재구성.

3. 정부와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고찰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주체들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부 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경제협회 등 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으나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양성이 강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기관을 통해서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문관련 업종, 비영리기관, 협회 등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및 민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경제교육 또는 창업교육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청의 청소년비즈쿨, 미래창조과학부의 중등기술창업패키지, NFTE-Korea의 Dare to Dream, JA-Korea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과 함께 창업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1)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Bizcool)은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모두를 포괄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09). 그 외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들은 경제교육 또는 창업교육 어느 한 면만을 주요하게 다루는 교육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교육 중심의 교육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한국은행의 '어린이 경제마을·청소년 경제나라',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실',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한국개발연구원의 '클릭! 경제교육' 등이 대표적이며, 창업교육 중심의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wi-fi 창업과 진로' 등이 있다.

표 III-11 정부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종합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주요 초점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청	청소년비즈쿨	초/중/고교	경제·창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쿨 학교지원 창업캠프 등
2	미래창조과 학부	중등기술창업교육 패키지	고교	경제·창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과목 개설·운영 기술창업캠프 창업동아리 지원
3	기획재정부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초/중/고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학습 콘텐츠 및 정보 제공
4	한국은행	어린이 경제마을 청소년 경제나라	초/중/고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학습 콘텐츠 및 정보 제공 경제 강좌 및 견학 서비스 제공
5	금융감독원	금융교실	초/중/고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등 학습 콘텐츠 제공
6	한국경제 협회	경제교육종합포털 경제교육	초/중/고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 실시 경진대회 개최 경제교육종합포털 운영
7	한국개발연 구원	청소년경제교실	중학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 실시 경제정보 제공
8	교육과학기술부	Wi-Fi 창업과 진로	중/고교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출처: 각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참고문헌 참고).

제 III 장
교육 및 청소년
창업소년
지원체계
분석

각 기관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 및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청의 청소년비즈쿨

청소년비즈쿨은 2002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현장 및 캠프 등을 통해 경제교육과 창업·경영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기업가 정신 및 비즈니스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경영학습 프로그램이다(창업넷 홈페이지, 2014). '비즈쿨(Bizcool)'은 Business와 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창업을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며,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비즈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각 대상별 지원내용을 <표 III-12>과 같이 조금씩 차별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론과 체험, 그리고 실습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표 III-12 청소년비즈쿨 대상별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초등학교	• 어린이 경제, 금융 기초이론 교육 및 실생활과 연계한 실전적 비즈니스 체험 학습교육
중학교	• 청소년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중급 이론교육 및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
고등학교	•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급 이론교육 및 실전 창업체험 학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 출처: 창업넷홈페이지(2014. 08. 27). 비즈쿨 지원내용. Retrieved from http://www.changupnet.go.kr/home/bizCool/info.do?mid=1077&searchBizcoolIntroCode=BIZCOOL_INTRO01.

청소년비즈쿨은 크게 비즈쿨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① 비즈쿨 학교지원과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창업 캠프를 운영하는 ② 창업캠프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비즈쿨페스티벌, 창업전문가 특강, 비즈쿨 전문교사 양성교육 사업, 비즈쿨 표준교재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활동 및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비즈쿨 학교지원은 <표 III-13>과 같이 비즈쿨 선도, 도약, 도전의 유형별 학교 200여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즈쿨 활동역량에 따라 학교별 5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III-13 비즈쿨 지원 규모

구분	창업선도비즈쿨	창업도약 비즈쿨			창업도전비즈쿨
대상	고등	고등	중등	초등	초·중·고등
사업비(백만 원)	35	18	12	10	5
규모(개)	15	98	16	16	55

* 출처: 창업진흥원(2014. 08. 27). 청소년비즈쿨. Retrieved from <http://www.kised.or.kr/bus/edu1.asp>.

창업선도 비즈쿨은 전교생이 교내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비즈쿨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창업특화학교를 의미한다. 이들 학교는 창업이론과 실습 및 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필수교육프로그램(연간 34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창업도전 비즈쿨은 연간 의무교육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학사 일정에 맞춰 체험활동 중심의 창업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하고 연간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표 Ⅲ-14 비즈쿨 일반교육지원 체계

	기본 ▼	강화 ▼	심화 ▼	
구분	기본프로그램 (인프라구축)	강화프로그램 (동기부여, 기회제공)	심화프로그램 (연계 및 글로벌창업지원)	비고
사업명	청소년비즈쿨		창업영재육성프로그램 (새싹기업)	청소년 창업교육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쿨학교 운영지원 • 비즈쿨캠프 -청소년경제, 창업캠프 -어린이 창업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쿨 페스티벌 • 교사연수, 지정기관 수여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영재 육성지원 프로그램 • 새싹기업캠프(Track A/B)(해외탐방포함) 	

* 출처 : 창업진흥원(2014.08.27). 청소년비즈쿨. Retrieved from <http://www.kised.or.kr/bus/edu1.asp>

비즈쿨은 <표 Ⅲ-14>와 같이 정규교육 과정, 창의활동 및 방과 후 시간, 방학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창업 및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비즈쿨 교과운영, 이론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각종 체험활동(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비즈마켓, 투자유치대회, 창업골든벨, 창업관련행사 등), 외부전문가 특강, 창업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운영한다.

청소년 비즈쿨캠프는 크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싹기업(창업영재)캠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창업캠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경제·창업캠프, 남북청소년, 소년원, 한일 고교생 교류 등 대상에 특화된 특화 창업캠프 등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비즈쿨을 운영한 결과, 전국 135여개 초·중·고교(초 15, 중 10, 고 110), 약 13만 명(비즈쿨 학교 11.6만 명, 비즈쿨 캠프 2만 명, 창업동아리 1.2만 명)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창업체험 등에 참가하여 미래 CEO의 꿈을 키웠다. 특히 선도 비즈쿨(13개 특성화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3 재학생(3259명) 중 653명(창업 10, 대학진학 98, 취업 545, 전체 대비 20%)이 창업·취업 또는 진학에 성공하는 등 비즈쿨이 고교생들에게 진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부터 지원규모를 50억까지 늘려 비즈쿨 참여 학교를 대폭 확대('17년까지 500여개로 확대, 전체 초중고의 5%)하고, 비즈쿨 프로그램을 학교별 정규과정에 포함토록 유도하는 한편, 비즈쿨 영재캠프, 창업성공·키움캠프 등 방학 중 다양한 특화 창업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즈마켓·비즈쿨 페스티벌('14. 10월 개최) 등 다양한 창업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의 중등기술창업교육 패키지

창조경제가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교 시절 정규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및 비즈니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규과정, 방과 후·주말·방학 프로그램, 특별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중등기술창업교육 패키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2학기부터 우선적으로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과학기술창업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이나 창업캠프 등의 특별활동도 운영하였다.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구성은 다음 <표 III-15>와 같으며, 향후 미래의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1~2개교)에도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마이스터고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타 영재학교, 과학고 및 일반 고등학교로도 확산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표 III-15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구성(안)

구분	내용(예시)
정규수업	•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 개설·운영
방과 후·주말·방학프로그램	• 기술창업캠프(진로체험, 모의창업대회 등) 운영
특별활동	• I&D(Imagination & Development)과제, 창업동아리 지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3.07.18.), 미래부, 청소년 기술창업교육에 본격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주: I&D(Imagination & Development)과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학생연구 활동을 의미함.

(3) 기획재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기획재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흥미유발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 대상을 어린이(초등학생)와 청소년(중·고교생)으로 구분하여 경제교육의 내용에 있어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흥미를 느끼며 학습할 수 있도록 <표 III-16>과 같이 각 대상별 주요 경제내용에 대한 학습 콘텐츠를 플래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오늘의 경제용어 및 경제용어 사전, 경제학자 이야기, 다양한 경제뉴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표 III -16 기획재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제공 교육콘텐츠

구분	제공 콘텐츠 내용
어린이 경제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명한 선택(재화의 희소성과 선택/기회비용/교환과 특화) • 시장과 가격(시장이란/수요와 공급/경쟁과 효율성) • 우리집 경제(소비의 중요성/미래 대비하기) • 기업과 생산(기업과 기업가정신/생산과 생산요소) • 금융이야기(금융의 역할/신용관리의 중요성) • 나라경제의 흐름(국민소득과 경제성장/물가와 실업) • 정부의 역할(시장경제와 정부/세금과 정부지출)
청소년 경제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과 선택(희소성/기회비용/합리적 선택) • 교환과 특화(교환/특화) • 시장과 가격(시장과 자원배분/수용과 공급/시장경쟁과 가격) • 기업과 생산(생산과 생산요소/기업과 기업가정신/노동과 노동권) • 소비와 신용(소비와 신용) • 금융과 자산관리(금융시장과 금융기관/저축과 자산관리) • 정부의 역할(시장경제와 정부/시금과 정부지출) • 국민소득과 경제성장(국민소득/경제성장) • 실업과 인플레이션(실업/인플레이션) • 국제거래(무역/환율)

* 출처: 기획재정부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2014.08.27.). 경제교실 플래시 목록.

Retrieved from <http://kids.most.go.kr/index.php>

(4) 한국은행의 어린이 경제마을·청소년 경제나라

한국은행은 2006년 초등학교 대상의 어린이 경제마을, 중고등학교 대상의 청소년 경제나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제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마을 및 청소년 경제나라는 <표 III-17>과 같이 크게 경제 학습, 경제게임, 커뮤니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상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경제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I-17 한국은행의 어린이 경제마을·청소년 경제나라 제공 콘텐츠 내용

구분	경제학습	경제게임	커뮤니티
어린이 경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기초 다지기 이야기로 배우는 경제 돈 바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폐놀이 경제 지식 쌓기 경제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돈 기입장 (어린이 경제마을에서만 제공) 경제지식 나누기
청소년 경제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기초학습 경제 심화학습 경제생활 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지식 게임 경제체험 게임 경제심리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클럽 설문참여

* 출처: 기획재정부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2014). 경제교실 플래쉬 목록. Retrieved from <http://kids.mosf.go.kr/index.php>

경제 학습은 대상별 주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주제별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래시 또는 애니메이션, PDF 등 다양한 교육 자료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경제게임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는 '세계 경제여행', 단계별로 퀴즈를 풀어나가는 '경제퀴즈왕', 가상으로 소비·투자 등 금융활동 미션을 수행해나가는 '경제 라이프 시뮬레이션', 다양한 금융상품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해보면서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모의투자' 등 어린이용 14종, 청소년용 12종의 게임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경제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경제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클럽과 경제 관련 설문참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에서는 오프라인 경제 강좌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부설 화폐금융박물관이 개최하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 청소년 경제 캠프, 토요일 경제 강좌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 강사 지원, 한국은행 및 화폐금융 박물관(서울), 화폐전시실(춘천) 등의 방문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 관련 각종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교육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그림 Ⅲ-3】 과 같이 금융교육 토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대상별 다양한 금융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신청하면 각 학교에 찾아가 금융교육을 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Ⅲ-3】 금융교육 토달네트워크 체계도

* 출처: 금융감독원. (2014). 금융교육 안내. Retrieved from <http://edu.fss.or.kr/fss/edu/edu/junior1.jsp>

금융감독원은 방문교육 외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중 ‘청소년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실은 <표 Ⅲ-18>과 같이 2005년 8월 처음 개설된 이래 2012년 여름방학 금융교실까지 총 3,123명(금융감독원, 2014)이 참가하였다.

표 Ⅲ-18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실적

(단위: 명)

구분	05년 (2회)	06년 (2회)	07년 (2회)	08년 (2회)	09년 (2회)	10년 (2회)	11년 (2회)	12년 (2회)	누계
참가인원	108	324	120	330	429	412	620	708	3,123

* 출처 : 금융감독원(2014).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실적. from <http://edu.fss.or.kr/fss/edu/edu/class1.jsp>

교육 내용은 금융지식 강의와 금융현장 견학(체험)으로 구성되고 각각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교사 금융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교사들의 금융·경제 분야 이해력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 내 효율적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대상에 특화된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각 대상별 맞춤형 금융지식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 제공(e-book, PDF,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게임 및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다.

(6)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 상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서, 경제교육 기반조성사업, 경제교육 활성화사업,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는 경제교육 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제교육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주요 경제교육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학생, 교사, 일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사용 on-line 경제교육 제공, 교장·교사 등 경제교육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경제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사와 경제지도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도 수행하여 수준 및 대상별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경제교육 봉사활동 지원, 경제교육 대중화 사업,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및 보급, 경제교육방송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 III-19>와 같이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아하경제 청소년 경제연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실용경제교육 경진대회(경제교육 인사이트 골든벨) 개최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제교육 역시 실시하고 있다.

표 III-19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 내용
경제교육 프로그램 (아하경제 청소년 경제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함양을 위해, 경제교육의 기초에 충실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의 경제 연수 실행

실용경제교육 경진대회
(경제교육 인사이트 골든벨)

• 학생들의 능동적 경제학습 습관을 배양하고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경진대회 운영

* 출처: 한국경제교육협회. (2014). 경제교육사업. Retrieved from http://www.beacon.or.kr/Menu.bcn?method=menuView&pageMode=beacon_home&top=2&sub=0&sub2=0&sub3=0

(7) 한국개발연구원의 '청소년 경제교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5년 12월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장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 경제교실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전국 중학교 2~3학년만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에 개최되는 2일 교육(14시간)으로 1기당 40명 내외로 진행된다.

청소년 경제교실은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시장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개방화와 국제경제 등 전문적인 내용과 생활과 경제, 미래의 직업세계, 신용관리, 경제논리와 글쓰기 등 실용적인 내용이 함께 소개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 '클릭 경제교육' 사이트는 주로 중고교 사회, 경제 과목 교과 수업에 도움을 주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질문 있어요.' 코너는 학생들이 사회나 경제 과목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교사나 전문가가 꼼꼼하게 답변해주는 코너로 2004년 개설 이래 약 2천 개의 질문이 등록된 인기 코너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은 '클릭 경제교육' 잡지를 발행하여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명 경제학자 인터뷰, 기사 속 경제이론, 교과서 속 통계 등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경제이론과 시사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경제 교과의 교수학습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있다.

(8) 교육과학기술부의 'Wi-Fi 창업과 진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일환으로 'Wi-Fi 창업과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Wi-Fi 창업과 진로는 개별 교사가 창의적 진로개발의 활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창업 활동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Wi-Fi란 World Icon Find Idea의 약자로, 창업가 정신에 기초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질을

배움으로 자신의 내면, 혹은 우리 마을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Wi-Fi 창업체험 프로그램은 <표 III-20>과 같이 크게 8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내용은 창업 이해에서부터 실제 회사 설립, 조직 구성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모의 창업 활동을 통해 창업가 정신 함양과 더불어 실제 창업 관련 스킬 함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20 wi-fi 창업체험 프로그램 구성

모듈		내용 요소	
1	창업가정신	• 창업의 이해	• 창업가 정신
2	국가 구조	• 가상 국가 건국	• 모의시장
3	사업 아이템	•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강의	• 자신의 아이템 선정 활동
4	회사 설립	•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설립 절차	• 회사의 가치관 설립
5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발표	
6	조직 구성	• 기업의 조직도 강의	• 스카우트
7	마케팅	• 마케팅의 이해	• 마케팅 개발 및 발표
8	회사 소개	• 내가 꿈꾸는 회사 그리기 및 발표	

* 출처: 커리어넷. (2014.08.27).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Wi-Fi 창업과 진로

Retrieved from http://www.career.go.kr/cnet/front/web/courseEdugs/courseEdugs07_view13.do

2) 민간기관 및 단체의 기업가정신 교육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별로는 매일경제, 어린이경제신문 등의 신문 관련 업종 기관, NTFE-Korea, JA-Korea와 같이 해외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단체가 한국에서 비영리법인격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청소년금융교육협회 등의 경제 단체들이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동일하게 경제교육 중심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단체들은 경제교육과 함께 창업교육을 포괄하여 다루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모의투자 또는 게임, 창업준비 실무 등의 체험형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기 서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기준, 민간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은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표 Ⅲ-21 민간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주요 초점	주요 내용
1	매일경제	어린이 경제교실	초등학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과 생활경제의 이해 경제 기초개념 이해 용돈관리 방법 시장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체험을 통한 학습 주식 모의투자게임 기업의 이윤창출과정 학습
2	아이빛 연구소	경제금융교실	초/중/고교	경제·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관련 기본지식 습득 금융 관련 기본지식 습득
3	어린이경제신문	놀이경제프로그램	초/중/고교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경제, 시장, 기업에 대해 학습
4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교육	초/중/고/대	경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이론과 사례 학습 시장경제 기본교육 경제 주제 토론 기업가정신 관련 대기업 및 박물관, 체험관 방문
5	청소년금융교육협회	금융교실	초/중/고교	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금융생활과 투자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 화폐의 발달과정 및 용돈 활용방법
6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EF)	기업가정신교육	초/중/고/대	창의, 혁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혁신역량 기업가정신교육
7	D.camp	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초/중/고/대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데뷔무대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 창업계 파트너 네트워킹
8	NFTE-Korea	Dare to Dream	초/중/고교	경제·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경제 이해 진로 및 직업 찾기 기업가 정신 함양 실전 취업 준비 실전 온라인 창업 준비
9	JA-Korea	경제교육 프로그램	초/중/고/대	경제·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마을, 도시, 지역, 나라, 세계 속의 경제 교육 개인경제 경제윤리 창업 교육
10	Start up alliance	-	초/중/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미나/컨퍼런스 네트워킹 해외진출 지원

* 출처: 각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재구성(참고문헌 참고).

주: 가나다순

1) 매경 어린이 경제교실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매경 어린이 경제교실’은 2000년부터 150회 이상, 10,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게임과 영상,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소수 집중형 교육을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돈에 대한 모든 것과 생활경제와의 연관성 학습, 경제 기초 개념 이해, 효과적인 용돈관리 방법 학습, 시장에 대한 기초적 이해 및 체험을 통한 학습, 주식에 대한 이해와 모의투자게임을 통한 학습, 경제활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약 2회, 2시간 동안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이루어진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체 임직원, 교사, 군·경찰, 사법연수원생, 행정사무관, 언론인, 초중고생 및 대학생 등의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기업가정신 관련된 교육은 <표 III-22>와 같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원정대가 실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원정대는 기업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일깨우고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주요 테마별 대기업 및 박물관과 체험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중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및 기업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22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교육 현황

대상	교육명	교육시기
초중고생	영메신저 (대학생 강사 파견)	연 중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여름방학 중 (7월~8월)
	기업가정신원정대	상반기, 여름방학 중
교사	초중등교사 경제 아카데미	동계(1월)/하계(7월)방학 중, 3일, 15시간
	중등 사회경제과 교사 중국경제체험단	동계(1월)/하계(8월)방학 중 6박 7일
	초·중등 교감 시장경제교육	연 중
	교장 기업현장방문	하반기 (9월~10월)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경제교육. Retrieved from http://ecoedu.fki.or.kr/issue/m_ecoedu.aspx

3) 디캠프(D.CAMP)

디캠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으로 20개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금융기관이 손잡고 2012년 5월 출범했다. 투자,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 열기 확산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창업 생태계 허브 D.CAMP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 파트너 기관들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전문 운용사와 함께 하는 간접 투자, 초기기업 매칭 투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투자,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창업 생태계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려 한다.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업 생태계 허브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

4)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4대 사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교육사업은 창의, 혁신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재단이 기업가정신 확산의 거점기관으로서 YES 리더풀 확충 및 주관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특강을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초, 중, 고 및 대학교, 일반인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기업가정신 확산의 포탈 및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업가정신 모범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청년기업인의 사기제고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가정신 공모전, 2014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과 행사를 통해 기업가정신함양 및 청년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NFTE-Korea

NFTE는 미국 저소득층 및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영교육을 통해 청년실업가를 양성하고 시장경제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NFTE-Korea는 주로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적 가치관 형성과 자립 지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청년창업경영교육기관이다. NFTE-Korea의 주요사업은 Dare To Dream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단계별로 이수과정을 통해 소외 청소년 및 탈북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첫 단계(Step 1: 기초를 다지자!)에서는 IT 및 경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두 번째 단계(Step 2역량을 키우자!)에서는 커리어스쿨과 비즈니스 체험캠프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며, 마지막 단계(Step 3: 가치 있는 인재가 되자!)에서는 실천 창업 및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 중 실천 창업반에서는 온라인 창업교육과 IT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제로 온라인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6) JA-Korea

JA(Junior Achievement)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국제 NGO단체로, JA-Korea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장인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전반적으로 유아부터 대학교까지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경영, 기업가정신, 기업 윤리, 직업 및 진로교육 등을 포괄하여 경제·경영·직업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음의 <표 III-23>과 같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경제문해(Financial Literacy), 직업준비(WorReadiness) 등의 핵심개념을 도입하여 각 프로그램별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23 JA-Korea 기업가정신교육 현황

대상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수업시간	핵심개념*		
				①	②	③
초등 학생	우리 가족	직업의 종류, 우리 가족들의 직업,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상호의존의 개념 학습	5단원 (5차시)	○	●	●
	우리 마을	단위생산과 대량생산, 의사결정과정, 정부의 역할과 세금, 돈의 흐름 등을 학습	5단원 (5차시)	○	●	●
	우리 도시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설계사, 음식점 주인, 신문기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	5단원 (5차시)	●	●	●
	우리 지역	천연, 인적, 자본자원의 관계와 지역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	5단원 (5차시)	●	●	●

	우리 나라	기업의 형태, 직업 적성 찾기 및 면접, 생산 방식, 광고, 사업계획서 쓰기 등을 학습	5단원 (5차시)	●	○	●
	우리 세계	수출과 수입, 국제 무역, 환율, 국제 마케팅을 학습하여 세계경제 흐름을 이해	5단원 (5차시)	●	●	●
	어린이 금융박사	소비, 저축, 돈과 직업 가치 등을 학습(고학년용)	3단원 (3차시)	●	●	●
	어린이 희망가게	어린이들이 창업에 필요한 경제요소와 창업의 과정을 배운 뒤, 실제로 가게를 차리고 물건을 만들어 판매	7단원 (7차시)	●	○	●
	경제윤리로 앞서가기	개인 경제와 기업 활동에서 윤리적인 가치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경제윤리의 중요성 학습	9단원 (9차시)	●	●	●
중학생	개인경제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 탐색과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학습	8단원 (8차시)	○	●	●
	경제윤리로 앞서가기	여러 가지 경제 개념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윤리적 선택을 경험하며 학습	9단원 (9차시)	○	●	●
고등 학생	창업교육	기업 경영을 직접 해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을 함양	10단원 (20차시)	●	○	●
	경제 탐험	국제경제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경제 학습	6단원 (6차시)	●	●	●

* 출처: JA-Korea(2014), Retrieved from <http://www.jakorea.org/>

* 주: 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② 경제문해 (Financial Literacy) ③ 직업준비 (Work Readiness)
○: 낮음, ●: 보통, ●: 높음

7) Start up alliance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 SK플래닛 등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힘을 합쳐 만든 민관협력네트워크이다.

이 기관은 <표 III-24>와 같이 스타트업기업과 정부, 인터넷 선도기업, 국내외 투자자, 창업보육 기관, 해외 스타트업 커뮤니티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연결고리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24 Start up alliance의 역할

구분	내용
세미나/컨퍼런스	스타트업에 유용한 세미나/토론회/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다.
커뮤니티/네트워킹	서로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Space(엔스페이스)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모여서 세미나/컨퍼런스/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킹공간을 지원한다.

* 출처: Start up alliance(2014). Retrieved from <http://startupall.kr/> 재구성

제 IV 장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에 관한 국외사례

1.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실태
2.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정책
3.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
4. 독일과 핀란드의 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례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 IV 장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에 관한 국외사례

1.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실태⁵⁾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의 경기침체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확대에 의한 교류의 증가는 유럽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보았고, 이러한 도전 과제가 혁신적이고 잘 교육받은(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사람들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European Commission, 2012: 5). 그 결과 유럽연합은 20세기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일례로 학교의 공교육이 더 이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학교 밖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을 강화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류활동을 강조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로 인한 교류의 확산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정체성과 소속감의 혼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라는 이중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의 개입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경제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제3의길’ 같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민운동을 통한 정부와 시장의 기능

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둠.

회복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윤선구, 2003). 유럽연합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가정신을 통한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능력 개발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유럽연합적인 핵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연합이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과 주요 국가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연합이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병폐를 한국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는 갈수록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널리 소개하고 진흥시키기 위함에 있다. 오슬로 아젠다는 2006년 유럽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유럽의 기업가정신교육 ;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이라는 학술대회의 결과물이다. 이 학술대회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교사, 관련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리스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2006년도 유럽위원회가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이라는 논의의 후속작업으로 개최되었다. 논의의 목적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례와 경험을 교환하자는데 있었다. 그 결과 학술대회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 영역은 유럽연합수준, 회원국 수준, 교육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학교 수준, 중개사무소 수준, 기업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EC, 2006).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나 국가별 수준 등의 논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양한 영역별로 어떤 세부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의 영역과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⁶⁾**

영역	내 용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치적 지원 강조 : 리스본 조약의 실행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리스본 조약⁷⁾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에 포함 • 국가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및 실시 • 유럽연합 수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관할할 수 있는 기구 설치 •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볼로냐 프로세스⁸⁾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실시 • 유럽 펀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증대 •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평가제도 구축
교육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조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유럽위원회의 교육과정 개혁에의 지원(리스본조약의 고등교육 체제 통합과도 같은 맥락) • 실천, 실습 중심의 교육방법 개발 지원 • 민간 기금 활용과 시범 사업 실시 • 기업가교육 함양 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과 증대 • 대학에 관련 연구소 설립 지원 • 유럽연합 내의 회원국 간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통로 구축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지원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 부과 •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교사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교사들 간의 교류 지원 확대
학교에서의 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행동요소들을 포함한 활동(호기심, 창의 성, 자율성, 주도권, 연대의식) •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회 내 기업과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 개발 • 청소년과 청년의 성공 기업가 사례 소개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 • 기업활동 프로그램 평가로 기업가 역량 측정활동

6) European Commission(2006:86-92).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 중 실제 기업과 기업가와 만날 수 있는 활동 구성 • 기업활동 관련 동아리나 모임 지원 • 학교 졸업생이나 동문 중에 기업가를 찾아 연계 •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소외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나 집중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제공 • 고등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학위과정이나 교과목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필요 • 고등교육과정, 특히 대학에서는 실제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프로젝트 시도 • 대학생의 성공사례 소개 및 보급 •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학위프로그램 제공(석, 박사과정) •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활동 평가제도 도입
현장과의 연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지원 •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축 • 기존의 기업들의 학교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참여 및 모니터링 • 고용인들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과 참여지원 • 기업가들에게 교수법 개발 기회 제공 • 기업가정신이 특화된 특성화 학교, 대학 양성 •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지원 센터 설립
의사소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포상 • 국가별 혹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잘된 프로그램 포상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 후 지원

오늘로 아젠다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영역은 이후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필요한 창의성과 진취성, 리더십과 연대의식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EC, 2006). 물론 개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게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로 아젠다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순히

- 7)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위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도 유럽 전체 차원에서, 즉, 교육 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 8) 블로냐 프로세스는 블로냐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개혁안을 의미하며 블로냐 협약의 목표는 유럽 국가내의 학술교류 증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 등이 있다.

창업교육이나 안내와는 구별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슬로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의 개혁과 진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학간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학교교육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소개나 직업선택 방식에만 국한되던 기존의 진로지도교육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슬로 아젠다를 통해, 유럽연합은 청소년과 청년이 유럽의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직업역량과 기업가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이 개인의 활동무대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스본 조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관계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전체의 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와도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단순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만 소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유럽전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제 교육을 통한 기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다(EC, 2006). 그 결과 유럽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유럽경제가 요구하는 비슷한 수준과 역량을 갖춘 경제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의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지 경제논리를 넘어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결국 오슬로 아젠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이면에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유럽의 경제, 정치, 사회 통합적 맥락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노력의 결실인 측면도 있다.

2)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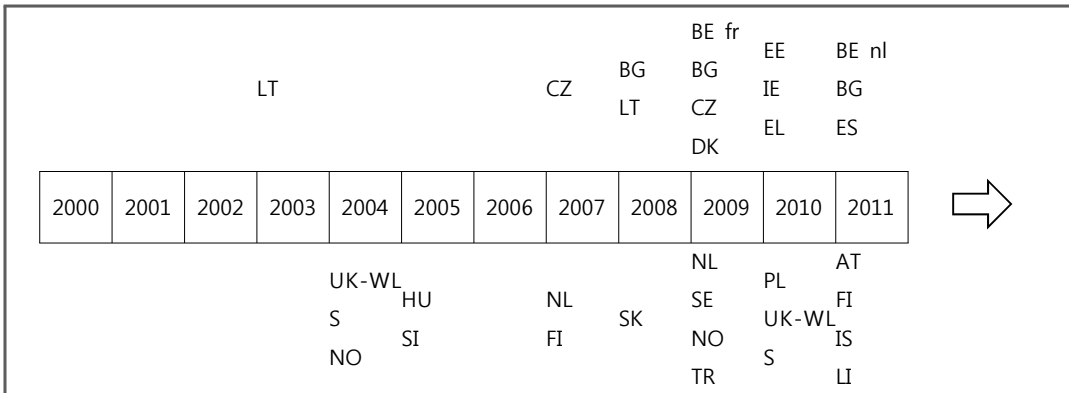
유럽연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핵심역량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EC, 2012).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다양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되,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위원회의 미래 전략중의 하나인 ‘2020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2020)’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켰다. ‘2020 교육과 훈련’ 정책의 3대 영역은 Youth on the Move,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Innovation Union인데, 이 모든 영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과 연계되도록 하였다(EC, 2012).

(1) 국가별 정책수립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① 유럽의 기업가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

아래의 그래프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책이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을 보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경제정책과도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⁹⁾

② 국가별 정책 유형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9) European Commission(2012: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경우와 국가정책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단독 교육 정책

첫째, 별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을 가진 국가는 모두 6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이며, 2개 국가는 일부 지역(벨기에의 플라망, 영국의 웨일즈)에서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EC, 2012).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정책 특징은 아래의 <표 IV-2>에 요약정리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학부와 교육부가 주관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가 협회 등과 연계를 맺고 있다. 교육 내용과 목적은 주로 관련법과 정책개발, 보고서 발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특징¹⁰⁾

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기타
덴마크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훈련 정책	2009	과학부, 기술혁신부, 문화부, 교육부, 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기관에의 투자 • 관련 법, 정책 개발 계획 • 예산 분배 계획 	
에스토니아	기업가정신함양 교육 촉진을 위한 상호협정	2007	교육연구부, 경제소통부, 상공회의소, 국가시험 및 자격증센터, 기업가협회	상호협정 체결 후 상공회의소와 기업교육위원회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문해와 기업가정신함양 교육 정책 • 2008-2012 국가 청소년 기업가정신함양 프로그램 	2004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2012 국가 교육정책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교육과 예산 지원 강화 	

10) European Commission(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기업 가정신 실행 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크 기업가 정책 	2007 2009	경제부, 교육부, 문화과학부, 농업부, 자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교육정책과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학교를 졸업한 이후 더 많은 청소년이 5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 	2000년대 이후 여러부처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정책을 제시해오고 있음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dget Bill 200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 내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e the Opportunities and Make them Work' • 기업가정신 교육과 훈련 - 의무교육에서 대학까지 	2004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교육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 • 모든 학교(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벨기에, 플라망	2011-2014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행 정책	2011	국무총리, 경제 농업부, 교육부, 고용부의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도록 지원 • 교사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통해 교사 지원 • 창업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벨기에의 2020 경제발전 계획의 일부에 해당됨
영국, 웨일즈	청소년기업가전략(YES: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y)	2004		웨일즈 지역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현재 2010-2015 실행계획으로 진행 중

나. 교육정책 하에서의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위의 <표 IV-2>에서 설명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독으로 마련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정책, 청소년정책 등에서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개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EC, 2012).

2006년 유럽의회는 평생학습을 위한 8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기업가정신이 7번째의 핵심역량이다. 이를 계승하여 국가의 평생학습정책의 목적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이다(EC, 2012). 아래의 표는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이 포함된 상위 정책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경제와 재정에 관한 문해능력, 기업가정신, 경제적 복지, 창의성, 학교와 현장 간의 협력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통합교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V-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¹¹⁾

국가명	상위정책명	내용
체코	평생교육정책(2007)	평생교육의 목적은 여러 문해능력의 개발과 재정적 문해능력(경제능력) 같은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
벨기에	Community Policy(2009-2014)	모든 학교는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함
불가리아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Youth Policy(2009-2013)	기업가정신은 통합교과목의 형태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National Programme for Youth (2011-2015)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과 경제적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업가 정신과 관련 기술 습득이라고 규정함
	National Lifelong Learning Strategy (2008-2013)	방과 후 활동과 학교 정규과정 모두를 통해 통합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

11) European Commission(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그리스	strategy for the New School (2010)	유럽연합의 공동의 교육정책의 목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혁신, 창조성,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고 있음
핀란드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and research(2011-2016)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세부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와 현장간의 협력을 강조함

다. 경제개발정책 하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경제개발이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등으로 정책명과 내용은 <표 IV-4>와 같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제개발 계획 및 발전 전략 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표 IV-4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¹²⁾

국가명	정책명	주요 내용
스페인	2011 Plan for Entrepreneurial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에너지관광부는 2011년 기업가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부는 학교교육, 방과후 교육, 청소년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그러나 이 교육의 목적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있음.
슬로베니아	Slovenia's Development Strategy(SDS),(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에 제시된 정책으로 2013년까지의 슬로베니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개발로 경제개발을 제시하였음. 양질의 직업과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이 포함됨
슬로바키아	National Reform Programme of the Slovak Republic 29950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로바키아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 기업가양성 교육과 기술 개발,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강화 포함.
아이슬랜드	Iceland 2020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경제발전의 도모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 교육이 제시됨.

12) European Commission(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2) 국가교육과정안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될 수 있다. 첫째, 독립교과목을 통한 교육방법이고, 둘째,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교과목 안에서 세부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학교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의 제공여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경우는 주로 필수교육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사회과 교과, 역사, 지리, 정치, 또는 시민교육과과 등을 통해 통합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과교과목의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EC, 2012).

국가별로 살펴보면, 불가리와 라비타의 경우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에 포함되기도 하고 체코는 윤리교과에, 리투아니아는 자연과학 교과목에, 폴란드는 사회과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통합교과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슬로바키아는 유일하게 독립교과목으로 정해놓았다. 핀란드도 최근 독립교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EC, 2012).

② 중등학교

중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서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 이 역시 주로 통합교육과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EC, 2012).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필수교육과정이며 독립교과의 형태이다. 불가리아는

과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며, 덴마크와 스페인은 일반 선택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구별되는 특징은 직업교육이나 경제교육교과랑 통합교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인 국가는 절반에 해당된다(EC, 2012).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과목에서 이루어진다. 라티비아와 스웨덴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일부가 예술과 음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 ICT시간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C, 2012).

③ 상급중등학교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상급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혹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대신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한 개의 국가도 빠짐없이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EC, 2012).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3분의 2에 해당), 특이한 것은 독일의 경우 상급중등학교에 올라오면 선택 교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3분의 2가량의 국가들은 선택과목으로 통합교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 스웨덴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경제과목에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다(EC, 2012).

주로 경제 및 직업교육과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어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단, 사회과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과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목이 된다. 일반 중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상급중등학교에서는 그다지 유사과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 ICT교과목과 통합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국가가 감소하였다(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러한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도 모교과목의 특성상 필수 교과목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불어교과 시간에, 라티비아는 윤리시간에 각각 선택과목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EC, 2012). 아래의 <표 IV-5>는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유형을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그리고 학교 급별로 필수 및 선택 여부를 제시한 내용이다.

표 IV-5 초중등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유형

구분	통합교과			독립교과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필수 교과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덴마크 라티비아 슬로바키아 영국(웨일즈, 북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웨덴
선택 교과		벨기에(fr)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몰타 영국(잉글랜 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라티비아 독일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노르웨이		벨기에(nl) 덴마크 스페인	

(3)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세부 목표

유럽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세부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교육목표는 2006년 Heinonen 과 Poikkijoki¹³⁾의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영역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나뉘 각각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EC, 2012). 먼저 태도는 자기인식 과 자신감, 주도권, 위기감수, 문제해결 능력에 필요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은 직업세계와

13) 이 모델은 유럽위원회가 아래의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임.

Heinonen & Poikkijoki(2006). An entrepreneurial-direct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5(1), European Commission(2007).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Commission, NESTA(2009).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직업 기회, 경제 및 재정문제 등이며, 기술은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팀워크, 기획 능력 등을 비롯하여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IV-6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세부 목표¹⁴⁾

영역	필요한 내용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인식과 자신감: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 자신의 능력을 찾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인식과 자신감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에 해당하기도 함. • 주도권, 위험 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기업가정신에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기업가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음.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기업가정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 지식에 해당함. 그러나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다양한 종류의 일과, 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런 지식을 가질 때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음. • 경제문제 & 재정문제: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 경제와 재정에 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기획, 팀: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 기술 •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함: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술

위의 <표 IV-6>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가별로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위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위의 요소들이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EC, 2012).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통합교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효과성 평가나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발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상의 가이드라인은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위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국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등학교는 지식과 태도, 기술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EC, 2012).

14) European Commission(2012: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 에라스무스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이하 에라스무스)’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EC, 2014). 이를 통해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서 이 프로젝트가 고안되었고,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법(Small Business Act)의 적용을 받는다(EC, 2014).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업과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의 일반적인 목적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EC, 2014).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n-the-job-training(OTJ), 즉, 현장실무교육의 활성화이다. 유럽회원 국가 중 어느 곳에서라도 중·소규모의 기업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운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EC, 2014).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사람들 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으로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물과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시장진입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에 두었다(EC,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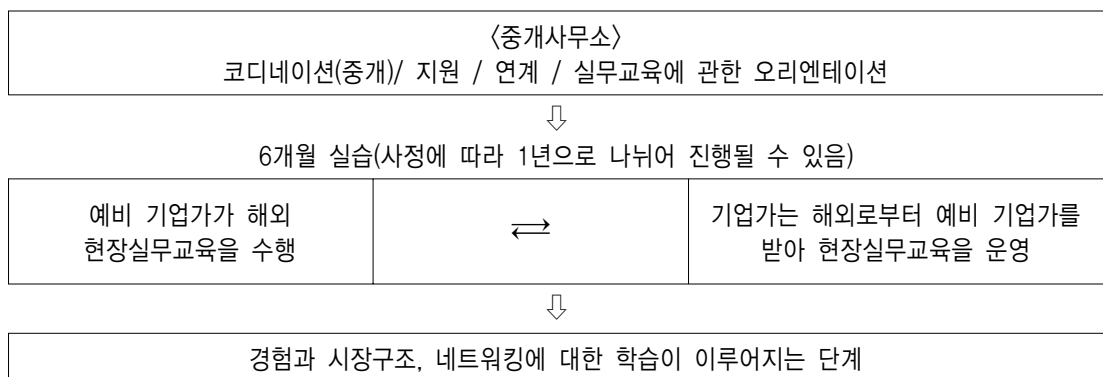
(2) 운영체계

① 기본 요소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현장실무경험의 형태로 고용하려는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하려는 사람(new entrepreneurs, 이하 NE) 과, 기존 기업가들(host entrepreneurs, 이하 HE)을 연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EC, 2014). 구체적으로는

- 자격을 갖춘 NE와 적절한 HE의 연계
- 개별 국가 안에 설치된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s, 이하 IOs)들을 통한 NE와 HE 간의 연락체계 구성
- 에라스무스 내 청년 기업가 지원 사무소에 의한 IOs 의 활동 코디네이션
- 해외 체류를 위한 조건들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 ; 신청한 NE와 선정된 HE, 그리고 중개사무소 간의 이해관계 정리(청년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현장실무교육 계획 및 업무, 책임분담, 재정상태, 법 적용 등에 관한 문제 등)
- 해외 체류기간에 관한 규정 ; 총 1개월에서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하고 최소 1주 단위로 구성되며, 12개월로 나누어 체류할 수 있음(최장 6개월만의 연속체류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속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서 체류할 수 있음)
- 중개사무소의 프로그램 평가와 유럽연합 사무국에 활동 보고 등이 있다(EC, 2014: 6).

아래의 **【그림 IV-2】** 는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과 운영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IV-2】 예비 창업가 현장실무교육 개요¹⁵⁾

15) European Commission(2014: 7).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② 프로그램 운영 단계

에라스무스 예비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EC, 2014).

표 IV-7 예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계¹⁶⁾

단계		내용
1 단계	지원 단계	- 온라인 등록을 통해 NE와 HE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계로 중개사무소가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통보하는 단계임.
2 단계	연계 단계	- 서류심사에 통과한 NE와 HE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함. 이때 NE 나 HE는 중개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각각 서로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
3 단계	계약 체결과 준비단계	- 중개사무소, NE, HE 모두가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 실습 계획과 과제, 책임, 재정 상황, 법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동의서 및 계획서 작성 단계임. - 유럽연합 사무국은 연계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는 단계임. - NE 와 HE는 중개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에 참가함.
4 단계	실행 단계	- NE와 HE가 현장실무교육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기간별로 활동을 보고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중개사무소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책임이 있음.

(3) 프로그램의 실행

① 참가자 지원

예비 기업가에게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하는 HE에게는 중개사무소가 NE와 HE 상호간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 기업가인 HE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참가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규모에 관한 안내는 에라스무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규모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EC, 2014).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16) European Commission(2014: 7).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같다.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me_definition/index_en.htm

현장실습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선임 HE 보좌
- 시장조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 프로젝트 개발 및 R & D
-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연구
- SME 재정에 대한 이해
- HE의 마케팅, 세일즈 등에 대한 이해
- 위에서 언급된 영역 중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집중(EC, 2014: 9)

② 참가대상

가. 예비 기업가(NE)

예비 기업가란 기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시작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업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장실무교육을 받게 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기여할 자세를 지녀야 한다(EC, 2014).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자신이 향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개방성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이 참가자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가는 관련 직업분야에서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졸업장, 자격증, 학위 등)되어야 한다(EC, 2014). 더불어 지원 단계에서 예비 기업가는 자신이 운영하게 될 기업에 대한 중장기 미래발전계획, 열정, 창의성과 도전정신 같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 소요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EC, 2014).

나. 기존 기업가(HE)

예비 기업가에게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기업가의 경우, 에라스무스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예비 기업가를 고용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오게 될 예비 기업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 노하우와 기술, 지식 등을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추후에 귀국하여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EC, 2014). 또한 예비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 습득이나 기술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보다 많은 기업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기업가들에게는 다른 국가의 젊은 인재를 일정기간 고용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사업확장, 인적네트워크 등을 구축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③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가.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 ; IOs)

중개사무소는 공식적으로 NE와 HE를 연계하기 위해 지정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 사무소는 자국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 내 여러 조직은 물론 회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현장실무교육의 참가자 접수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NE와 HE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국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개사무소가 지정되어 있다(EC, 2014).

나. 에라스무스의 청년기업가 지원사무소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SO)

유럽연합 차원에서 창업가를 위한 현장실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개별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라면, 이 사무소는 모든 국가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EC, 2014).

④ 지원

예비 창업가과 기존 기업가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며 자국이나, 혹시 자국에 중개사무소가 없는 경우, 지역별로 할당된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개사무소와 연락하며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는 www.erasmus-entrepreneurs.eu 이고, 신청서는 각각의 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EC, 2014).

⑤ 필요한 정보와 선발절차

중개사무소가 엄정한 절차를 거쳐 NE와 HE를 선발하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NE와 HE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발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원하는 NE와 HE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EC, 2014).

⑥ 참가자의 의무와 책임

가. 예비 기업가(NE)

현장실무교육에 참가하는 예비교육가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EC, 2014).

- 미래에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 창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와 NE, HE, 중개사무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함
- 서로 협의된 시간 내에 중개사무소가 지시하는 업무, 책임, 재정 조건, 법률 문제와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할 것
- 새로운 기업가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에라스무스의 대사(Ambassador)로의 역할을 수행함(EC, 2014: 12)

이외에도 NE는 해외에서 현장실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중개사무소가 요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NE의 계획서 수행정도와 성과물 정도에 따라 지원되며 중개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NE는 중개사무소는 물론 HE와의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수립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EC, 2014).

나. 기존 기업가(HE)

HE는 NE와 중개사무소와 함께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수립하여야 하며 NE가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추후에도 에라스무스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 NE와 HE는 어떤 식으로든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류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EC, 2014).

다.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s; IOs)

중개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HE와 NE를 연계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현장실무교육의 질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평가하는 것까지 모두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 HE와 NE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각각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EC, 2014).

- NE에 관한 역할과 책임
 - 관심있는 지원자에게 정보제공과 안내
 - 자격증(졸업장), 기업에 대한 열정과 사업계획, 언어구사능력에 따라 지원자 선발
 - 개별 NE를 위한 현장실습지역 발굴
 - 해외의 현장으로 출발 전 실무 오리엔테이션 제공
 - 현장실무교육 중 NE에게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 자국으로 들어오는 NE에게는 지역 연락 사무소의 역할을 하며 체류기간동안 보건, 보험, 주택, 교통, 자국의 법규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함
 - 현장실무교육이 끝난 후 보고서를 수합
 - 현장실무교육에 참가중인 NE가 실습기간 중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EC, 2014:12)

- HE에 관한 역할과 책임
 - HE, 즉 NE의 현장실습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HE에게 정보제공과 안내를 해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조직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함
 - HE를 연계함
 - 이런 현장실무교육에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NE 발굴
 - 현장실무교육이 종료된 이후 보고서 수합

- NE를 받아줄 수 있는 검증된 HE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EC, 2014: 12)

라. 에라스무스의 청년기업가 프로그램 지원사무소

전술한 중개사무소(IO)는 에라스무스 지원사무소와 현장실무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하게 된다. 에라스무스 사무소는 청년실무교육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며, 중개사무소가 에라스무스의 청년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프로그램 질 관리, 중개사무소들간의 네트워킹 구축과 이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EC, 2014).

마.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 NE와 HE의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해주는 일, 평가와 이미 유럽위원회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하는 것,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EC, 2014).

⑦ 필요한 동의절차

NE와 HE, 그리고 중개사무소 사이에서 계약적 관계가 지속되기 위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에라스무의 청년기업가 프로그램은 4개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C, 2014). 즉, 예비 기업가 또는 신진 기업가(NE), 기존의 기업가로서 예비 기업가를 교육시키는 HE,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양쪽의 중개사무소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이 파트너십에 의해 원칙과 목표, 책임이 정해지게 된다. 두 번째의 조건은 NE와 중개사무소간의 계약관계인데 중개사무소는 NE가 속한 국가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때 중개사무소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프로그램 일정, 사업계획, 관련한 학습지원, 활동, 프로그램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EC, 2014). 이러한 계약관계에 대해 NE가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자국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NE와 타국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해 자국으로 입국하는 NE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으며, 출국하는 NE를 위탁하는 HE, 또한, 자국내 HE와의 관계에 있어도 모두 관여하는 주체가 된다(EC, 2014).

⑧ 행정지원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중개사무소는 국가나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으며, NE와 HE 양쪽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여 최대한 서로의 필요가 맞는 상대방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국의 NE가 자국에 입국할 경우 숙소와 교통수단, 보험 등에 관한 지원도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EC, 2014). 에라스무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NE, HE로부터 질문을 수집하여 공통의 질의응답의 경우는 출판하여 배포하기도 하며, 웹사이트에서 문제점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있다(EC, 2014).

⑨ 재정지원

NE에 대한 재정지원은 처음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개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여행경비와 체류기간동안 숙소를 포함한 주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지원금은 NE와 중개사무소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국가별로 최대 지원금의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물가와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책정되는데 알바니아의 경우 최소 액수로 매월 530유로(한화 약 73만 5천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EC, 2014). 가장 지원금의 액수가 높은 곳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1100유로가 지급되며, 이어 영국과 아일랜드는 1000유로, 구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560에서 700유로 정도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정해져있다. 중개사무소의 책임 하에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E는 나중에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EC, 2014). 현장의 사정에 따라 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으며, 만약 초과했을 때는 중개사무소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EC, 2014).

⑩ 결과보고서 제출내용

중개사무소는 NE와 HE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선 중개사무소는 NE에게 최종보고서에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NE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 활동 내용, 향후 사업에 활용할 내용들은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HE가 NE를 통해 얻은 성과물을 보고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EC, 2014).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수합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긴 하지만, 사생활보호와 기업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보고서의 공유로 인해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와 HE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중개사무소도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문제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EC, 2014).

⑪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과 참가자, 중개사무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EC, 2014). 이러한 평가를 통해 좋은 사례가 소개됨으로써, 처음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의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과 개발에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 5) 민간차원의 기업가정신함양교육 사례 YES :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를 중심으로

(1) YES: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 청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소개

2010년부터 유럽연합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8개의 기관이 YES(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 청년 기업가정신함양 전략)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제도 안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에 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설문지 조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중이고, 참가한 국가들 간에 공동 연구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문제점, 장점 등을 분석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YES, 2014). 아래의 표는 청년 기업가정신함양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국가)별로 SWOT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IV-8 기업가정신 교육 국가별 SWOT분석¹⁷⁾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에스토니아	교육과정, 오랜 전통,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교육 부족, 재정 부족, 사회적 인식의 부족	충분한 연구 지원, EU 재정 활용, 기업 지원 확보	유럽의 위기상황,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핀란드	전략, 동기부여	실행 미흡, 교사 교육 부족	적당한 방법 구축, 네트워킹	재정
아일랜드	관련 사업, 지원	국가 정책 부족, 교사 교육 부족	교육 주기 변화, 연대	조정이 어려운 국가교육과정, 재정
폴란드	노동 전통, 근검정신	대중매체와 오피니언리더들에 의한 기업가정신 홍보	좋은 사례 공유 및 전달	기업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
슬로바키아	다양한 종류의 학교, 평생학습, 대체 방법	노동시장과의 연계 부족, 교육과정 부족	EU SF, 정보공유시스템, 고용주와의 협력 구축	교육제도의 고립, 재정 부족, 관심 부족
스페인	국가 정책 수립, 지역적 협동체제 구축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가치 절하, 교사교육과 교육자료 부족, 사회적 관심 부족	경제적 상황, 예산, 인식	동기 부여된 국면, 참여
스웨덴	정책, 태도, 기업방문, 학생들의 참여도,	안내 부족, 팔로우업 부족, 전문가 부족, 시스템 부족,	팔로우업 개선,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기존 포럼	교사교육, 기업가정신에 대한 축소된

17) <http://www.young-entrepreneurs.eu/swot.php>에서 제시된 표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인용함.

	외부환경	인센티브 부족	개발, 학생의 관심사 반영, 역량 개발	정의, 진로지도와 시간의 부족
--	------	---------	-----------------------------	------------------------

YES 프로젝트의 목적은 차세대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교육제도 안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업가로서의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YES, 2014). 그 결과 YES 프로젝트는 크고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과 성장, 혁신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개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ES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정보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한 정책과 자료, 방법을 전파하여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하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 첫째, 지역의 개발정책과 교육제도 안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방법을 개발하고, 둘째, 지역 간 자료공유와 분석을 통해 비슷한 점, 다른 점, 강점과 약점들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다(YES, 2014).

YES 프로젝트는 총 6개의 국가에 8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국립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기관, 관련 파트너십 협회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서로 공유되며 교육제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YES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YES, 2014: 6).

“기존의 교육제도 안에서 청소년이 개인의 역량, 즉, 창의성, 책임감, 위기관리 능력, 문제 해결능력, 팀으로 일하는 능력 같은 것을 개발하여 개인 사업(self-employment)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에스토니아 사례

① 현황

에스토니아에서 기업가정신함양 교육은 이미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공공연하게 기업가정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경제교육 안에서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바뀌어서 교육통신부(Ministry of Economic and Communication)와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Junior Achievement Young Enterprise Estonia¹⁸⁾(이하 JA Estonia)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다(YES, 2014: 9).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긴 하나 여전히 필수 의무 교육과정은 아니고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러 교과목(역사, 수학, 생물 등)을 통해 통합교육의 형태로 가르쳐지고 있다(YES, 2014: 9-10). 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며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보다는 기업가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의지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별수업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해오고 있는 JA Estonia라는 기업의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도 병행되고 있어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효과가 다르다(YES, 2014: 9).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4년부터 모든 일반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즉, 학생이 기업가정신함양 교육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학교는 이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YES,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수교육과목은 아니어서 여전히 실습이나 참여 없이 지식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교사 양성의 문제이다.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 교육이 소개 된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겸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은 JA Estonia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 자료를 제공받기도 한다. 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YES, 2014: 10).

②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 위한 실행전략

18)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가정신함양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로 2011년 기준으로 37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기업과 각 급 학교, 연구소, 재정지원 가능 단체를 연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가. 정부차원

정부는 첫째,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모든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그 결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 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이 실제 학교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상이 정부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이다(YES, 2014: 18).

나. 지역차원(유럽지역별 차원)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은 첫째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교가 지역 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청소년이 유럽 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YES, 2014: 18).

다. 지방자치단체 차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장과 운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가와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략은 학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자체가 교사양성을 위한 책임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 전략으로는 에스토니아와 해외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YES, 2014: 19).

라.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을 하는 기관 차원

JA Estonia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실행전략은 첫째, 에스토니아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중요성을 전하고, 두 번째,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교류를 공고히 하며, 세 번째로 에스토니아어와 러시아어로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실행전략은 직업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직접 창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담당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다음은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일곱 번째 실행 전략에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해당되고, 여덟 번째로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는 YES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의 다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관이나 센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실행전략이 된다(YES, 2014: 19).

한편, 교사와 경제협회에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실행전략이 있다. 첫 번째로는 에스토니아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JA Estonia의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YES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고 네 번째는 모든 학교의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 실행전략은 에스토니아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필요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실행전략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YES, 2014: 19).

마. 기업차원

기업들 역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 중요한 실행전략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에스토니아와 해외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청소년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기회 마련과 그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자회사로의 청소년방문 허용 및 지원, 학교 교사의 수업지원 등의 실행전략을 가지고 있다(YES, 2014).

바. 학교차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학교이다. 학교의 실행전략은 다음과 같다(YES, 2014: 19).

-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Junior Achievement(JA) 프로그램의 실제 창업 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담당할 교사 지원
- 모든 수업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습방법 채택
-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수업을 위한 전문 기업가 컨설턴트 자문
- 교육과정 중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 다양한 교과목 교사들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
- 해외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

(3) 스페인 사례

① 현황

스페인인 2006년부터 공공교육부(Ministry of Public Education)에 의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교육 제도 안에 기본 목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하여 기업가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YES, 2014: 99). 그러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시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가정신자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덕목과 가치를 가르치고 소개하는데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에서 배운 기업가정신이 체득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기업가정신 함양 개발의 주요한 요소인 창의성 함양이 종종 무시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 독려되기보다, 기존의 사고와 형식이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사들의 자신감 부족, 마지막으로 유럽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스페인 자국 프로그램과 통합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 유럽연합 혹은 유럽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YES, 2014: 100).

②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우선 분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서의 몇 가지 우선 분야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YES, 2014: 105-107).

가. 기업문화 조성

청소년에게 기업가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하다. 게다가 스페인 사회에서는 기업운영과 관련된 가능성과 유익이 무시되는 경양도 짙다. 특히, 기업운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기업이미지와 기업운영의 실제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올바른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가치에 대한 캠페인과 다양한 교육제공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나. 교사와 학생의 참여 활성화

교사와 학생, 부모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 기회가 부족한데 이는 사회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관심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 부모대상의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청소년이 가능한 어려서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기관 간 참여와 연대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기관들의 연수와 교육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겹치기도 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기관이나 학교의 수준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별 수준과 역량에 맞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든 관련기관이 모여 향후 교육내용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

라. 가이드라인과 자료제공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중복되는 교재나 자료개발을 줄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나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재정적, 교육 자료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③ 실행전략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2가지 실행전략과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YES, 2014: 108-109).

가. 교사와 학생을 위한 특별 연수와 활동프로그램 고안, 교육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 부모, 교사, 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기술 개발 워크숍 운영,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학교 내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
- 사업 아이디어 콘테스트 및 수상대회 개최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창의성과 혁신, 도전적인 개발
-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 현장 견학을 통한 기업현장 이해
- 비즈니스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팀워크, 의사소통기술, 사고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 워크숍과 인식제고
- 교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
- 교육과정 내 교육과목으로 소개
- 기업가정신 워크숍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나. 산학관계 개선과 증진

- 학교와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학교에서 기업운영과 창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실질적인 관계증진과 후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 수립과 연대
-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창업을 확산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 지원과 확산
- 현장견학 확산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심층 이해

다. 효과적인 교육자료 개발

-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행동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기자재 개발
-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관련 학회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 시에 관련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

라.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도모

- 청년층의 창업 지원

- 적극적인 실천
- 사회와 가정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홍보
- 관련 학계, 산업현장,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조장
- 교사와 학부모협회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필요성 확산

마. 우수 사례 발굴 및 소개

- 다양한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 우수한 성공사례에 대한 공적 보상 및 인정
- 교사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
- 부모와 학생에게 우수 기업가들과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교육기관 소개

6) 결 론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관한 정책과 교육내용,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YES 프로그램 사례들을 고찰하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더 넓게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국가경제개발정책의 주요 하위요소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논의는 단지 개인의 진로와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확대하여, 국가정책적인 논의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일국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기업가가 원하면, 전 유럽 어디에서라도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인턴쉽으로 활용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기업가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활용하여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실습생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습생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중개사무소) 배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상과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국가 간 교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럽 어느 지역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할 때는 기업방문이나 현장실습의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그 무대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구축과 전담사무국이나 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유럽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본인의 창의성, 진취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등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고, 이러한 핵심역량이 사회진출의 성공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면, 더 이상 지나친 입시와 학벌위주의 가치관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의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집중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 여러 지역과 연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기업가정신함양에 관한 교육정책,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의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YES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럽 내서 뜻을 같이하는 6개의 국가들의 민간단체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뿐만 아니라 연관 있는 여러 국가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이나 정책은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한국도 기업가정신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물론, 민간

기업이나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동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민간 영역은 한국에도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과 홍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정책은 민과 관의 주도와 협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2.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정책¹⁹⁾

1) 기업가 및 창업교육의 등장배경

코모토(小本)(2006:1-4)는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일본 청소년들의 창업의욕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수입 저하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의 장기화와 같은 노동환경요인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영업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진로선택에 있어 창업이 장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姜(2011:26-2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희망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7%만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의 5.8%, 중국의 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사키 등(佐々木ほか)(2007: 66)은 일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起業家)교육은 2000년 교육개혁국민회의(教育改革國民會議)가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起業)지원을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재생·창업촉진형인재의 중점 육성,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엔젤세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에 의한 주식양도 등에 관한 과세를 우대하는 특별제도)의 개정에 따른 동(同)제도의 홍보, 청년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업촉진을 위한 제도의 기초를 정비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사사키 등(佐々木ほか)(2007: 66)은 기업가교육이 1998년부터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직업관, 근로관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된 인턴십의 보완적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1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의 연구팀 중 강영배 교수(대구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카다(岡田)(2013: 48-49)는 2012년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실시한 「국가경쟁력조사」의 ‘기업가 정신’ 항목에서 일본이 조사대상국 59개국 가운데 54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기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중학교에서의 실시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兒美川, 2005: 3). 또한, 국민공고(國民公庫)(2008)의 『신규개업백서(新規開業白書)』에 따르면, 기업(창업) 평균연령은 41세로, 29세 이하의 기업(창업)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기업(창업)은 실천이 아닌 교육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한편, 코미카와(兒美川)(2005: 3)는 일본에서의 기업가교육은 진로교육정책과 개별 학교의 진로지도 그리고 청소년 고용문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기업가교육(창업 포함)의 정책기조

코모토(小本)(2006)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청소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준의 완화 등 청소년 창업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창업지원관련법들이 제정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IV-9>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표 IV-9 1980년대 이후 창업 및 기업가교육지원 관련 법령

년도	법률명	내 용
1989	특정신규사업실시원활화임시조치법 (신규사업법)	신상품의 생산,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생산 등의 ‘특정 신규사업’에 대하여 채무보증, 출자, 경영지도 실시
1995	중소기업의 창조적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창조법)	개발, 그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인정을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999	신사업창출촉진법	각 중앙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심사에 합격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1999	중소기업법 개정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신산업의 창출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이동
2005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 중소기업창업법, 신사업창업촉진법을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

* 출처: 와타나베 등(渡辺他)(2001),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자금지원의 측면에서는 2005년부터 국민생활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중소기업금융공고(中小企業金融公庫)가 기존의 융자대상인 여성과 노인에 더불어 30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융자제도를 설립하였다. 이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여성, 청소년, 노인 기업가 융자제도(신기업육성대부)」 등 융자를 통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업 개시 후 약 7년 이내의 여성,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N-10 청소년 기업가지원 자금제도²⁰⁾

이용대상	여성 또는 30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의 자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자 또는 사업개시 후 7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자금사용방법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개시후 필요한 자금	
융자한도액	7,200만 엔(이 가운데 운전자금 4,800만 엔)	
연이율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토지취득자금 제외)(특별이자 A)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 등에 기초한 사업의 설비자금(토지취득자금 제외)(특별이자 C) 토지취득자금 (기본이율)	
변제기간	설비자금	15년 이내(특히 필요한 경우 20년 이내)(이 가운데 거치기간 2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특히,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이 가운데 거치기간 1년 이내)
담보 및 보증인	협의를 통해 결정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정책 및 사례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

오사카대학기업교육연구회(大阪大學起業教育研究會)(2005)는 기업가교육을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인생관 및 가치관의 재고(再考)로 보며,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자립심, 도전정신,

20) http://www.jfc.go.jp/n/finance/search/02_zyoseikigyouka_m.html (검색일: 2014년 5월 9일)

창조성, 적극성, 탐구정신 창조성, 적극성, 탐구심을 들고 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으로는 자기책임하에 결단하는 능력,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과 이에 기초한 문제해결능력, 행동능력을 들고 있다.

한편, 진로교육과 기업가교육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문부과학성에서는 진로교육의 기본 지침을 「직업관·근로관 육성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의 틀(職業觀・勤勞觀を育む學習プログラムの枠組み(例))」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적 발달과 관련된 역량(이하, 진로역량)을 4영역 8능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위의 8가지 진로역량을 기업가교육을 통해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의사결정능력'은 기업가교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육성 가능성이 높은 역량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 활동에 있어 다양한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업가교육이 사회 현장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사하는, 견학하는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성향이 강한 학습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IV-11 기업가교육과 진로역량과의 관계

영역	영역설명	능력설명	기업가교육 노력
인간 관계 형성 능력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	【자타이해능력】 자기이해를 심화, 타인의 다양한 개성을 이해하며, 상호 인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는 능력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을 생각. 기업에서의 '인사'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개성의 표현방식에 대해 학습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집단, 조직에서 의사소통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능력	집단활동을 통해 '기업'의 특성에 대해 토론하며, 목적수행의 어려움과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다양한 의사소통기술의 유용함에 대해 인식
정보 활용 능력	학습, 일의 의미 또는 역할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폭넓게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인생관을 선택할 수 있다.	【정보수집 및 탐색능력】 진로, 직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탐색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와 생활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변의 산업과 직업에 대해 조사, 정리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계획 및 성과에 대해 발표
		【직업이해능력】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학습과 사회, 직업생활과의 관련성, 지금 해야 할	사전준비를 위한 '강연회', '인터뷰', 기타 활동전반을 통하여 '기업인' 이외에도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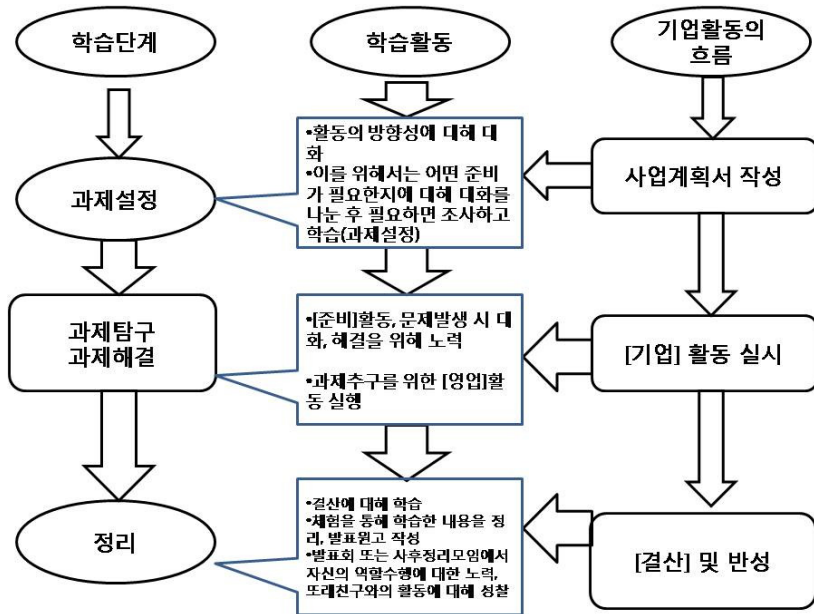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	직업인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기업활동을 통하여 직업과, 근로관 배양
미래 설계 능력	꿈,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생활태도와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역할파악, 인식능력】 생활, 직업상에서 다양할 역할 또는 의의 및 그 관련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나가는 능력	역할분담 또는 그를 위한 계획의 결정, 현장에서 활동중인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업인’, ‘사장’ 이라고 하는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학교,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의 존재에 대해 인식
		【계획실행능력】 목표로 삼아야 할 미래의 생활방식-진로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해나가는 능력	사업의 전체계획, 판매계획의 책정 등 기업활동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계획’ 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 ‘계획’ 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
의사 결정 능력	본인의 의지와 책임 하에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 또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선택능력】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비교검토하거나 갈등을 극복하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판매, 선전방법의 결정, 판매가격, 수량의 결정 등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상황을 경험, 주체적으로 선택, 결정
		【과제해결능력】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고 선택결과에 순응함과 동시에 희망하는 진로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에 나가는 능력	활동중의 가격 변경, 재고상품의 처리문제에 대한 결정 등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를 수용, 반성하며, 새로운 과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노력

* 출처: 国立教育政策研究所(2004) 「職業観・勤労観を育む学習プログラムの枠組み(例)」

(2) 학교급별 기업가교육모형²¹⁾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업가교육을 「사업계획서 작성」, 「기업활동의 실시 및 결산」의 두 가지 요소로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활동과정을 편성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대화’에 초점을 두며, ‘기업’활동에서는 ‘집단활동’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활동의 마무리는 결산과 평가로 하며, 이 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발표회, 반성모임 등을 통하여 모두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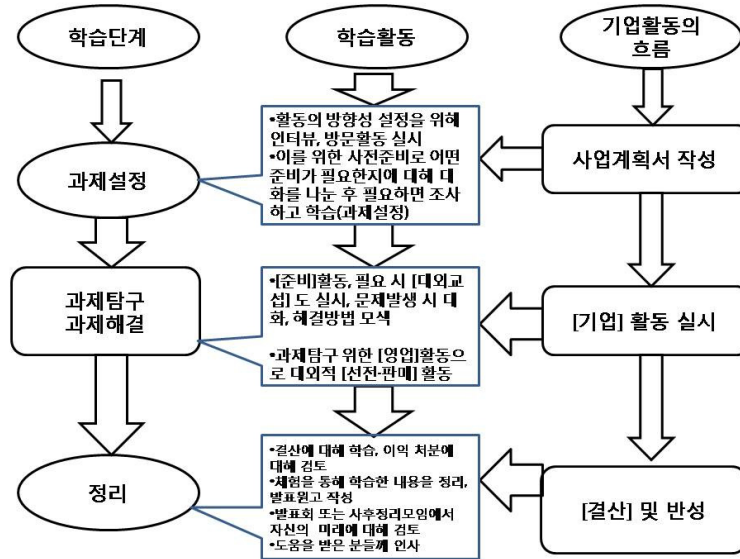
21) 미야기현교육위원회 자료(http://www.edu-c.pref.miyagi.jp/longres/H16_A/shinro/handbook/)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그림 N-3】 초등학교 기업가교육모형²²⁾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계통적 발전성’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 체험한 내용에 덧붙여 ‘사회와 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미래’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각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단계와는 달리, ‘기업인 인터뷰’, ‘기업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활동에서는 판매전 준비단계에서의 대외교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홍보 그리고 판매활동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단계에서는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며, 자신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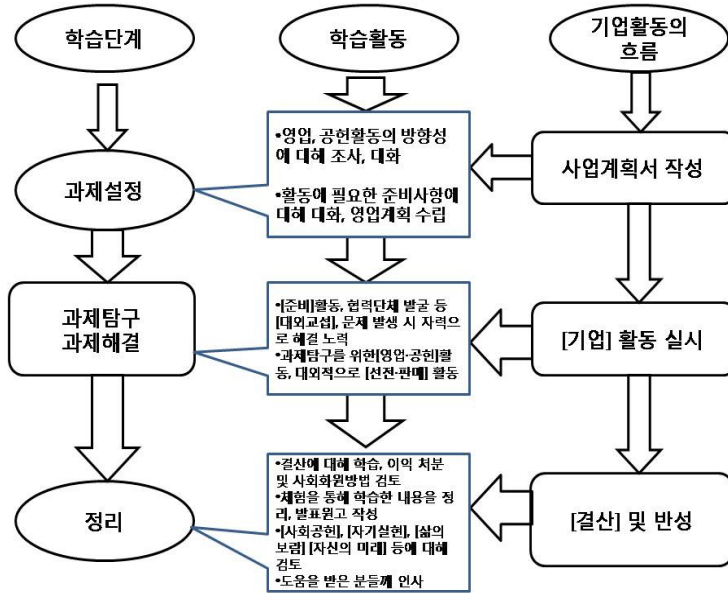
22) 미야기현교육위원회 자료(http://www.edu-c.pref.miyagi.jp/longres/H16_A/shinro/handbook/)



【그림 IV-4】 중학교 기업가교육모형²³⁾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단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각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중학교 단계와 마찬가지로 ‘기업인 인터뷰’, ‘기업방문’을 실시하지만, 이 때 단순히 기업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또는 공헌하고 있는 기업인, 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한편, ‘기업’활동에서는 대외교섭, 홍보 및 판매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협력해 줄 사람들을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결산과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금전적 요소 이외에 얻을 수 있는 것’, ‘사회공헌’과 ‘자아실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23) 미야기현교육위원회 자료(http://www.edu-c.pref.miyagi.jp/longres/H16_A/shinro/handbook/)



【그림 IV-5】 고등학교 기업가교육모형²⁴⁾

다음으로는 위의 학교급별 기업가교육모형에 따라 세부단계별(과제설정단계, 과제추구단계, 과제해결단계) 구체적 준비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과제설정단계

먼저, 과제설정단계에서는 크게 회사의 구조에 대한 구상, 취급상품에 대한 결정, 시제품 제작 등과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내용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사회의 구조에 대한 구상의 영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단계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이 고려해야 할 점, 회사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회사 유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 회사설립 및 유지에 있어 느끼는 보람 등은 기업가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학습은 기본적으로 ‘사회과’ 수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외부강사로 기업인을 초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청각 자료, 문헌자료 또는 창업과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업 안내자료 또는 홈페이지 등을

24) 미야기현교육위원회 자료(http://www.edu-c.pref.miyagi.jp/longres/H16_A/shinro/handbook/)

통해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업종 또는 각 기업의 사업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급할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초등학교단계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구체적인 상품을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바람직하며, 이 작업과정에서는 상품 샘플의 준비, 상품의 특징, 제조과정, 유통과정에 관한 전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학교단계에서는 관련제품을 실제로 제작,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팀별로 관련제품을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상품의 판매전략,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검토와 같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세 번째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보게 되는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화'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단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의 문제, 디자인, 상품의 포장 등 자신들이 제작한 물건이 '상품으로서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 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하여 제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기획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② 과제추구단계

과제추구단계에서는 크게 구체적인 활동계획안을 수립하거나 사전준비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실제로 이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과 함께 판매장소, 기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는 '가격', '광고 및 선전', '서비스 및 고객응대', '진열'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준비하여, 작성해보도록 한다. 이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가능하면 위의 가격결정, 광고 및 선전, 서비스 및 고객응대, 진열 등과 같은 과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음으로, 사전준비활동에서는 실제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품의 준비, 점포의 준비, 당일 역할분담 등이 얼마나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때, 저학년의 경우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전원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다.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는 보호자, 기업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당일 스케줄의 확인과 준비물품의 임대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③ 과제해결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영업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청소년들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며,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인사예절 등 손님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현금의 관리, 상품의 판매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청소 및 정리 등과 같은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일 도움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야 하며, 특히 행사 종료 후 즉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임대한 물품의 반납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사 종료 후 자신들이 참여한 행사 전반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차후 행사시에 반영할 부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결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흑자의 경우 이익을 어떻게 처리,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이익분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각 단계별 목표의 도달 유무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는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 중학교 기업가교육 사례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北海道)는 2006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업가교육실천연구사업(起業家教育實踐研究事業)을 실시

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현재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14개소 그리고 고등학교 14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진로인식 발달단계에 맞춰 청소년들이 다양한 산업 및 직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며, 장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립심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성신 등 기업가정신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 훗카이도는 효과적인 기업가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능력 및 태도의 도달목표를 명확히 하며, 각 교육기관별 연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학급단계별 함양능력과 학습프로그램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V-12 각 학급단계별 배양 능력 및 학습프로그램 예시²⁵⁾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양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선생님, 지역주민 등 주변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 · 주변 환경에 흥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업, 직업에 대한 흥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흥미가 있는 일에 도전하는 능력 · 자신의 장래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의지와 책임하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 · 조사하거나 체험한 것들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 꿈,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창의성을 살려 조사,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 · 지역사회에서 배양한 개성을 살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난에 직면하는 능력
학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탐험 · 가게 놀이 · 지역지도만들기 · 직업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체험 · 어시장견학 · 김양식체험 · 풍력발전소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체험 · 요리 기획 · 지역발전 제안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가공품 등 판매실습 · 지역연구 · 인턴십

앞에서 언급한 총 52개 학교 가운데 훗카이도교육위원회가 선정한 우수사례학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에니와시(惠庭市)에 위치한 에기타(惠北)중학교는 2006년부터 도전정신, 창의성, 탐구심의 배양과 강한 자립심을 가진 인재의 양성이란 교육 목표아래 기업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업가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① 자신의 생활, 학습을 돌이켜볼 수 있으며,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능력, ② 자신이 조사, 체험한 내용을 통해 자신만의 사고를 이끌어 낼

25) 훗카이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ukou.hokkaido-c.ed.jp/entrepreneur/n10.pdf>)

수 있는 능력, ③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의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 ④ 자신의 개성과 의지에 따라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3 기업가교육 프로그램²⁶⁾

지도항목	과목명	시간수	학습활동	교사 역할
직장방문 종합	총합적 학습 시간	6	직장방문활동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정리법에 대한 지도
오리엔테이션		1	'직업'의 이미지를 정리 희망직종조사	방문기업처 연락
사전학습		7	방문기업의 업무내용을 조사, 목표 설정	목표설정해 대해 조언
직장체험		6	방문기업에서 업무 체험	체험활동 관찰
정리		10	체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준비, 감사편지 작성	정리법, 감사편지 작성법 지도
그룹교류회		2	3-4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 발표내용에 대해 상호 평가하고 대표그룹 결정	발표방법, 평가에 대해 설명
학년교류회		2	대표 그룹이 발표	발표에 대해 조언, 지도
반성		1	직장체험을 돌이켜보고 반성	감상문 작성법 지도
강좌학습		17	'창업' 등 14개 강좌로 나누어, 학년의 벽을 넘어 학습활동 실시	강좌, 활동내용 등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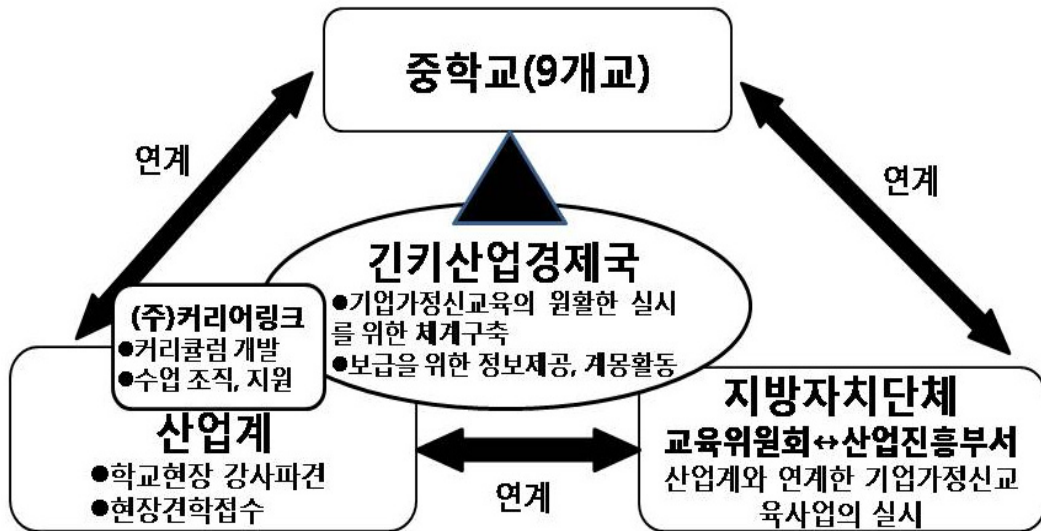
에기타(惠北)중학교는 52시간의 기업가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제발견 및 해결 능력, 협조성,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직장체험과 창업강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창의성 그리고 정보수집능력도 크게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체험결과의 평가방식, 고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 직장체험 및 창업강좌의 질적 개선, 지역축제 및 행사와의 연계, 점포 운영 등과 같은 직접적인 기업 및 창업 체험이 가능한 공간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26) 홋카이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ukou.hokkaido-c.ed.jp/entrepreneuring/n10.pdf>)

(4) 창업 의식 환기 활동사업(創業意識喚起活動事業)²⁷⁾

① 사업의 개요 및 목적

긴키경제산업국(近畿經濟産業局)은 창업 및 벤처정신이 풍부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이전단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2년, 2003년 2년간에 걸쳐 기업가교육모델 수업을 실시하였다. 기업가교육모델수업은 학생, 교사 그리고 참여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기업가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기업가정신교육실천모델도시구상(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教育實踐モデル都市構想)」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경제부서, 지역기업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린 기업가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림 IV-6】 창업의식 환기활동 사업 추진체제

27) 긴키경제산업국(近畿經濟産業局)(2004)의 「地域で育む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② 기대효과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크게 청소년, 부모, 학교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청소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문제해결 학습방식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형 학습'에서는 도전정신, 역할의식,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에 존재하는 친근한 주제로 편의점을 주제로 하는 수업을 실시하며,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 학습한다.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워크숍, 외부강사를 초빙한 강연회 등을 통하여 지식뿐만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 '분석능력(논리적 사고)'의 함양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학교현장에 미치는 효과로는 '워크숍' 방식의 수업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단위의 사고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보다 다채로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성 또는 수업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학교가 청소년과 지역사회간의 가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과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청소년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구심적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청소년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교육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육성한다고 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참여하게 되리라는 점도 기대하고 있다.

③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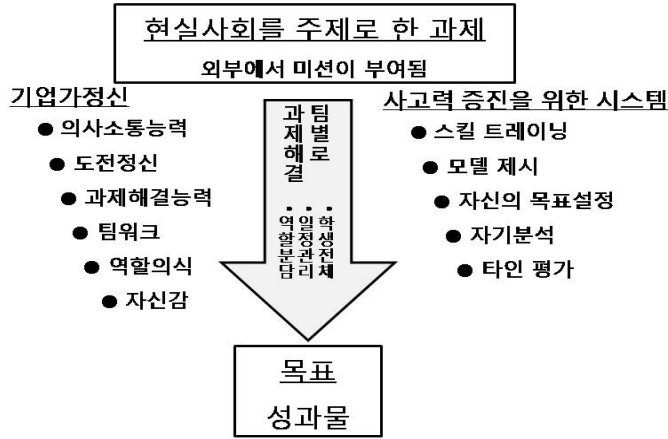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크게 기본형 교육과정,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그리고 인터뷰 스کیل업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기본형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총 4시간으로 편성되며, 청소년들의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청소년들의 이론적 사고의 기초를 함양하기 위하여 '비교', '법칙성의 도출', '입장 고려' 등 기본적인 분석방법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각'→'집단 차원에서 생각'→'반 전체 차원의 생각' 등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는 토론형 수업은 학생들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분석방법을 향후 일상생활과 학습과정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각 교과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IV-14 교육과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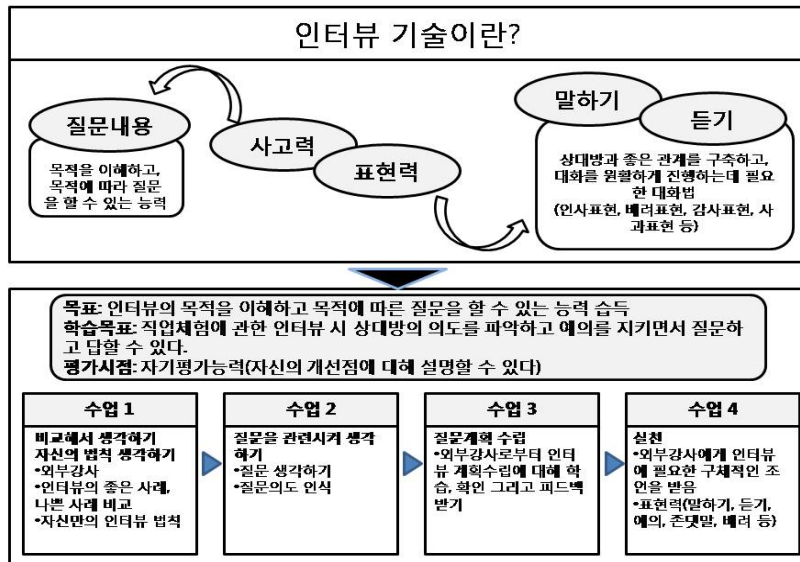
주 제	수업 목표 및 내용
비교하면서 생각하기 (2시간)	수업목표 1.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점포가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수업목표 2. 개별 작업을 통한 정보량과 그룹단위의 작업을 통한 정보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자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안목과 생각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
법칙에 대해 생각하기①(1시간)	수업목표. ‘판매법칙’ 수립을 위해 편의점내의 동선계획에 대해 생각. 동선계획을 입안하고 그 이유를 언어화함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
법칙에 대해 생각하기②(2시간)	수업목표. 상품진열계획을 입안. 상품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또한 도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관련정보를 상호 교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동반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도록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1시간)	수업목표.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 가운데 ‘주판매상품 및 주 소비자 요구’ 를 추측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편의점은 입지조건에 따라 주요 판매상품이 다르며, 주요 판매상품에 맞춰 상품전략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식적으로 사물 및 현상에 대해 사고하며, 나아가 사고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문제해결 학습을 경험하는 수업이다. 학교가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습득하기를 희망하는 역량’을 설정하고, ‘팀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생들이 논리적이며 완성도 높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 중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IV-7】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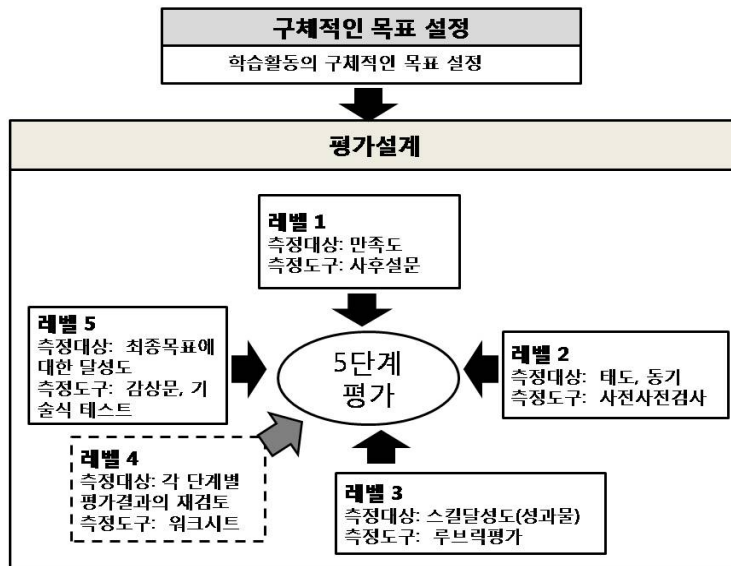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터뷰 스킬업 트레이닝은 매우 높은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터뷰 스킬을 습득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인터뷰의 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사고력과 표현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뷰 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배려와 예의를 지키면서 답하고 질문하는 능력(의사소통능력)의 함양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IV-8】 인터뷰 스킬업 트레이닝 교육과정 개념도

④ 사업효과 측정방법

사업효과 평가는 크게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각 대상별 평가항목(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청소년의 경우 수업에 대한 만족도(사후설문조사), 자세 및 태도(사전·사후 설문조사), 성과물의 완성도(루브릭평가), 사고과정(워크시트), 수업목표달성도 및 이해도(최종 보고서, 교과평가)를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교사의 경우는 연수의 만족도(사후설문조사), 자세 및 태도(사전·사후설문조사), 사업목적달성도 및 이해도(기술식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의 3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IV-9】 기업가교육 평가모형

(5) 기업가교육촉진사업(起業家教育促進事業)

일본정부는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의 기업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부터 「기업가촉진사업(起業家教育促進事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단계인 1991-2001년도에는 교재개발, 기업가와 학교간 교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청소년들이 체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참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2년차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3년차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없이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 IV-15>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5 기업가교육촉진사업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참여 지자체 수	2	8	27	34
참여 학교 수	36	71	243	n.a
참여 학급 수	142	190	604	n.a
참여 학생 수	4,396	6,452	20,420	n.a
자립 참여 지자체 수	0	0	1	3

* 출처: 경제산업성 신규산업실(經濟産業省新規産業室)²⁸⁾

(6) 기업가 및 창업교육과정의 개발

清水(2002)는 일본을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하는 「창업 및 기업에 관한 국제조사(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타국가에 비해 청소년들의 창업의식이 매우 낮다는 점, 청소년들이 창업이 활동한 국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 창업희망연령은 대체로 25-34세가 많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창업희망률이 높다는 점, 용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은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교육이 청소년들의 창업의식의 함양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그는 현재 일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활동 및 창업교육은 미국처럼 독립된 교과목(Business Education)이 아닌 교과목의 일부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상업, 공업계 고등학교 등)에서의 독립된 기업활동 및 창업교과목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목으로서의 기업교육의 내용은 성격, 마케팅, 경제학, 금융, 회계, 경영, 글로벌시장, 기업 및 창업관련 법령,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28) <http://www.meti.go.jp/policy/newbusiness/>(검색일: 2014년 6월 20일)

4)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기업(起業)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창업교육의 출발은 지역사회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기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농협,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연합회, 상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청소년들이 재배부터 기획,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즉, 청소년이 비교적 손쉽게 기업 및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판매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활성화센터(地域活性化センター)(2012)의 자료에 따르면, 야마가타현(山形縣) 츠루오카시(鶴岡市)는 동경 소재 대학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산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건립하였는데, 이 때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연구소의 보조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츠루오카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첨단산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며, 생명공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급별(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진로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兒美川(2005)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교육관에서 기업(起業)교육은 공교육의 영역에서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및 청년층의 창업기피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학교교육과정에 기업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학교급별 기업 및 창업교육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가교육은 과제설정단계, 과제추구단계 그리고 과제해결단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급별 진로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기업가교육 및 창업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기업 및 창업교육은 진로교육의 범주에서 청소년진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진로역량(인간관계형성능력, 정보활용능력, 미래설계능력, 의사결정능력)의 함양을 위해 역할인식, 판매전략의 수립, 선전방법의 모색, 결산, 이익의 배분 등과 같은 체험을 통하여 기업 및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낮은 창업의식과 창업율의 만회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의식의 재고에 힘쓰고 있다.

넷째, 기업 및 창업교육에 민간연구소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 기업 및 창업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경제산업성의 주도하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산업성은 2002년부터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식환기활동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강사파견, 교사연수 등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였으며, 현재도 민간기업(企業)이 기업과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거나 학교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자료²⁹⁾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간 541개교, 49,606명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기업 및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³⁰⁾

미국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특히 혁신기술형 창업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이 상업화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경연대회나 사업 아이디어(Business Idea) 대회 등 정기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성공한 기업가들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경영자의 현장감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허정운, 2013). 이러한 결과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우수한 세계적인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의 흐름 및 세계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2011년 미국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K5-12(우리나라 기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 학생) 미국 학생들 중 77%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박종규, 2014: 259). 이러한 설문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작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미국에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도 있으며, 대학의 학위과정은 물론이고 비학위 과정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활발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 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29) <http://www.willseed.co.jp/school/result/index.html> (검색일: 2014년 6월 25일)

30)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의 연구팀 중 임효신 박사가 집필하였음

연구결과로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Kauffman Foundation의 경우 약 400명의 교수들이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198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정체되어 있을 때, 우수 대학이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해 청년들에게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하였으며, Kauffman Foundation 등과 같은 민간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의 청소년 및 청년 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앞장섰다. 이러한 결과, 미국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치원 때부터 게임을 통해 창업교육을 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단계에서는 연령에 맞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받고 있다(금기현, 2014). 이렇듯 미국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주체적인 경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미국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이 상업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경연대회나 사업 아이디어(business idea) 대회 등 정기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밖에도 성공한 기업가들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경영자의 현장감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배종태 외, 2009: 120).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을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민간 주도의 참여 실태, 교사인증제도 활성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기업가 정신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학교 교육을 통해 제공되던 경제교육의 내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한진수, 2004).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1949년 설립된 미국경제교육협의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이하 NCEE)에서 여러

경제교육 관련 전문가단체들과 공동 작업을 거쳐 1997년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를 만들어 각 급 학교에 표준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기준에서는 초·중·고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학습 내용, 범위 및 성취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7년 미국의 민간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점프스타트(Jump\$tart)가 미국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식 수준 조사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가 만들어졌다. 점프스타트는 1998년 교육계, 정부, 금융서비스기관 등에서 참여한 2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금융교육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을 발표하고, 이후 2001년 경제, 경영, 가정과, 사회과 등에서 선발된 교사 그룹에 의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기준을 제시하였다(한진수, 2004).

더 나아가 2001년 조기금융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5년간 청소년 경제교육에 5억 달러를 투자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 NCLB(No Child Left Behind Act)법을 제정·공포하였다. NCLB법에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비롯해 교육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3억 4천만 달러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국어대학교, 2009: 74).

그리고 현재 미국 내 18개 주정부에는 창업교육에 관한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미국의 각 주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6 미국의 각 주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진로 및 기술교육에 포함되어 제공됨 해당 주의 모든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사들에게 관련 연수 또한 제공함 일리노이 교육의회에서 재정지원을 함
아이오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다뤄지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음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 창업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됨 창업관련 교과는 자격이 있는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 교과교사가 가르침 중등교육과정에서 창업교과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켄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9개 교육기관 중 45%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사 훈련은 Texas REAL에 위탁하여 실시함 • Federal Perkins Act, State Foundation Program Funds, School-to-Careers(S-T-C) Funds, local funds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음
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창업교육이 제공됨 • 중학교 수준에서는 「비즈니스와 마케팅」 과목군에 속한 'Make It Your Business' 과목에서 교육이 제공됨 • 「기술 교육」 과목군에서는 K-12의 모든 수준에서 창업활동을 기본적으로 가르침 • 창업을 진로와 연계된 과목으로 봄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P45-49 재구성.

2) 민간 주도의 참여 실태

미국은 청소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민간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영리 민간경제 교육 기관의 활동이 활발하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정부보다 시장과 자발적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강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창업진흥원, 2009).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 JA(Junior Achievement), Kauffman 재단,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NCEE(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JA(Junior Achievement)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영, 경제 및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는 1919년 설립 이래, JA Student를 8천 7백만 명을 양성하여 왔다. JA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해 전인경제교육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창업진흥원, 2009: 76).

(2) Kauffman 재단

1966년 설립된 Kauffman 재단은 기업가정신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재단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등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직이다.

Kauffman 재단은 기업가정신 제고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 창업과 기업 성장 환경 개선 등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Kauffman 재단은 MS, Google과 같은 혁신형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 및 성인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배종태 외, 2009: 121, 창업진흥원, 2009: 78). 그리고 Kauffman 재단은 상무성(Doc)의 요청에 따라 ‘entrepreneurship.gov’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한문성 외, 2010: 52).

(3)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2002년 설립된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경제교육 재단으로, 주된 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DECA는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학회를 개최하고, 출판물 및 수업에 대한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창업진흥원, 2009: 79). 특히 창업경진대회 시 사업설명서는 구두 및 문서로 제출되어 대기업의 직원들이 심사관으로 채점을 담당한다. DECA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힐튼 호텔 등 50여개 업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한문성 외, 2010: 50).

(4) NCEE(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

미국 경제교육 협의회 NCEE(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는 1949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비영리 경제교육단체로써 주 의회와 225개 대학에 기반한 경제교육센터 네트워크이

다. NCEE의 목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K-12)들이 소비자, 저축자, 투자자, 시민, 노동자, 세계경제의 참여자로서 책임있게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실생활의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NCEE의 주요 업무는 경제교육의 커리큘럼 작성, 경제교육 지도자 훈련,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실행 등이다(최병모 외, 2005: 337).

(5)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는 미국 저소득층 및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고 시장경제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2009년 기준, 벨기에, 독일, 인도, 남아공, 중국 등 세계 12개국에서 6만 1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후원금이 연간 운영 예산의 41%를 차지하며, 중국 사업의 경우 2005년 골드만삭스로부터 2백만 달러를 기부 받아 개시되었다(김규상, 2010).

이밖에도 EcoVenture International, Economics America, EDTEC 등 약 30여개의 단체에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3) 교사인증제도 활성화

교사 인증의 경우 경제 분야 교사는 최소 6개, 전문(Advance) 과목 교사는 10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교사자격 갱신을 위해 최소학점 또는 연수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른데, 뉴욕주는 5년마다 175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5년마다 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NCEE가 있는데, NCEE는 각 지역 센터 대학과 연계하여 매년 여름 경제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CEE에 의해 매년 12만 명의 교사가 경제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700명 이상의 금융분야의 창업전문교사를 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FTE의 경우, NFTE의 프로그램이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 대상 연수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NFTE는 교사 지원 인력을 교사 15명당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김규상, 2010).

4)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미국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비즈니스 교육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되었으며, 정규 교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은 직업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계열에 상관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과 경제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창업의 자각 교과과정과 창업준비 교과과정이 나선형의 단계별 교육과정의 형태로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한문성 외, 2010).

표 IV-17 중등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구 분	내 용
중학교 7-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직업 기초 교육
고등학교 9-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대학 준비과정 • 종합고등학교: 기술인력 단기대학 진학 •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취업 및 창업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P.36.

이러한 미국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은 다양한 비영리 민간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미국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은 민간주도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기관으로는 JA, Kauffman Foundation, DECA, NCEE, NFTE 등이 있다.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및 기간, 내용 및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JA(Junior Achievement)

JA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증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각 학년별 프로그램

인 주 1회, 총 5주 동안 진행된다.

JA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특징은 쉽고 재미있으며,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체험, 실습, 소그룹 활동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이에 학생들은 생활 속 경제를 배울 수 있으며, 용기와 도전정신, 리더십을 키울 수 있고, 대인관계와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심을 높이고 직업탐색을 도울 수 있다.

JA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자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자원봉사자는 그 지역의 기업가,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직원, 정부 관리 등 풍부한 기업 및 경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자원봉사자는 JA의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JA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JA는 이들에게 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와 교육보조자로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절차, 주의사항, 시간 배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크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재구성,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장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8 J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

구분	내용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방법으로 '결정' 하고 '선택' 진로직업 및 재정 설계 현재 생활에 적용, 행동 변화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중심의 거시경제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시장경제의 원리 이해 (예: 경제주체와 경제활동의 순환, 화폐와 금융기관, 시장과 가격결정, 국제무역과 환율 등) 합리적 소비생활과 개인재정 설계 (예: 가계 수입과 지출, 신용거래, 저축, 증권, 보험 등)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 (예: 기업형태, 회사조직, 자원과 유통, 수요와 공급의 법칙, 생산전략, 마케팅, 기업윤리 등) 직업 탐색과 준비 (예: 직업 적성 탐색, 직업 체험, 장래 직업 목표 설계 등)
교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주도적 수업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그룹 활동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 (예: 사례토론, 역할극, 인터넷 정보 수집, 인터뷰, 그림그리기, 글짓기, 가상도시건축, 생산놀이, 퍼즐게임, 머니플로우 게임, 신문제작, 모니터, 사업계획서 작성,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등) 경제이해능력 사전사후 진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이도(학년별)에 따라 주제별, 단계별 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기업체 탐방활동으로 연계하여 현장체험을 최대한 접목
교육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를 소정의 교육 훈련과정을 거친 후 경제교육 강사로 파견
교육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 경제교육 협력학교(공개 또는 추천 모집)

* 출처: 정태화 외(2005), 초·중등학교의 산학협력교육 P.45-46 재구성.

JA의 연령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10】 JA 연령단계별 교육프로그램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P.50 재구성.

J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급별,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기업인과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깨닫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JA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시장경제와 직업세계를 매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JA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19 JA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Oursel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경제적 역할을 깨닫도록 함 • 흥미로운 이야기책을 자원봉사자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서로 돕고 일하고 돈을 벌며 저축하는 모습을 행위로 표현하게 함 • 5명의 자원봉사자의 리드로 진행됨
Our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의 각 주체와 더불어 가족(가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함 • 소속한 지역 또는 마을 그리고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발표하게 함
Our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독립된 역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종 및 각 직종간의 상호관계를 깨닫게 함
Our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이 가지는 의미, 각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등을 이해하고 기업 활동(business)이 지역(city)에 기여하는 바를 학습함
Our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국민 및 자본 간의 관계를 조사, 이해하고 대중 소비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역 기업에 대해 소개함
Our 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의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 이해하고 학생이 기업 소유자 또는 채용 피면접자가 되는 례플레이(role-play)를 함 • 각 분야의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법을 이해함
JA Dollars and S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수입, 지출, 분배, 저축, 창업 등의 원리 및 형태 학습
JA Enterprise vil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기업인 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경제사회를 이해함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82-83.

JA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관심을 파악하고, 직업탐색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JA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0 JA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JA America 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이후의 미국경제에 각 기업, 기업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사례를 통해 학습
JA Economics for Su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인이 자신의 보유 기술 및 장점 등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재정 계획 또는 진학 및 경력관리 옵션을 발굴함

JA Enterprise in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제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를 구성하는 기업의 역할 및 창업과정에 대해 학습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례플레잉(role-playing) 등의 방법을 이용함
JA Global Market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이 학생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시킴
JA Go Figure! Exploring Math in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업(business)의 개념을 수학적 논리를 통해서 이해시킴
Our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을 중심으로 외환의 역할, 국가 간의 상호의존, 무역의 영향 등을 설명함
Personal Econom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기술, 관심사, 직업 및 개인과 가족의 재무관리를 중시함
The Economics of staying in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이해하여 학생 개인의 미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함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무역을 통해 어떻게 연결되고 교류하는지 학습함 • 학생들은 무역과 관련한 세계 동향 및 데이터를 접하게 되고, 또 토론의 기회를 가짐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83-84.

JA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제로 직접 하나의 소규모 회사를 조직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운동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JA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 JA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JA Banks in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에게 금융 산업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시장경쟁사회에서의 은행활용 방법을 익히게 함
JA Econom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 거시, 경제 경제의 기초 개념을 다지는 프로그램
JA Personal Finan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방법을 학습함 • 컴퓨터 활용법, 의사결정기법, 자료조사 및 해석방법 등을 익힘
JA Success Skills	•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킴
JA Titan	•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함
JA Company Program	• 학생이 만든 회사에서 개인적인 기호와 책임에 대해 분석, 탐구하고, 청소년이 사회에서 사업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JA Job Shadow	• 학생들이 직업의 가치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직업현장 방문 기회를 가짐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84-85.

(2) Kauffman 재단

Kauffman 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및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alt Disney사와 공동으로 'Hot Shot Business'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www.hotshotbusiness.com)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2,000만 명의 학생들이 'Hot Shot Business'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창업하고, 경영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6,600만 명 이상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Kauffman 재단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Hot Shot Business	• 유소년창업게임 Disney Online과 제휴하여 실시 • 온라인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Opportunity City' 운영 • 9~12세 사이의 수만 명 미국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대회도 개최함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78-79 재구성.

이밖에도 Kauffman 재단에서는 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 안내교육 프로그램인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 사회과목 또는 경영과목 내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Kauffman 재단은 디즈니랜드와 함께 심지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게임 형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DECA의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대학생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DECA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V-23 DECA의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내용
고등학생 (Highschool Di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기업가를 만나 지식과 경험을 현장체득, 각종 국제 경연대회·학회 참가기회 제공
대학생 (College Di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십 함양과 폭넓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교육담당 전문가 (Professional Di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게 됨

* 출처: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P.85-86.

(4)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NCEE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으로 Mini-Society, Making a Job, EntrePrep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원래 Kauffman Foundation의 프로그램이었으나 최근 NCEE에 3년간 350만 달러를 지원하며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다. NCEE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IV-24 NCEE에서 운영하는 초·중·고학생 대상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특징
초등학생	Mini-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2세 대상으로 함 30년간 시험·검증된 프로그램으로 43여개 주에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사용함 10주 혹은 20주 코스로서 1주에 3회(45~60분 수업) 진행됨
중학생	Making a 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교육과정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사용됨 기업경영보다는 창업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고등학생	EntreP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방학 동안 1주일간 합숙하면서 진행되는 몰입형 기업가정신 특별프로그램 1인당 약 8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P.35 재구성.

(5)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E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타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이 리더십이나 팀워크와 같은 이른바 Soft Skill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지식(hard skill)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참여 학생들이 실제 사업체 설립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담당하여 방과 후 학교 또는 특별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김규상, 2010). 한 예로 NFTE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5 NFTE의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내용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ndamentals 프로그램 20chapter로 구성된 교재를 토대로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육함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w to Start and Operate a Small Business 프로그램 1학기 혹은 1년 과정으로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제공

* 출처: 한문성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P.37.

NFT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 참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지, 비즈니스 지식, 기업 경영에 대한 자신감 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 교사의 경우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김규상, 2010).

5)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미국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력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적 지위를 가능케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창업이 3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이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연 수입이 평균 2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화, 2013).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대의 이공계 학생 대상 창업·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인 STVP(Stanford Technology Ventures Program)를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졸업생이 4만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연간수입 27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경호, 2014). 이와 같이 미국의 정규교육과정 등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았을 때, 크게는 국가 및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재무 설계 및 관리, 직업인으로서 소속한 조직의 경영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기업 창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민 개개인의 성장을 기초로 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의 네 가지 측면, 법적·제도적 지원, 민간 주도 참여, 교사인증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각각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기업가정신 교육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가능케 했던 법적·제도적 지원은 1997년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 ‘소비자 금융교육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 ‘조기금융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2년 ‘NCLB(No Child Left Behind Act)법’, 미국 내 18개 주정부의 창업교육에 관한 지원

법률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은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며, 초·중·고의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대학 및 성인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민간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며,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비롯해 대학 단계까지 연계하여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기업가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기관에는 JA(Junior Achievement), Kauffman 재단, DECA(The 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 NCEE(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 NFTE(The 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기관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약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 기관에 존재하여, 이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JA Korea 등의 민간 기관이 있지만,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태동하는 시기로 미국처럼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다. 또한 다양한 기업이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을 지원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주도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할지, 아니면 정부 주도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할지는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그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된다면 학생 대상으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또는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 제공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연수 이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만약 별도의 교과로 개설된다면,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에서 단기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기존 교과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해당 교과목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제공하여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교과로는 일반교과에서는 사회교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선택교과로는 ‘진로와 직업’의 일부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중등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 중 상업교과 등이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학교-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주된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정, 진로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흐름 및 트렌드를 파악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와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착·실현하는 안목과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비즈니스 교육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되었으며, 정규 교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은 민간주도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A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및 시장경제 이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개인재정 설계 능력 함양 등 실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관심분야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하게 되며, 직업인으로써 기업 경영전반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교육까지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립성, 능동성, 인성, 비즈니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교육은 이론 보다는 실제 삶에 기반한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은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이들의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학습동기를 끌어올려 삶을 설계하여 이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의식을 고취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으로, 이론 전달보다는 현실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삶에 있어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높은 중도탈락률 등의 미국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남게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업가정신 교육은 계열 및 전공 구분 없이 전 연령 범위의 학생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는 비경영 학문 즉 공대, 법대, 의대, 예술대 등 대부분 학부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는 '크로스 캠퍼스(Cross Campus)' 시도가 활발하다. 이러한 크로스 캠퍼스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경영학과와 비경영학과 교수가 함께 강좌를 개설하거나, 비경영학과 교수가 기업가정신을 자신의 학문에 맞게 접목하여 강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준배, 2013). 즉, 지금까지의 미국의 기업가정신이 기술형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술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창조해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정책과 맞물려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 및 산업을 창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브랜드 토리 버치의 회장이자 디자이너인 토리 버치는 2014년 5월 17일 지난 10년간 500여개 벤처기업을 배출해 낸 미국 창업교육의 메카로 꼽히는 밥슨 컬리지의 졸업식 연단에서 졸업생들을 'Fellow Entrepreneur(동료 기업가)'라 칭하며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업 가란, 단지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잡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조사회에서 남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에 이로운 기회 및 방향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진로교육이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개인과 국가·사회에 모두 이로운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4. 독일과 핀란드의 청소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례

1) 독일의 JUNIOR 프로그램

JUNIOR는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JUNIOR 비영리 유한책임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은 9학년 이상의 학생들이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업 과정에서 논의된 이론과 지식을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JUNIOR 프로그램은 독일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때문에 경제적 분야의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들을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가급적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교사관리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JUNIOR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의 교육청으로부터는 학교의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JUNIOR는 학생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단순화된 절차와 예산이 소규모라는 점이다. JUNIOR 기업에서는 평균 13명의 학생이 매주 2시간 ~ 4시간 동안 일을 한다. 사업 종료 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데, 이는 JUNIOR 기업에서 최소 50시간의 규칙적인 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젊은 기업인 증서”로 활용된다. 이 수료증은 직업 교육이나 대학 입학 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 JUNIOR의 목표 및 역할

JUNIOR는 참가 학생들의 팀 활동 능력, 자기 책임 및 독립성과 같은 핵심 역량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업가적 사고 및 실천행동 강화,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이해력을 높이고자 한다. 참가자들은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비롯하여 기업의 구성과 조직에 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경험함과 동시에 회계, 마케팅 및 기업 경영 등에 대한 기초과정을 배운다.

JUNIOR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JUNIOR는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는 모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규 학교 수업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기 힘든 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JUNIOR는 ‘Learning by Doing’의 모토아래 독자적으로 경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 및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E-Learning-Portal 및 워크숍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복잡한 경제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지원한다.

둘째, JUNIOR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한다.

시장조사부터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철저한 분석 능력, 조직 능력, 관련 규칙에 대한 이해, 창의력과 상상력 등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경제, 생태학 및 사회 복지 간의 성취목표에 관한 갈등에 부딪치게 될 경우, 팀을 이루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각각의 참가자는 개인적인 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한 이러한 능력을 필요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도 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과제를 통해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목표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셋째, JUNIOR는 학생들에게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 준다.

학생들은 JUNIOR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경제 순환의 독립적인 행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의사결정 내용이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의 직원과 지분 소유자에 대한 임금, 세금 및 책임 등 중요한 측면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넓히고 기업가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적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있어 이후의 창업 및 직업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참가자는 JUNIOR를 통해 독립적인 행동에 대한 장점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성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창업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JUNIOR는 유용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참가자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조언해주고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JUNIOR는 다년간에 걸쳐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온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와의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기업 프로젝트는 독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JUNIOR는 학생 기업의 유럽 상부 조직인 Junior Achievement Young Enterprise Europe(JA Worldwide)의 회원으로 전 유럽에서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독일경제연구소 JUNIOR 비영리 유한책임회사는 현재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학년 이상의 학생은 JUNIOR에 참가할 수 있으며, 7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는 JUNIOR 콤팩트에 참가하여 경제 세계에서 최초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2013년도부터 헤센과 자를란트에서 JUNIOR Basic 프로그램의 파일럿 단계가 시작되었다. 또한 2013년 봄에는

니더작센에서 그리고 2013년 여름부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그리고 작센에서 이어졌다. JUNIOR Basic의 목표는 성장하는 학생들이 간단하게 그리고 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 기업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한 JUNIOR 콤팩트 프로그램과 JUNIOR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2) JUNIOR 프로그램 운영과정

독일에서는 오직 적은 수의 취업자만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산업 국가와 비교할 때 독일에서의 창업 열정은 비교적 미미하다. 또한 경제적 노하우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를 보충하려는 수요가 높은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JUNIOR가 시작되었다.

수업에서의 경제는 종종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와 경제 실천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JUNIOR 비영리 유한책임회사는 1994년 이후 학생들에게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을 전수해주고 있는 JUNIOR 프로젝트와 함께 이러한 간격을 메우고 있다. 모든 연방 주에서 각 학년 하반기에 JUNIOR 정보 제공 행사가 개최되고 관심 있는 교사들은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얻는다.

프로젝트는 일반학교 및 직업교육학교의 9학년 이상 학생들이 JUNIOR에 참가할 수 있다. 8명 ~ 15명의 학생이 모여 JUNIOR 기업을 설립한다. JUNIOR 기업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젊은 기업가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 최종 사업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승인 후에 기업의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판매 시장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 JUNIOR 사무소는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한다. 그곳에서 회계와 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직과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공유한다.

(3) JUNIOR 콤팩트

JUNIOR 콤팩트는 특히 실업학교와 주요 학교에서의 7학년 ~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JUNIOR 콤팩트는 성공적인 JUNIOR 프로젝트에 연계되어 있다. 기본적인

인 활동과 진행 과정은 JUNIOR와 동일하다. JUNIOR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진행 과정과 회계에 있다. JUNIOR와 비교할 때, 이 구상은 특히 짧은 목표 집단의 욕구를 고려하는 트레이닝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들은 나중에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비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미래의 기업가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생 후견인(교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한 JUNIOR 콤팩트에서도 기업가 모임이 진행되기도 한다. 회계, 마케팅 및 이사와 관리 교사로서의 업무에 관한 워크숍이 제공된다. 기업 단계의 범주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하이라이트는 JUNIOR 콤팩트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에서 학생들은 부스와 무대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자신들의 사업을 갖고 스스로 소개한다. JUNIOR 콤팩트의 기업가들은 오직 축약된 형태로만 사무소에 보고하며 특히 자본 조달, 회계 및 최종적인 정산 과정은 매우 간소화 되어 있다.

(4) JUNIOR-Basic

JUNIOR-Basic은 특히 실업학교와 주요 학교에서의 중등 1단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JUNIOR Basic은 성공적인 JUNIOR 프로젝트와 JUNIOR 콤팩트 프로젝트에 연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 책임 의식 및 팀워크 능력과 같은 중요한 핵심 능력을 습득한다. JUNIOR-Basic은 사회적 역량 강화, 직업 교육 완성의 촉진 및 직업 선택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 기업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

프로젝트 자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 맞추어져 있고, 또한 목표 집단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할 교사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을 덜게 된다. JUNIOR-Basic 진행과 함께 동시에 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인 JUNIOR 콤팩트와 (7학년 이상) JUNIOR에 (9학년 이상)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JUNIOR-Basic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는 개별적으로 교사가 정할 수 있다.
- 이미 존재하는 학생 기업에 대한 지속지원이 가능하다.
- 식품 제조와 판매는 법적인 기본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5) JUNIOR 테크

JUNIOR 테크는 상상력이 풍부한 학교의 구체적인 목표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적 재능 및 경제적 연관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춘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 학생들에게 현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JUNIOR 테크는 환경과 사회적 친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발명 등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JUNIOR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관계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자문
- 지역 경제와의 관계 구축
- 경영 노하우의 습득
- 현재의 직업분야에 관한 더 많은 전문 지식 획득
- 프레젠테이션 기법
- 본인의 장점과 약점 인식
- 책임 수행
- 취업을 위한 추천

(6) JUNIOR 프로그램 운영 방식

① Team-Building과 아이디어 발견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팀은 기존의 아이디어 또는 발명 내용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② 창업 워크숍

JUNIOR 테크의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참관한 상태에서 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팀과 함께 사업 계획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플랜을 완성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③ 경제 후견인과의 만남

학교는 지역에서 팀의 과제 이행을 지원해줄 경제 후견인을 얻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대안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의 경제발전단체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팀은 JUNIOR 프로젝트 관리로부터 지원을 받고 연구 자료를 얻게 된다.

④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은 단순한 비즈니스 플랜 형태로 “워크시트” 작성하고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발명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기업이 탄생하는가에 관한 전략 등을 기술한다.

⑤ 비디오 클립

이전의 JUNIOR 참가자가 프레젠테이션 진행에 있어서 학교 팀을 지원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사전 연습하여 비디오 클립으로 녹화한다.

⑥ 시상

비즈니스 플랜과 비디오 클립은 전문가 배심원이 평가한다. 우수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방경제기술부에서의 최종 행사에서 포상과 문서와 함께 시상이 이루어지고 모든 참가자들은 수료증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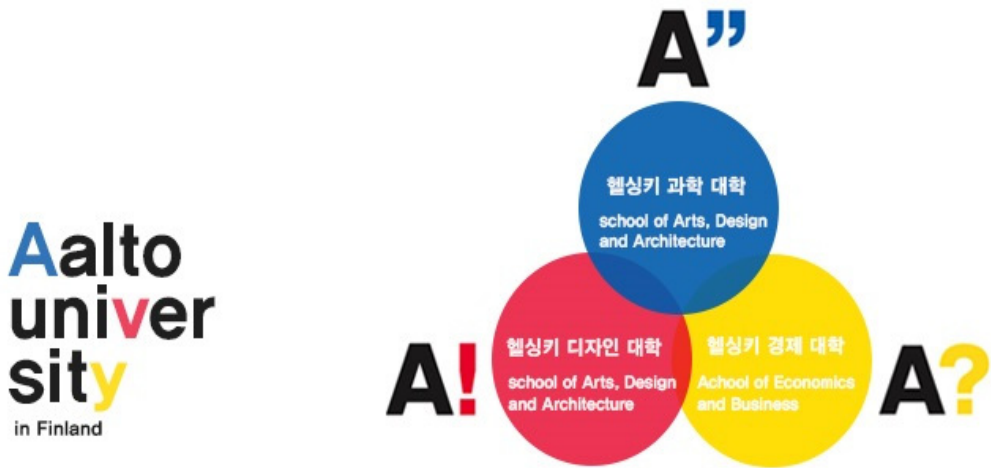
2) 핀란드의 알토 대학(Aalto University) 프로그램

(1) 개요

핀란드는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제 간 융합이란 방법을 택했다. 이를 위해 핀란드 최고의 대학인 헬싱키의 3개 국립대학의 경영대, 예술대, 공대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0년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 개설하였다. 알토대학은 한 가지 학문에 안주할 경우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학, 경제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습득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헬싱키 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3개 대학교가 통합 석사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개 대학에서 각 10명씩 선발된 석사과정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하나의 고리고 연결하여 마지막 과목을 동시에 수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료 후에는 다방면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이윤준 외, 2012: 137-138).

이 대학의 부총장인 한누 세리토스는 인터뷰에서 “세 개의 대학을 통합한 본래의 이유는 핀란드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대학의 창의적인 요소들을 결합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새로운 혁신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였다(KBS, 2014).



【그림 IV-11】 알토대학의 로고

(2) 디자인 팩토리(Design Factory)와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디자인 팩토리(Design Factory)는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기업으로부터 요청받은 각종 산업 디자인이나 사업 아이템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그룹(학생 및 일반인)들이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인으로부터 6주간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하는 기관으로 특히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사 등 90개 업체가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한다.

특히, 스타트업 사우나(Start up Sauna)는 알토대학 내 위치해 있는 창업지원 단체로서

제2의 앵그리버드를 꿈꾸는 창업자의 원서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스타트업 사우나가 추구하는 가치는 '수혜자의 기부자 전환(Pay It Forward)' 으로서 이곳에서는 실제로 6주마다 데모 데이(demo day)라고 하여 실제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가치를 평가받는 자리가 있는데 이들 또한 지도하는 코치진에는 현직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포진해 있다. 그 중 '앵그리버드' 개발사 로비오의 마케팅 총책임자 피터 베스트백카도 이 중 한 명이다. garage라는 공간에서 졸업생, 중소기업, 소규모 에이전시, 실무자가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공간이 있음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물리적인 공간제공과 실무자로부터의 멘토링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독일과 핀란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특징

첫째, 독일은 학교 및 청소년 활동 현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기업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혁신 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창업 교육을 수강한다.

둘째, 독일과 핀란드 모두 창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 전단계(pre-incubation)에도 학생이나 연구자가 금전적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서도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공간적으로 산업 시설과 학교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청소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연구자, 사업가 등이 언제든지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그리고 특허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에서 알토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기관 등이 일체가 되어 청년 지식기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특히 학생과 기업인이 언제든지 구내식당 등에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으로 산학 융합 활동이 구조화 되어 있다.

넷째, 독일과 핀란드 모두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대학 혹은 지역사회 후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혁신 생태계를 토대로 실험실에서 곧 바로 창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아이템을 가진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교는 지역에서 팀의 과제 수행 과정을 지원해줄 경제 후견인과의 연계를 형성과 경제발전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한다.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제언

1) 유럽국가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럽은 국가 차원에서 창업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단일교과 혹은 통합과정 등의 형태로 정규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진취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이 사회진출의 성공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면, 우리사회도 더 이상 지나친 입시와 학벌위주의 가치관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유럽은 기존의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실천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지원 정책이 핵심적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실천전략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 관점을 넘어 지역과 국가, 나아가 글로벌네트워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일국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기업가가 원하면, 전 유럽 어디에서라도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인턴쉽으로 활용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중개사무소) 배치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업방문이나 현장실습의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그 무대가 세계가 모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구축과 전담사무국이나 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물론, 민간 기업이나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동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의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YES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럽 내서 뜻을 같이하는 6개의 국가들의 민간단체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뿐만 아니라 연관 있는 여러 국가에서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나 정책은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민간 영역은 한국에도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과 홍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 정책은 민과 관의 주도과 협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2) 일본이 주는 시사점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기업(起業)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창업교육의 출발은 지역사회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기업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농협,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연합회, 상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청소년들이 재배부터 기획,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극 참고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상품들을 교내 혹은 지역에서 베틀시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영업시간 이후 혹은 주말을 이용하여 판매와 홍보활동을 시도하거나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

둘째, 일본은 학교급별(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진로달발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번 연구의 정책 제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운영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초·중·고 는 기초단계→역량인식단계→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 운영하고 대학생은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창업단계→성장 단계로 운영 초중고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성과목표 및 학습내용을 체계화시킨 기업가정신 학습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업가교육 및 창업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기업 및 창업교육은 진로교육의 범주에서 청소년진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진로 전담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실시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진로와 직업의 한 단원으로 편성하여 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진로와 직업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포함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연계할 경우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기업 및 창업교육에 민간연구소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 기업 및 창업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보다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강사파견, 교사연수 등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였으며, 현재도 민간기업(企業)이 기업과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거나 학교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지역사회 기업, 학교, 민간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사업장과의 연계는 이들이 실제 창업 경험과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과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인력활용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미국이 주는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박동 외, 2010: 158-162)의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청소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 및 실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는 과거 실패한 경험 자체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하여 한두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의 도전 정신이 희박하고 위험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한 번의 실패를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서 패자부활전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성숙되지 않아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좀처럼 재기의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창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여전히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창업에 따른 위험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체계적인 창업 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아이디어 선발 기회 제공,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창업 보육 및 벤처 창업 관련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창업자가 커다란 금전적 부당을 갖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간적으로 산업 시설과 학교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청소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연구자, 사업가 등이 언제든지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그리고 특허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UC버클리 대학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및 청소년 활동 현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

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은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민간 주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교사 인증(교육 수준 보장)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09: 7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창업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상태이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신기술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대학 수준에서는 미국의 대학 사례와 같이 창업 관련 과목의 정규코스를 개설하여 학점과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실제 지식기술 창업과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창업 단계와 창업 유형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과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도 지역 상공회의소 및 벤처 자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정보 공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리 기법에 대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창업을 실행하는 학생들은 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창업 유형에 따른 창업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 중에서 창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전문계고를 비롯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창업 동아리 집단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단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그리고 창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청소년 기업육성과 자금관리 등의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의 청년 실업률 개선에 위한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이나 혹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창업교육이라는 극히 지엽적인 사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삶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리더십함양에 관점을 맞추어야 하며, 직업교육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며, 그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아직 논의 초기에 머물러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논의, 그리고 소개와 적용이 필요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기부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반 기업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상시적인 만남을 장을 개최하여 상호이해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단위 평생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초경제 상식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을 확충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V 장

전문가 및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면접조사의 개요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3. 결론 및 제언

제 V 장

전문가 및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면접조사의 개요

1)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5/6학년)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제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와 창업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 상황과 교육을 받는 대상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반구조화된(표준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의 개인적인 질문기술이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담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피면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만든 면담 방법이다.

반구조화 면담 수행 5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면담이 발생하기 전에 시작할 준비단계

2단계. 초기 접촉 단계(Primarily social in character)

3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자에게 지시하는 단계)

4단계. 주요단계(면담의 핵심, 분석을 위한 경험적 초점)

5단계. 종결단계(부분적으로 사회적이고 지적이며 중요한 비평을 포함)

1단계는 준비단계이다. 연구자가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단계이다. 면담 시간과 장소의 적정성, 면담 장소의 위치, 연락할 방법, 가능한 면담 길이 및 기록하고 싶은 것을 상기하기, 여분의 테이프와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녹음 장비, 방과 의자가 편안함 정도, 물, 차, 커피, 과자 같은 다과, 면담자의 외모 등이다. 이러한 사전준비는 면담의 방향을 상당히 결정한다.

2단계는 초기접촉단계이다. 먼저 면담자 소개하기, 다과제공, 그들의 장소에 대한 질문, 방의 편의성 및 온도의 적절성, 화장실 위치 등 환경적, 사회적 정보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오리엔테이션(면담 설명하기)단계이다. 연구자가 면담 주제나 질문 등에 대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면담 참여자에게 지시하는 단계이다. 가령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거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면담 일정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녹음기의 기능을 시험해 본다.

4단계는 주요단계이다. 면담의 핵심단계로서 분석을 위한 경험적 초점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미리 준비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일련의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면담자와의 면담을 더 깊게 진행하고 반응을 알아본다.

5단계는 종결단계이다. 종결단계의 중요성은 면담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면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와 요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의 주제를 통해 응답자가 연구자에게 이끌린 반구조화된 면담에는 다른 종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요소는 구조의 정도 때문에 제외된다. 종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토와 피드백의 제공이다. 구체적으로, 피면담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알기 위해 면담 기록을 보길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재확인한다. 피면담자가 신원을 밝히길 원하는지 아니면 익명을 원하는지도 알아본다. 연구결과를 원하는지 전체 보고서 보기를 희망하는지도 알아보고 피면담자가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면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김영천, 2012: 326~328).

(2) 이메일 면담(E-mail Interview)

이메일 면담은 온라인 면담 중에서 비동시적인 방법이다. 연구자와 응답자의 일대일 관계는 상대적으로 이메일 교환에 의하여 의사소통을 더 개인적이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면담 상황은 주로 면담자가 참가자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설립하는데서 대인간에 이루어진다. 온라인 면담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메일 면담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는 정확하게 텍스트에 기반한 이메일 의사소통이 연구자와 면담자 사이의 가까운 접촉을 가능하게하고, 그것이 좋은 자료를 만들어 내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메일 면담이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가 너무 바쁘거나 다른 국가 또는 도시에 사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메일 면담은 증거가 녹음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대면 면담을 꺼려하는 참여자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면담 주제가 어렵거나 현장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인적인 생일이나 직업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다. 많은 응답자들이 과거의 응답 전화기에 남겨진 메시지나 편지보다 이메일에 빠른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과거처럼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 요청이 빨리 수신된다. 중요한 측면으로 이메일 면담은 전통적인 방법에 약점을 피하고 대면 면담의 장점을 결합시킨다(김영천, 2012: 345).

(3) 연구 참여자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집단은 전문가 그룹 10명과 청소년 그룹 10명 등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부실한 6명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활용된 조사지는 <표 V-1>와 같이 전문가 7명과 청소년 7명 총 14명이었다. 전문가는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5명, 민간단체 교육운영 담당자 1명, 박사논문 진행자 1명, 청소년은 창업 혹은 창업동아리 경험이 있는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3명이었다.

표 V-1 포커스 온라인 인터뷰(면접) 대상자 현황

NO	구분	대상	소속	성별	나이
1	교사집단	교사	**중학교	남	50
2		교사	****고등학교	여	30
3		교사	****고등학교	여	46
4		교사	*****고등학교	남	31
5		대학원	**대학교	여	35
6		전문가	OEC	여	36
7		전문가	글과영상	여	33
8	청소년 집단	고등학생	****고등학교	여	19
9		대학생	**대학교	남	20
10		대학생	**대학교	여	20
11		창업준비생	-	남	20
12		대학생	**대학교	여	20
13		대학생	**대학교	남	22
14		대학생	**대학교	남	24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면대면 인터뷰와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기간은 2014년 05월 09일 ~ 05월 21일 및 2014년 07월 28일 ~ 08월 11일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5) 면접 조사지 개발

조사지는 전문가와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2종류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표 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교육 주체,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의 전문 인력 육성방법, 정부지원방안, 교육체제 확대 방안 등을 공통으로 질문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내용, 창업가의 자질,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지는 관련 자료 검토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다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안면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표 V-2 면접조사 주제영역 및 내용

공통 영역	내용
필요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의 주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누가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교육내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방법	청소년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문인력육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부지원방안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체제 확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추가내용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청소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 면접조사의 결과 분석

1) 전문가 인터뷰 문항별 결과 분석

학교와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7개 영역의 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표 V-3>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V-3 전문가 인터뷰 문항별 분석내용 요약

공통 영역	범주	내용
필요성	문제해결능력 향상	스스로 문제를 인식, 한정된 자원 내에서 문제해결방법 도출
	주체적사고	자신의 가치를 알기위한 끊임없는 탐색
	추진력, 리더십	기업가가 되기 위한 판단력, 추진력
	새로운 교육 요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교육의 주체	교사	학교교육 내에서 학교진로교육의 영역으로 교육의 주체
	창업가(대학생포함)	실제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
	학생	본인 스스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학습
교육내용	기업가정신 의미 소개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
	우수사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자기이해	자기이해를 통한 개인능력·역량 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공동체 의식함양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능력 및 기회 발견
교육방법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 창업을 체험
	멘토링 활동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의 멘토링
	사례공유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사례 다루기
	방과 후 학교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
전문 인력육성	전문연수	교사 또는 비교원, 기업가 대상 전문 연수를 통한 전문가 육성
	대학생 인력육성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콘텐츠개발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교육 콘텐츠 및 매뉴얼을 개발
정부 지원방안	한국형 기업가정신교육의 개념정립 및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지원	
	외부 강사 인력 풀 제공, 외부강사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정규과목으로 편성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인증제도 도입	
	기업가정신 지수개발 및 측정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 홍보	
	학부모 인식개선 보조비 지원	
교육체제 확대	성공사례 발굴	성공사례의 지속적 발굴 및 연계
	정규과목으로 편성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개념, 교육의 필요성 확대
	학교 밖의 기관 활용	학교 밖의 기관, 언론을 통해 기업가정신 지속적 홍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이론위주의 학습보다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첫째,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청소년이 나아가야 할 미래사회는 현재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인식, 도전정신, 가치창출을 위해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체적사고력 향상의 필요성은 명문대학 진학과 대기업의 입사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삶에 대한 획일화된 가치관을 버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개척하는 방식을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위한 끊임없는 탐색과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는 추진력과 리더십을 함양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의 상당부분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미 갖추어져있는 틀 안에서 보호받는 대신 도전을 해보고 책임을 지기에는 미흡한 시스템이다. 일방적인 교육에 익숙해지게 되면 졸업 후 현실과의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기업가정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의 주체로는 먼저 교육의 장인 학교의 교사가 학교교육과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교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진로교육의 영역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들이 효과적인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창업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청년창업가의 경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직접 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 분야별로 특화된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교육한다면 기존의 진로교육이나 창업교육에 편중된 기업가정신 교육보다 높은 효과성을 보일 것이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용

첫째,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국내, 국외 기업가의 성공 사례 및 각 분야(금융, 무역(유통포함), 제조, IT 등)의 기업 연구결과 등을 소개하거나 실물 경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자아 발견 능력,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실행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실패 회복 능력, 자원 조달 및 활용 능력 등 책상에 앉아 고민하고 정답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배워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여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법 등 문화예술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소수자 이해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훈련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훈련,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생각하는 훈련, 다양한 생각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훈련, 결정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훈련 등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창업가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적용시킨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학생들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진로와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체험하게 된다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함께 생활하는 능력을 배우고 그 안에서 개인의 능력 및 기회를 발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 실행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패 회복 능력 등 공동체 의식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방법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먼저 실천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활동 중심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직접 기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현장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여 체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 청년창업가 혹은 기업가정신교육 과정에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문제인식 및 가치창출 활동을 직접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사례를 다양하게 다루고 공유해야 한다. IT기업가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가, 국가 지도자의 사례 뿐 아니라 일반 주부, 회사원이나 조직 구성원의 업무상 혁신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사례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훌륭한 기업가정신을 통한 긍정적인 사례라는 측면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신이다.

(5)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방법

첫째, 상업교사 또는 진로교사 등 자원을 받아 전문 연수를 통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교사연수를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교사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수 방법으로 교원연수 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교사 연수 과정으로 개설하거나 기업가정신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수법, 내용에 관한 지식 이외에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직 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 일반교사가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콘텐츠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첫째, 한국형 기업가정신교육의 개념정립 및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전문 인력 육성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가정신을 학교 교육과정에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넷째, 일정 기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7) 교육체제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언

첫째,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의 성공사례를 시작으로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에게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정부 교육 체제 구축 시 기업가정신교육 전문 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민간 기관 및 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 공동 활동을 통해 함께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기존의 교육을 이름만 바꾸어 '기업가정신교육'이라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업가정신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일명 '혼한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기업가정신교육의 체험적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거나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할 수 있다.

2) 청소년 인터뷰 문항별 결과 분석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거나 창업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7개 영역의 면접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표 V-4>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V-4 청소년 인터뷰 문항별 분석내용 요약

공통 영역	범주	내용
필요성	능동적 자아실현과 도전정신	자신의 꿈을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추진력과 리더십	장기적으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토대
교육의 주체	학생	이른 시기부터 접했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중학생 이상)
	교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
	진로지도교사(상담교사)	전문교육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실시
교육내용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및 도전정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배움.
	프로그램 기획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역량 개발
	성공한 창업가들의 사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성공한 창업가가 멘토링을 진행
교육방법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 창업을 체험
	창업동아리 활성화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임
	방과 후 학교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
전문 인력육성	기업 내부 인력양성	성공한 기업체 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대학생 인력육성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정부 지원방안	학부모 인식개선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인프라 구축, 보조비 지원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의 사례 지속적 홍보	
	교원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교육체제 확대 및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이론위주의 학습보다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으로 편성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 제공
	정규교육 밖의 기관 및 시설 활용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홍보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

첫째, 중등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린 사고와 다양성 추구 경향과 맞물려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능동적인 자아실현 노력이 자신의 꿈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기업가는 리더십과 판단력,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자원보다 인재 위주의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창업인 경우 아이디어와 기획력보다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토대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상 및 주체

첫째,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배우는데 있어 기업가정신교육은 중학생 이상의 학생에게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사례공유는 이른 시기부터 접했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이 기업가정신교육을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학교에서 직접 교육하고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 교과에 맞게 내용을 편성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교사를 비롯하여 학생의 진로 및 기타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 내·외 진로지도교사 및 상담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일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요구할 때 학교를 비롯한 교육센터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가정, 학교, 정부 등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비영리단체, 학교, 가정이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양성하고, 학교는 기업가정신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직간접적인 기업가정신 관련 훈육이 필요합니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용

첫째, 창업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삼아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가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및 방법을 학습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그것을 기획하여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역량개발과 기획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공한 창업가나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 기업가정신 교육의 영향 등 현실적인 내용을 공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방법

가. 실천적 교육(모의창업)

첫째, 모의창업과 같이 아이디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 창업을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이론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며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품을 상상하고 구상하면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마케팅하고 판매 하는 것에서 어떠한 이론보다 더 값진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창업동아리를 활성화 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정보공유, 기관방문, 모의체험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질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동아리를 중·고등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면,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도전과제를 주고 팀별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직간접적인 체험형 교육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방과 후 시간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을 통해 주제별 강의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방법

첫째, 성공한 기업체 내의 인력 중 기업가정신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정부가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의욕도 있고, 청소년이 만 24세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소년 창업가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재능 기부 형태로 육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

가. 학부모 인식개선

첫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흔히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어는 창업 혹은 사업이라는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교육자체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은 것이 한 예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교육내용이 자녀들의 진로의 한 방향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모전을 통해 스스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경험하고 실패할 경우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창업 아이템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우리의 자본으로 시작을 하고 실패를 하면 빛이 썩이고,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다양한 단체 및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교육프로그램 확대,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

(7) 교육체제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언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및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므로 이론보다 체험을 통해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제 수업으로 변경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CA시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하여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단순히 책으로만 읽고 배우는 이론위주의 교육이 아닌 기업탐방, 창업 성공한 사람과의 만남, 작은 사업 시작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

표 V-5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

내용 요약
· 사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
· 경제 동아리를 통한 창업 사례를 접함으로
· 동아리에서 여러 기업가분들의 강연을 듣고, 사례연구를 하면서
· 전공 관련 학회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 사람들과 만나면서
· 실제 사업가들을 만나고,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기에 어떤 것을 상품화 해볼까 라는 생각에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아이디어와 시기를 잘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이였기에 용돈벌이 정도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인 이윤창출에는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된 시기와 경제적 어려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때 막연히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을 하지는 않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다니며 실리콘 벨리, 텔아비브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이 활발한 출신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저의 꿈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커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은 팀을 만났고, 또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수상을 하며 현재는 이 팀원들과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중입니다.”

(9)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

표 V-6 창업 결정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

내용 요약
· 걱정 반 기대 반
·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는 소리를 들음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부럽다는 반응
· 부모님은 걱정도 하시면서 한편으로 지지도 하였음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이 일을 꾸린다고 하면 못 미더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 선후배 등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부럽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대기업 취직을 위해 준비하지 창업이나 다른 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직을 하지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는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제가 무엇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10)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

표 V-7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연관성

내용 요약
·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블루오션의 기회를 만들어야함
·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불가분의 관계
·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실패도 극복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함
· 창업은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생각

“창업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창의적인 솔루션 제시, 실현을 위한 끝없는 노력,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이기에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1) 청소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된 교육 내용

표 V-8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내용 요약
·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 경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
· 법률과 기본적 경제에 관한 정보
·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교육
· 리더십 함양과 더불어 체험학습 교육이 확대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 경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이윤이 창업이라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 상품판매부터 창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인식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함양과 더불어 체험학습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회활동과 외부활동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수업으로는 창업에 대한 꿈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체험하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권위자와 특강, 멘토링 등 직접 만나 이야기 해보는 것도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창업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창업가에게 필요한 자질

표 V-9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
내용 요약	
	· 조심성과 과감성
	· 부지런함
	·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진정성과 목적성
	·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기대감, 실행력, 인적 네트워크
	· 끈기, 실험정신, 인간에 대한 신의, 배려
	· 리더십, 자신감, 냉철함

“리더십과 자신감 냉철함,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규모가 어쨌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없고 그 조직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잃게 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성장 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철함이 없다면 작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큰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입니다.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내가 이 창업을 통해 본래 이루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13) 청소년의 창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표 V-10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

내용 요약
· 창업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
· 정부보조금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 상표 특허 등록비 지원, 공모전을 통한 노출기회와 재정 지원
·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 창업비용 지원

“국민인식의 전환입니다.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기본으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의 성공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각종 언론과 사이트에 게시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서히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결론 및 제언

학교와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참가자들의 문제해결능력, 주체적 사고력, 추진력과 리더십 등이 향상 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의 요구도 제기하였다.

교육의 주체로는 교사와 창업가,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도전정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서부터 우수사례, 자기이해, 전문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체의식 함양 등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체험과 실습과 같은 실천적 학습, 분야별 전문가와의 멘토링 활동, 실제 사례 공유, 방과 후 학교 등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 및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전문연수 실시, 대학생 인력 육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교육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 육성, 외부강사지원,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 인증제도 도입, 기업가정신 지표개발 및 평가, 사회적 홍보확대, 학부모 인식개선, 보조비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개선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성공사례 발굴, 학교 밖의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거나 창업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참가자들은 능동적 자아실현과 도전정신, 추진력과 리더십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의 주체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진로지도교사(상담교사)의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교육의 내용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및 도전정신, 프로그램 기획, 성공한 창업가들의 사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방법으로는 실천적 교육,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과 후 학교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전문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 인력양성, 대학생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학부모 인식개선,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인프라 구축, 보조비 지원,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의 사례를 지속적 홍보, 교원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같은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으로 편성, 정규교육 밖의 기관 및 시설 활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제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나아가 현장 실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성공스토리를 접하고, 이를 통해 자극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는 리더십 함양과 더불어 현장 체험학습이다. 일부 학생들은 학회활동과 외부활동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수업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체험하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심 분야의 전문가의 특강과 멘토링 등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도를 받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는 다양한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VI 장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
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교육모형 개발
3.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제 VI 장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성공 및 장애 요인 분석

1)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

창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 자신의 의지와 역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인이 현재까지 축적시켜온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망한 아이템을 구상해야 한다. 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분야와 시장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미래 트렌드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기획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자원지도(resource map)를 구체적으로 완성하여 단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성과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미자·김중규, 2013: 57-58).

첫째,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관심 분야에 대한 사업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또한 신속하게 행동에 옮김으로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강한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 창업가에게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끈기 있는 인내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기회를 창출하고 술선수범하며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사업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창업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에 몰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성공창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초기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창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바이그레이브(Bygrave)는 기업가적 성공을 위한 9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박동 외, 2010: 37-38, 재인용). 신규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급의 기업가를 창업자(founders)로 선정하고 그들 중심으로 뛰어난 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틈새시장(niche markets)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결정은 빠르고 신속하게, 오픈 마인드(open-mind)를 갖고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끊임없는 혁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조직은 가능한 한 적은 관리 계층을 가진 수평적 조직인 동시에 기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과 부품 제공업자 그리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Bygrave, 200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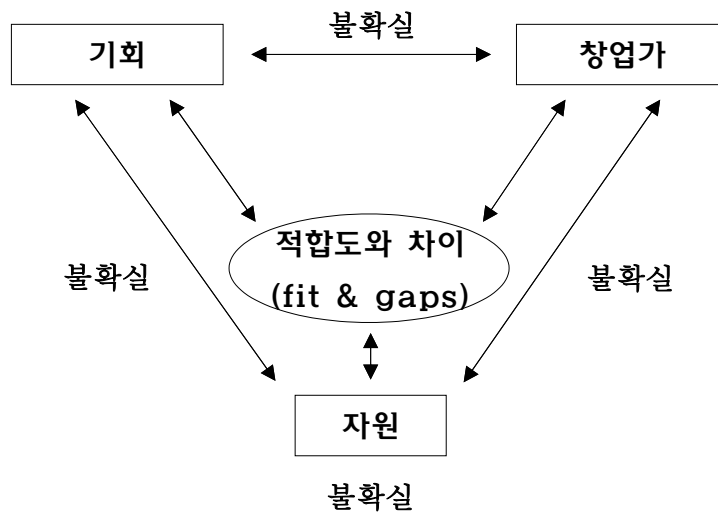
성공한 기업가와 실패한 기업가의 차이에 대해 김성수(2007)는 “성공한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저서에서 ‘정신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도전과 개척정신, 근검절약과 신용제일주의, 신념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 실패한 사업가는 지나친 욕심과 낭비, 불성실과 신용결여, 피해만상과 인내력 부족, 도전과 개척정신 및 신념의 결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미자·김중규, 2013: 56, 재인용).

한편, 기업가정신은 신속한 환경 대응과 혁신적인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제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가적 행위는 생산 활동에서 마케팅과 재무관리의 전반에 건친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미자·김중규, 2013: 59, 재인용).

첫째, 기업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력이 있어야 하면 도전적인 창업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까다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혁신력으로 기업의 위협요소를 발전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 중 특히 위협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장기적 사고력으로 단기 업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종업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초기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기업가정신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자원과 기회 등을 포함한 외부 환경 요소와의 관계 설정을 명료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업에 관한 티몬스(Timmons, 1990)의 성공 모델 **【그림 VI-1】** 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의 성공에는 기회(opportunity), 기업가(뛰어난 관리팀), 그리고 회사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자원(resources) 등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동 외, 2010: 36, 재인용).



【그림 VI-1】 티몬스의 창업 성공 모델(Timmons model)

*출처: Timmons(1990), 박동 외(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p.36 재인용.

우선 일등급의 유능한 관리 팀 구성을 중심으로 훌륭한 기업가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장 기회는 초기 창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가는 가급적 동일 산업 혹은 유사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예산과 이윤, 손실 등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리 경험도 중요한 산업적 노하우(know-how)가 될 수 있다. 마이그레이브가 지적하듯이 중요한 것은 창업 과정에서의 행운도 다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에서 찾아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실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ygrave, 2004: 5; 박동 외, 2010: 36-37 재인용).

또한 성공한 창업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수익은 낮게, 생산성은 높게, 그리고 자산 소유권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가는 자신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 실패 시 자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기업가(Young Entrepreneur)의 성공 요인 및 과정

(1) 청소년기업가의 성공법

최근 청소년 기업가의 한사람인 리스폴리(Rispoli)는 8세부터 35세에 이르는 청소년 또는 청년 기업가 100명을 면담하여 그 중 58명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기업가: 청소년 기업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삶, 성공, 번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The young entrepreneur: What YOUNG entrepreneurs can teach ALL people about life, success, and prosperity!)'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는데, 성공적인 청소년 기업가의 마인드셋과 성공법(recipes)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Rispoli, 2013: 11-23).

우선, 기업가의 마인드 셋(mind set)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며,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기업가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에 기여하는 사람이며, 기꺼이 일을 창출하고, 배우고 발생하도

록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가 또는 성공적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용기, 결정성, 환경, 기회, 열정, 행동력 등과 같은 여섯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용기(courage)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열성을 말한다.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운 열쇠의 하나는 이러한 용기를 갖는 것이다. 바로 지금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제 시작하라. 이것은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이다.

둘째, 결정성(determination)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 능력이며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실패하면 한발 물러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패배를 성공을 위한 기회로 본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도록 결심한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까지 거듭 시도할 것이다. 실수는 위대한 스승이다. 실수는 이전에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을 예기치 않은 기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실수는 또는 큰 배움의 기회이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환경(environment)은 자신의 주위를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성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람이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간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기분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우리 자신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있을 것이다. Bill Gates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다른 해박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Microsoft의 창출은 이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 성공적이고, 추진력과 야망이 있으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만큼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넷째, 기회(opportunity)는 기회를 찾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없는 일이나 상황들 사이에 연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기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창의적으로 되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어떤 사람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섯째, 열정(passion)이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내고 모든 일에 쏟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바람과 야심은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성공을 위한 불타는 바람을 개발하고 야심적이 되어야 한다. 단지 돈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임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행력(action)이다. 이것도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일한 특징이다. 위대한 생각은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한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실현시키게 된다. 비록 아이디어가 가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실현시킨다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VI-2】 성공한 청소년기업가의 자질

* 출처: Rispoli, A. (2013). The young entrepreneurs. p.11-23에서 연구자가 번역하여 인용.

(2) 청소년 기업가들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

한편, 또 다른 청소년 기업가인 사비룰 이스람(Sabirul Islam)은 25명의 청소년 기업가들을 연구하고 면담하여 '청소년 기업가의 세계(Young entrepreneur world)'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청소년 기업가가 되는 15가지 교훈(top 15 lessons)을 성공 사이클(cycle of success)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Islam, 2012: 242-247). 이스람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기업가들은 누군가로부터

착수하게 되는 영감을 얻었으며, 모두 교육을 통해서든 시험적 시도와 실수를 통해서든 어떤 지식과 이해를 얻는 과정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들의 성공은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잡아채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15가지의 교훈은 성공 사이클을 가지며, 이는 '발견(discovery), 개인적 브랜드화(personal branding), 그리고 시작하기(getting started)'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한다.

① 발견

첫째 모든 성공적 청소년 기업가들이 자신의 기업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진 것은 자기 신념(self belief)이었다. 자기 신념 없이는 성공을 성취할 희망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앞에 놓인 장애물과 도전이 무엇이던지 긍정적 접근법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념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것이었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동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를 가져야 하며 그래야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기는 하나의 추진력(a driving force)이며 계속 일을 끌어가고 시도하게 한다.

셋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동기를 가졌다면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은 장기적이지만, 작은 목표들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성취가능하게 보여야 한다. 인터뷰한 모든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었다. 청소년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멘토든,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목적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는 있지만,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도움을 받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내적 능력과 개인적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기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 목표, 일정, 보상과 위험부담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면 된다. 성공적 청소년 기업가들의 대부분은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키거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wealth)도 창출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적 브랜드화

무엇에서 자신이 뛰어난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강한 정체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개발하는 과정은 느리게 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첫째 단계는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의 토대(foundation)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수적이다. 우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의 이미지나 스타일, 어떤 모습 등을 만들려고 시작했으면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항상 브랜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디로 향해 가려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더 많이 자문할수록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의 강점과 깊이를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피치(pitch)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 자신의 목적, 자신의 비전이 중요하고 서술하는 15초, 30초, 60초의 피치(pitch)를 갖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기회는 자신에게 쉽게 올 것이며 구태여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한 개인적 브랜드를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브랜드로 정확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러한 자신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우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자신의 특징적 판매 포인트(Unique Selling Point) 즉, USP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USP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다수의 군중으로부터 우뚝 서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USP인 것이다. 자신의 목표 대상을 아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가 그들에게 의미를 가질지 아닐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넷째 단계는 가시성(visibility)에 관한 것이다. 즉, 자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부터 왔으며, 자신들의 가시성과 개인적 브랜드의 힘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가시성을 얻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 같은 같은 단순한 행동도 가시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회적 미디어의 효과적인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SNS의 힘이 대단한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이 점에서 보면, 단순히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 이상의 보다 전문적 수준에서 Facebook과 Twitter를 사용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의 성취를 가졌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지지 없이는 더 많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삶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멘토로 부터의 지지, 자신이 네트워킹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 접근법을 가진 일반 사람들로 부터의 지지를 얻는 것은 성공의 핵심이다.

③ 창업에 도전하기

다음은 실제적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먼저 창업발상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이다. 연구라면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연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연구 없이 시장에서의 참된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성공적인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계획수립이다.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며 자신이 비즈니스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비즈니스 계획에는 요약, 개요, 아이디어, 마케팅계획, 재정계획 등의 다섯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하기 중의 네 번째는 재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체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면 바로 재정문제로 뛰어든다. 그러나 재정투자는 단순히 투자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는다면,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가족, 친구, 금융기관대출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투자에 대한 성공적 대가를 줄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질 경우에만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기술을 발견하고 특징적인 사업체 아이디어로 강력한 개인적 브랜드를 가졌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람(Sabirul Islam)은 인터뷰한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이 이상에서 제시한 15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행 속도는 사람에 따라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따라서 왔다고 결론 맺고 있다. 성공한 청소년 기업가들은 모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쫓아 왔으며 모두 양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표 VI-1 청소년기업가의 성공에 이르는 단계

부분	단계	내용
발견	1	자기신념 -공정적 접근법 갖기
	2	동기 -일을 끌어가는 추진력
	3	비전 - “나도 할 수 있다” 는 신념
	4	도움 -멘토, 친구, 가족, 친척의 도움
	5	단순한 계획 -자신의 목적, 일정, 보상과 위험요소 포함
개인적 브랜드화	6	브랜드의 토대마련 -일관성·브랜드 비전·피치(pitch)
	7	자신의 궁극적 목적알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8	자신의 특징적 판매 포인트 알기 -자신만의 USP
	9	가시성에 대한 관심 -자신을 널리 알리기
	10	자신만의 네트워크구축 -다른 사람들의 지지 확보
시작하기	11	창업발상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
	12	아이디어에 관한 연구 -연구하기
	13	계획수립 -요약·개요·아이디어·마케팅 계획·재정계획
	14	재정 -자금 투자
	15	하나의 사업체 설립 -강력한 개인적 브랜드로 사업체 설립

* 출처: Islam, S. (2012). Young entrepreneur world, p.242-247에서 연구자가 번역하여 인용.

(3) 성공적 팀 창업가의 핵심적 특성

한편, 기업가적 과정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벤처투자자들은 단독 창업보다 팀 창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팀을 구성할 때에는 시너지, 팀워크,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Timmons & Spinelli(2009)는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특성을 <표 VI-2>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①배수의 진을 치고 사업에 임하는 헌신/몰입과 결단성, ②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집착, ③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정성, 건강,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도 기업가의 바람직한 태도에 포함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표 VI-2 성공적인 팀 창업가의 핵심특성

1. 헌신/몰입과 결단성(Commitment and Determination)
결단성/규율/원칙성
끈기,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집요함
전적인 몰입, 자발적 희생
2. 용기(Courage)
도덕성/실험정신
실패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위험상황에서도 생기는 강한 호기심
3. 기회에 대한 집착(Opportunity obsession)
기회 파악능력
고객욕구에 대한 지식/시장 지향성
가치창조 및 확장에 대한 집착
4. 위험, 모호성, 불확실성의 수용(Tolerance of risk/ambiguity/uncertainty)
계산된 위험감수, 위험 공유/분산/극소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구조에 대한 수용/적응
스트레스와 갈등의 수용/문제해결 및 대안 조정 능력
5. 창의력, 자생력, 적응력(Creativity, self-confidence, and ability to adapt)
비전통적인 열린 사고, 수평적 사고, 혁신성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추구
적응력/ 개념화 능력과 세심함
6.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Motivation to excel)
목표/결과 지향성, 성취와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에게 경쟁자보다 지원자라는 인식을 주는 능력
자신의 강점/약점 파악 능력/자신의 주관과 유머감각
7. 리더십(Leadership)
솔선수범/내재론자(남의 탓보다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실성과 정직성, 신뢰감, 인내력
팀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웅을 만드는 능력

* 출처: Timmons & Spinelli(2009), .배종태 · 차민석(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P.15 재인용.

3) 기업가정신의 약화 및 창업 장애 요인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1970년대 산업발전 초기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에 부응하여 재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벤처 붐을 타고 다양한 사업 유형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크게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겪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112).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113-4).

한편, 벤처기업인이 꼽은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저해 원인은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인한 사업기회 감소'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엔젤투자 등 초기창업자금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행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 부족', '벤처 투자 등에 대한 회수기회 부족', '위험기피 추세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다(이윤준, 2012: 88).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창업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창업 절차 등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멘토가 없기 때문', '창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 부족 때문' 등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청년층이 창업 시 겪는 주는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조달과 창업교육 및 멘토의 부재 등이라고 볼 수 있다(이윤준, 2012: 88).

결국 대학(원)생과 벤처기업인 두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주된 약화 요인 및 창업 시 주된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실패로 인한 위험기피 추세가 확대되는 현상과 연계하여 추론해 보면, 창업자금은 창업 실패 후 신용불량 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과 투자 중심의 자금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업가적 과정의 주요 성공요인을 요약해 보면, ①기업가의 경험, 리더십, 몰입 및 경영 능력, ②다양성을 포함한 기업가의 네트워크 능력, ③창업팀 멤버들 간의 조화와 시너지, ④성공적인 패턴인식을 통한 매력적인 기회 파악, ⑤기회의 창이 열려져 있을 때의 정확한 시점 포착, ⑥자원투자의 최소화, ⑦외적인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 113).

또한 벤처기업인은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인한 사업기회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창업자금 다음으로 창업교육 및 멘토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두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년층의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이윤준, 2012: 89). 동시에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관련 집단 간의 상생 멘토링으로 발전되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VI-3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약화 요인

활성화요인	약화요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F와 같은 국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와 적응력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 발현 계기 2. 부모의 교육열과 정부정책에 의한 고급인력 양성 3.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역할모형(role model)”으로 작용 4. 산업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벤처 육성, 새로운 사업모형 등장, 기업가정신의 발전 등으로 전개됨. 5. 1990년대 이후 기회창출과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6.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상호협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 조직간 인력이동 등 민간 부분의 자생적 발전과 역동적인 역할 7. 외국의 경험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업 정서, 노사갈등, 기업규제 등 경제외적으로 기업가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다수 존재 2.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에서 성숙기 경제로 이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기회 감소 3. M&A등 다양한 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벤처투자자에 대한 회수 기회가 IPO(기업공개)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를 약화시키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킴 4.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벤처 붐이 식은 후 기업가들의 위험기피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5. 벤처기업 중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우수한 창업팀을 가진 기업이 부족 6.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사업 관행도 여전히 상존 7. 대학의 역할과 역량,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전문성, 제조업 공동화 우려 등 산업구조의 변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지원 하부구조와 아키텍처(architecture), 문화 등에서도 미흡

* 출처: 배중태·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 and 활성화. p124-125 재구성.

4) 창업 실패 요인 및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인 사업가들 모두에게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비교’ 결과를 보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동의수준은 평균값 5점 만점에 3.20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안선영·김희진, 2011: 50).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사업실패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비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일단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도 사업종결과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이 불안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 실패로 인해 조기폐업과 영업수익률 부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5인 이하 사업장이 적자가 28.6%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사업장도 5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2012)의 조사에 따르면 약 10명이 창업을 했을 경우, 2~3명 정도만 사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7~8명 정도는 실패한다는 것이다(이미자·김중규, 2013: 57).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창업을 통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사전에 철저한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실패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창업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높은 창업 실패율,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벤처캐피탈 시장의 기능 위축,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다(하규수, 2013: 46-48).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부정적인 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 노력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동 외(2010)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34.0%)', '창업실패 시 재정적 부담', '경영 및 기술 부족(11.6%)', '창업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창업 활동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창업교육의 활성화(29.9%)'를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창업 활동 자금 지원(26.4%)', '창업 활동 관련 정보 제공(23.0%)' 등의 순이었다(박동 외, 2010: 82).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86.4%가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 중 창업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21.9%에 불과한 실정이다(박동 외, 2010, 이윤준, 2012: 90, 재인용). 따라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관련 기관의 보육과정 및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과정이 병행된다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진입장벽(entry-barrier)의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퇴출 장벽(exit-barrier)과 사업종결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는 창업가들이 사업 종결 시 부담해야할 금전적 비용, 비금전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시스템 불안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실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실패 비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하규수, 2013: 44).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창업 실패의 과정과 손실 비용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패한 창업가의 경험을 거울삼아 유사한 실패를 피할 수 있거나 실패확률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사업종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창업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교육모형 개발³¹⁾

1)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모형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은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된다. 이에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가정하며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시스템과 교육모

3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연구 I”의 연구팀 중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두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주도형 교육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개별 이익집단(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 등)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단위 프로그램들이 협력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영역

① 핵심적 교육요소 및 개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영역에서 주요학자(Certo et al., 2009; Dess & Lumpkin, 2006; Covin & Slevin, 1991; Miller, 1983)들은 다음 <표 VI-4>과 같이 핵심 교육요소와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보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4 기업가정신 함양 핵심 교육요소 및 개념

핵심 교육요소	개인 및 조직구성원 역량	개념	학교급별 교육과정 주제어 추출	교육영역
혁신성 (innovativeness)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세스 창출 방안 제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과 태도	유치원: 초등(저학년, 고학년): 중등: 고등: 대학교:	지식: 태도: 기능:
진취성 (proactiveness)	미래 조직요구 예상 및 대응, 선제적 사고능력 제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자적 진취적 특성	상동	상동
위험감수성 (risk taking)	낮은 성공가능성 일지라도 높은 이익창출 가능	예측 가능한 결과의 지식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 프로세스에서	상동	상동

	전략제안, 개인적 손실 감수 및 극복 마인드	구체적인 자원을 몰입하고 실행		
자율성 (autonomy)	단계적 규정이나 요구에 따르는 것 보다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로 의견제시와 개인적 과업을 진행	개인이나 팀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감각능력, 조직의 관료주의적 관점과 행동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상동	상동
경쟁적 공격성 (competitive aggressiveness)	경쟁자의 활동 예측과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며 집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성향 - 개인이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준비하고 행동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상동	상동

* 출처: 배종태 외(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p.34, p.67 참고 수정.

단, 학교 교육과정에 활용한다면 핵심 교육요소의 주요 교육내용은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등, 대학교) 그리고 영역별(지식, 태도, 기능)로 추출하고 정리하여 교과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Chrisman 등(1998)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 <표 VI-5>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인성적 특성, 가치와 신념, 능력, 경험 및 교육, 행동적 특성 등의 세부항목들도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해 개인적인 특성과 자질, 역량, 경험 등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VI-5 기업가 개인적 특성 요인 및 세부 항목

기업가 특성	세부 항목
인성적 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	자율성(autonomy), 자신감(confidence), 성취/소속/권력욕구(need for achievement/affiliation/power), 위험감수성(risk-taking), 모호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ambiguity) 등
가치 및 신념(values & beliefs)	사회공헌(contribution to society), 권력(power), 안전(security), 신분(status), 부(wealthy) 등

<p>능력(skills)</p>	<p>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s), 대인능력(interpersonal skills), 관리/생산/마케팅/기술/재무적 능력 등</p>
<p>경험 및 교육(experience & education)</p>	<p>연륜(age), 부모의 창업경험(entrepreneurial parents), 창업경험(experience in founding organization), 대기업 경험(experience in high-growth organization), 유사직위 경험(experience in similar positions), 공식 교육정도(formal education), 일반 관리경험(general management experience), 산업경험(industry experience), 창업적 훈련(pre-startup training) 타 창업자와 경험공유(shared experience of founders)</p>
<p>행동적 특성(behaviors & decisions)</p>	<p>문제의 핵심집중 능력(ability to focus of essentials),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 유연성(flexibility), 목표지향성(goal direction), 업무시간(length of work day), 경영방식(management style), 조직화(organizing),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등</p>

* 출처: Chrisman et al. (1998), 배종태 외(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p.64-64 재인용.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청소년들의 발달단계, 개인적 특성,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핵심 교육요소와 세부항목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교육방법 및 전략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은 실제적인 학습과 활동이 함께 제공되고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개척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향은 <표 V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각 교육 영역별로 공통 및 차별화된 기업가정신 핵심 교육요소와 개념 등을 발췌하여 교수-학습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VI-6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학교급					핵심 교육주제 및 개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기업가정신							공통: 학교급별 특별:
진로 및 창업역량 강화				중등	고등	대학	공통: 학교급별 특별:
인턴십 및 창업 기회 제공					고등	대학/대학원	공통: 학교급별 특별:

단계적인 교육과정 방향을 설정 후 각 교육영역별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핵심 교육요소와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그 방법 및 전략 등이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내용이 중·횡적으로 연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과 학년별로는 <표 V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안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과 프로그램을 주요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술·체능,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제·금융·경영, 그리고 기술·산업(공업/농업/상업)영역 등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관심영역을 선택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여 교실 안과 밖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주요 5개 프로그램 영역에서 실제 활동을 통해 체험화시키는 과정을 갖고 대외 활동을 위한 준비도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학년별 또는 학생의 능력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등이 준비·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VI-7 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역량 개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영역

단계	학년별 구분	활동 및 프로그램 영역
1 단계	유치원, 어린이집 6~7세 - 초등 저학년(1-3학년)	예체능 영역
2 단계	초등 고학년(4-6학년) - 중등 2학년	인문·사회과학 영역

3 단계	중등 3학년 - 고등 2학년	자연과학 영역 경제·금융·경영 기술·산업(공업/농업/상업)영역
4 단계	고등 3학년 - 대학교 2학년	
5 단계	대학교 3-4학년 - 대학원 이상	

그리고 학생들의 교내 체험 및 실습 활동은 지역사회 내 각 영역별로 전문 기업과 기관 및 단체들과도 연계하여 전문 담당교사나 멘토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개인별 또는 소속 동아리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그 활동의 영역과 범위도 확장하며 차후 평가와 인증을 받고 대학입시, 취업, 또는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안은 중등단계 이상에서 구성할 때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선진국가들의 기업가정신 교육내용 등도 참고하며 교육내용이 학습, 실습, 체험, 인턴십, 고용, 창업 등의 과정에서 활용·응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혁신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과정이 운영됨에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지원하며 함께 발전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학년과 학교급별로 주요 교육내용 및 그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VI-8>과 같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타교과목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단독 교과로도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개인별, 동아리별로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함에 지역의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표 VI-8 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주요 교육내용과 전략

학년 기준/ 단계	주요 교육내용	교육 전략
5단계 대학교 3, 4학년 - 대학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활동 • 창업을 위한 경영 • 시장 및 사업현장 탐구 • 취업준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기관의 연구소와 팀워크 •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 • 전문가 멘토링제 • 중고등 동아리활동 지원
4단계 고등학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활동(창업 준비 및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아이템 및 콘텐츠 개발 콘테스트

<p>학년 - 대학 2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현장 실습과정 • 법적 제도적 창업실제 •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 등 교육 2 • 창업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 취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국내외 창업 동아리 연계 • 글로벌 기업 인턴십 개척 •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인턴십 활동 • 지역 인·물적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멘토링제
<p>3단계 중등 3학년 - 고등 2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실현 실습 • 진로교육: 설계 • 아이디어 발굴 •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 등 교육 1 • 창업설계 및 절차 • 그룹별 특성화된 동아리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지역사회 동아리 활동 전개 •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습기회 제공 • 기업가정신 강화 • 개인별, 팀별 진로설계 활성화 • 학부모 및 전문가 동아리 멘토링제 도입
<p>2단계 초등 고학년 - 중등 1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핵심내용 교육 • 진로교육: 인식 및 탐색 • 다양한 동아리활동 전개 및 프로그램 참여 • 경제 및 소비자교육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동아리 활동 전개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 학부모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 • 학부모 전문가를 활용한 동아리활동 봉사
<p>1단계 유아 6,7세 -초등 저학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기초 및 일반내용 교육 • 경제 및 소비자교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경제 및 소비자교육 전개 • 기업가정신 교육(초급단계 내용) • 학부모교육 제공

이 교육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 다양한 영역의 벤처 사업가, 활동가,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기업가정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반 주요 교과목과의 통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학년과 학교급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대학교 단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방안

대학 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전공영역을 학습하고 학내 연구소나 센터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대학 내 창업지원 시스템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공과목이나 특수 분야의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에 매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담당 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지역사회 내 대학생 창업 동아리 등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들 중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와 연계하여 멘토링 형태의 동아리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는 초등 및 중등학생들에게 차후 자신의 활동영역을 알게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입장에서 어린 학생 동아리를 멘토링 함은 자신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양한 대학생 동아리들이 특성을 살려 자발적인 창업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창업 동아리 경연대회나 아이디어 발굴 콘테스트 등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회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동아리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의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체계적인 초기지원(예산, 홍보, 마케팅, 생산 등)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학의 동아리들이 실습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창업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장소와 공간 그리고 예산을 제공하여 대학생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아우르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은 총체적인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참여 핵심주체들은 시·군 단위의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의 창업센터, 기업·기관·단체, 학부모, 전문가협의체 등이다.

교육모형은 교육의 핵심인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초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이 교육모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모, 기업, 기관, 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수월하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교육모형이 자리 잡도록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 창업센터, 기업·기관·단체·전문가협의체 등이 제도적으로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이 지역사회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요 핵심주체들이 다음에 제시된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전문교육 행정 기관이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동아리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구축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에 지역 교육지원청은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을 위해 교사교육 및 연수, 학부모교육,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등의 자원과 인력의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표성을 띄고 일선 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기업가정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예산지원과 평가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를 만들고 전문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웹에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활동 전문가들이 등록하여 학교 동아리 등과 매치하여 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나 강사 인력 풀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해 줄 수도 있다.

(2) 학부모동아리위원회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가칭 ‘학부모동아리위원회’를 구축함이 요구된다. 학교를 단위로 구성된 학부모동아리위원회는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영역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또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특정영역에 재능 있는 전문가 학부모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차후 인턴쉽 등의 활동현장을 직접 관장하며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또한 학부모동아리위원회는 지역사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문화적 환경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활동주체로서 앞장선다.

(3) 학교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내용과 가치, 태도, 자세 등을 함양하는 활동은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습득하고 체험한 학습내용을 실제 활용하는 단계로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동아리가 대학이나 기업을 통해 외부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전문 동아리 담당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하여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의 유사한 대학생 동아리와 연계하여 동아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입시와 연계하여 대학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의 동아리활동을 한 예비 입학생은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에서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학교는 연구소, 실험실, 전문연구자들을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는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서 동아리활동에 인·물적 자원을 지원받고 진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학습과 활동의 장을 경험하도록 함은 중요하다. 또한 거점대학은 지역의 학생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지역사회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과 네트워크하며 청소년들의 동아리와 창업활동 등을 격려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지역 내 대학들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을 위해 동아리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은 물론 지역의 기업 시설이나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특성화된 동아리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와 연구진이 멘토로 활동하며 기업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동아리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안정된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대학, 기업, 지방정부 등이 협력하여 '창업 인큐베이터'가 될 공간과 장소, 그리고 예산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동아리 거점대학의 전문 멘토 교수와 기업 전문가 등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 단계의 창업 동아리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지역사회 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집단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창업센터

지역 창업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학생과 청소년들의 모든 동아리 활동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동아리를 활동별로 분류하고 창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창업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다. 정부 부처별 창업지원 제도와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여 팸플릿을 만들고 홍보하여 학생 동아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동아리의 경우는 그 예산의 지출과 결의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도 센터가 수행해야 한다. 특히, 창업센터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창업을 위한 특별교육과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전문가집단, 학교, 기업/기관 등과 중개자 역할을 하며,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원과 활동이 되도록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

(5) 기업 및 기관, 단체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은 학생들에게 활동과 실습의 현장, 전문 인력 제공,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과 창업센터의 웹사이트에 자신들만의 전문기술과 자원영역을 등록하고 학생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된 기업이나 기관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는다. 기업이나 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창업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원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방학 중 기업에서 인턴십이나 창업,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실습, 인턴십, 또는 창업지원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그 노력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과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어 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6) 전문가협의체

전문가협의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활동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정부,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제공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인력풀 활용, 전문 강사 활용, 예산 및 자금의 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평가하며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전문가협의체는 기업, 기관, 학교 등에서 대표성을 띠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에 10명 내외의 추천된 전문가들로 선정한다. 이 협의체에의 활동과 회의 등에 일부 학생 동아리 대표들이 참석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평가 등을 종합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영역별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하고 총평가에 대해서 보고서와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추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에 선정된 전문가는 2-3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하며 지역사회 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모든 교육, 지원과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중립적인 대표집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이 협의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그 노고와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본연의 책임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정신 교육모형의 실천적 추진 전략

지식·정보화 시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사회·경제 체제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앞서 예측한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하며 세계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할 인재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 선진 국가들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잠재적인 공급자이며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경제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고 단계부터 제공하며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한다(이윤석 외, 2012; 정차근, 2013; 한문성 외, 2010; 창업진흥원, 2009).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의 청소년들도 새롭게 교육받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내용과 프로그램 등이 매우 부족하며 그 토대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조성과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모형이 필요하며, 모형을 기초로 협력지원 시스템을 지역사회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은 기존의 진로·창업교육 등과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청소년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교육제도와 정책, 학교교육, 사회적 현실 분석,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 예측 등에 대해 통합적인 논의와 점검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은 준비·제공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을 위한 방법과 전략은 단계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진로·창업 교육 등과 함께 어우러지며 다양한 교육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여러 참여 주체들이 수평적·수직적으로 동시에 상호 연계하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주도형’ 교육모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은 지역사회 내 참여 가능한 이해집단들이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분야별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센터’를 중앙단위에 신설한다. 또한 지역의 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창업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의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부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수립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기업, 기관 등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책자를 배포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창업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에는 전국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부부처의 예산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조정·평가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의 센터는 지역의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 및 활동이 활성화될 수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하며 필요한

전문가를 소개하고 프로그램 등을 전달한다.

넷째, 기존의 진로 및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교과서, 가이드북, 활동 지침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부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의 양성 및 현직교사의 연수를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교육지원청과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을 위한 직업적인 전문 강사 및 활동가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활동을 지원, 관리,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들은 중개자로서 지역의 창업센터, 학교, 기업과 단체 등과 교섭하여 교육과 활동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낸다.

여섯째,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평가를 위한 모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기업 및 기관은 평가를 거쳐 인증하고 시설 및 인·물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학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지원청과 평생교육센터는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2회 정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시대적 변화를 알고 청소년들이 미래 삶과 진로를 개척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³²⁾

-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 벤처스타 (Venture 'STAR') -

전 세계교육은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대세이다. EU의 오슬로 아젠다(2006)에 의하면, 전 유럽국가의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3분의 2가량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경쟁력 최상의 국가들은 초, 중, 고부터 기업가 정신을 의무화 교육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모든 국가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였

3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연구 I" 의 연구팀 중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밝혀둠.

다(한문성 외, 2010: 55-70, 87, 이민화, 2013: 18).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적 추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의 실행은 아직 초보 단계이다. 기업가 정신 및 창업활성화 정책에 있어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교육, 자금지원, 멘토링 및 창업보육, 패자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갖추어져 있으나, 실효성이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초중고 대상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며, 대학은 LINC(산학협력 선 도대학)사업 등을 통해 시작단계이다. 유럽국가가 초등교육 단계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전환 즉, 패러다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연구원의 2012년 정책연구에서 보면, 청년 창업 지원정책 창업 교육.멘토링 시스템 구축하고 창업영재교실 운영 초, 중, 고 정규교과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 창업영재교실운영, On-Off Line 멘토링 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멘토단 D/B 구축 및 관리, 온라인 상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이윤준 외, 2012: 10)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5월 21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수요조사(4.16~21) 및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기술대(5.23~25)를 시작으로 전국 37개 센터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센터별 25~50명 교육)한다고 밝혔다. 14년도에는 Kauffman 재단³³⁾(미국)의 PEV(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를 우선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KAIST 등 지역별 과기특성화대학의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실시될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가적 실천과 다양한 시도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의 적응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중·고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창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며, 학교 영역 내의 '비즈니스',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은 중소기업청의 '비즈쿨(Bizcool; Business School)' 사업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행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벤처스퀘어, 2013).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일부 단체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교육이나 진로교육의 차원을

33) Kauffman재단: 1966년 설립(총자산 2.5조원: '12년)되어 창업초기 기업 및 대학생, 청소년 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 비영리기관('93년부터 약 30만 명 교육)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동그라미 재단, 카이스트 등에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재교육을 위한 과정이나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양상은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에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분석하고, 국외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제교육이나 실무적인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격적인 발달을 돕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도전정신과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요구되는 도전정신과 전인적인 성품을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적용을 위해 체험적·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셋째, 청소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등 관련 기관 연계되고 필요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한다.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 Boone(1985)의 프로그램개발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프로그램개발의 영역을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 평가와 보고(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등 네 개의 범위로 설정 되어 있다(Boone, 1985: 김진화, 2009: 141-142, 재인용). 본 연구는 Boone의 모델에서 제시된 네 단계의 절차 중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되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청소년, 기업가정신, 창업역량’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국내 외 사례연구와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카우푸만재단), 유럽 사례 및 국내 모범 사례 중에서 동그라미 재단, 비즈쿨, 카이스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으며, 기업가, 청소년창업교육 담당자, 기업교육담당자 등 현장교육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내용을 유추해 보았다.

(2)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 함양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사례분석, 현장 교육담당자의 자문, 청소년의 전인성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토대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지도방법 및 운영 설계안을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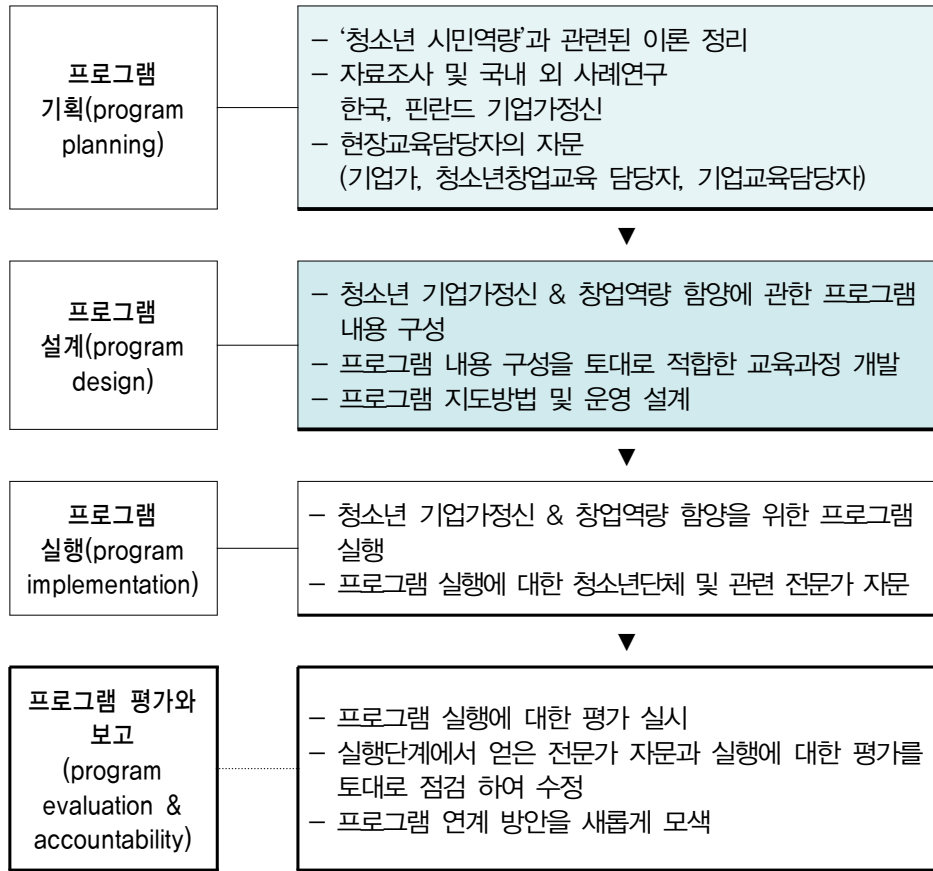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은 프로그램 개발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행해 볼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 전 단계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4) 프로그램 평가 (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실행단계에서 얻은 전문가 자문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검 하여 수정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림 VI-3】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 개발’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체험적 학습

창업교육은 그 특성상 비정형적인 자유형의 교과과정에 기초하여, 흡수식 지식획득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기인한 체험적 학습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창업교육은 흥미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 평가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며, 참여 학생의 흥미도는 동기부여를 자극하기 때문에 창업교육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강인애 외, 2011: 156,159).

아래 그림은 미국의 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의 학습 피라미드(learning pyramid)이다.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라고 하는 이 그림은 EBS에서 제작한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되어 학습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가 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야 실제 행동으로 해 본 경험이 더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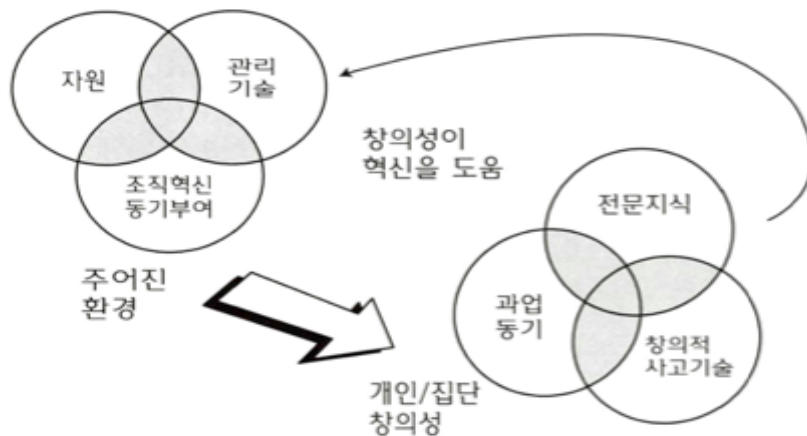
【그림 VI-4】 학습피라미드

* 출처: NTI, Learning Pyramid, from <http://simrihak.tistory.com/90>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할 때, 필요한 역량과 기술은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 사업기획력과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나갈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기반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협동능력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도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업발표를 한 팀에게 긍정적 보상을 주는 등 적당한 경쟁상황 속에서 체험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강인애 외, 2011:160, 171).

(2) 자기주도적 학습

아마빌(Amabile, 1997)은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개인적으로는 내적 동기유발, 과업관련 기술과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며 혁신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원 및 혁신관리기술이 개인 및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과업 환경적 요소들이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가치, 위험 선호성, 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믿음, 공격적인 전략, 능동적인 의사소통, 창의적 과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 등을 혁신동기부여의 주요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림 VI-5】에서와 같이 개인지도의 방향이 창의성과 혁신의 가치를 직접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에 적합한 지도방법은 학습동기의 발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181-182, 재인용).



【그림 VI-5】 창의성과 혁신의 구성요소 모델 T.M.

* 출처: Amabile(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182, 재인용

(3) 문제기반학습(PBL)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교육학적 이론(주로 PBL / CPS을 중심으로)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창업이나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시도되어야 하며, 여기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송정현,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독자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교육학적 이론인 문제기반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 PBL)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PBL은 지난 60여 년 동안 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다. 1950년대 중반에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교수 학습 방법이다(Geoff Norman, 2004).

PBL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의과대학이었지만 이후 경영, 교육,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고,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등학교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PBL은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특히, 21세기의 사회에서 고차원적 추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기능,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지식의 구성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접목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최정임, 2007: 36 ; 최정임·장경원, 2010: 17).

김기태(2012: 67-68)는 PBL의 설계 및 적용 사례연구에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중심 학습법의 목적과 효과를 앞 선 연구들을(강인애 외, 2003: 75)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창의적인 높은 차원(higher-order)의 사고를 하게한다.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정의, 정보의 수집, 자료의 분석,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스스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learning how to learn)하게 한다.
-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가능해진다.
-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분석하여 그에 필요한 학습과제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실의 범주를 벗어난 자신의 실제 생활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시킨다.
- 동료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조화롭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협력학습 능력 배양.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시킨다.

최근에는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ePBL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PBL을 적용한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PBL은 전통적인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긍정적인 학습태도 및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최정임, 2007: 36).

② PBL의 절차

PBL의 형태와 절차는 PBL을 적용하는 대상과 기관의 특성, 학습목표, 교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PBL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초기 의과대학에서 활용한 PBL의 절차이며, PBL의 실행을 위한 공통적인 절차이다. 다음은 초기 PBL이 적용된 McMaster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최정임, 장경원, 2010: 22-33).

- 문제제시: PBL의 첫 번째 단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수업에 사용할 문제를 미리 준비해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이 문제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관련성과 동기를 제공하며, 문제 이해를 위해 전공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학습활동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는 실재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시되어야 한다.
- 문제 확인: 문제가 제시된 후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그룹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해결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와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문제 제시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 문제해결안 발표: 문제 재확인을 통해 그룹별로 최종 문제해결안을 만들어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해결안을 발표한다.
-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PBL 학습결과를 정리하며 학습결과와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룹별로 제시된 문제해결안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수행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제기반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PBL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론이다. PBL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변화와 탐구 중심의 환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그룹이 잘 구조화 되어 문제를 분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Dalrymple et al. 2007).

PBL 그룹의 목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특히 소그룹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고 소그룹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진행 과정이 PBL의 성패를 가른다. 그러므로 그룹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체계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중요하다.

그룹의 활동은 집단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 역학 혹은 역동은 변화한다. 효과적인 PBL의 진행을 위해 그룹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로 집단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Holen, 2000: 486). 그러므로 PBL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자,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그룹의 구성원들 간의 역동과 각 그룹 간의 긴장감이나 경쟁 등을 PBL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중재해야 한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1)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면서 본 프로그램의 명을 ‘벤처스타 (Venture Star)’로 명명하고자 한다. 벤처스타는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인 체험학습, 협동학습, PBL을 프로그램의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의 핵심사항인 기회, 자원, 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성공한 창업가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할모델을 설정하여 셀프멘토링, 지역사회 멘토링을 실제로 실시하고자하는 원리로 구성 되었다. 【그림 VI-6】은 벤처스타 프로그램의 전체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VI-6】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2)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앞서 논의된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특성은 교차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더십과 책임의식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창조적 혁신을 위한 학습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과 관련한 핵심적 요소를 기반으로 <표 VI-9>의 벤처스타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표 VI-9 벤처스타: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구성 및 근거

벤처스타 주요 주제	기업가정신	창업역량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적 역량
기업가 정신	기업가적 정신과 포부를 갖기 위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수반됨을	철저한 준비와

	기초적인 인식- 자기성찰과 도전정신	인식,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모색함	결단력
혁신과 극복	기업가 정신의 기본 원리인 진취성, 도전정신, 혁신성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	강한 인내력 집중력
창의적 실천	인간관계, 협상능력, 팀워크 10,000시간의 법칙: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 배양 분석적, 전략적 사고능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 지속적인 학습능력
벤처스타 리더십	기업가정신의 실천과 창업을 위한 기업윤리	경제실무 정리, 적용, 실천	기업가로서의 가치관, 자신의 가치를 브랜딩하기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기반으로 '벤처스타' 12회기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을 제시하면 <표 VI-10>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고학년의 단계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표 VI-10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벤처스타 12회기 주제 및 내용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제목		프로그램 목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위한 삶의 자세	1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필요성을 사례를 통해 인식한다.
	2	기업가의 생활백서	기업가가 되기 위한 생활 방식의 이해하고, 스스로 습관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얻는다.
	3	기업가의 비전-앞으로 기업가를 '벤처스타'로 명명하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로 인식하기	기업가 정신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도전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설정한다.
기업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분석	4	벤처스타의 시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지구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넓은 시선으로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고 실천방식을 모색한다.

	5	벤처스타의 전략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6	벤처스타 분석	SWOT 분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한다.
기업가의 자기경영	7	벤처스타의 목표관리	목표관리 방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자기 경영의 과정에 활용 한다.
	8	벤처스타의 시간관리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활용 방법을 익힌다.
	9	벤처스타의 인맥관리	기업가 정신은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네트워크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벤처스타 리더십	10	벤처스타의 창조적 기업 만들기	마인드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잠재력과 주변 상황을 연계하여 새로운 기업(창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11	나의 브랜드	각자 구성한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창출해 본다.
	12	벤처스타 리더십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결국, 리더십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벤처스타 리더의 삶을 실천하고 적용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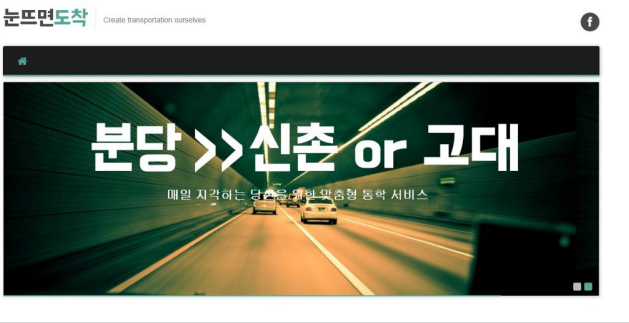
(3) VENTURE STAR :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

‘VENTURE STAR’ 전체 프로그램 중 ‘1회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용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시간은 120분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표 VI-11>와 같은 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

표 VI-11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 1회기

1회기 : 기업가 정신	
주요 내용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과정은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자신의 현장과 연결해 보는 시간이다.
지도방법	문제기반학습(PBL): 자기주도학습, 체험학습
프로그램 목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은 일상적이며 근접한 개념임을 인식한다.

□ 대상 : 고등 1, 2학년		□ 진행 형태: 소그룹 지도 방식 (20명~40명 내외)
★ 프로그램명 : 기업가정신		
진행 순서	시간	내 용
도입	20'	<p>☆Tip : 프로그램진행자의 첫 인상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릴 자신만의 멘트를 작성하여 활용해 봅시다. ex) “오리우리 오리있는 사람들은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벤처스타” 맛보우리~!!“</p> <p>(1) ‘기업가정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써 봅시다. (2) 공통된 주제의 단어끼리 묶어 보고 비슷한 주제별로 모둠을 만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3) 각 팀에서 한 명이 발표해 봅시다.</p> <p>☆Tip :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서 자연 스럽게 모듬이 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첫 번째 활동이 예상시간 시간을 초과 한다고 해서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충분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전개 - PBL	70 ‘	<p>(1) 문제제시</p> <p>-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문제는 청소년 참가자에게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관련성과 동기를 제공하며 문제 이해를 위해 학습해야 할 사 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학습활동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 도록 문제는 실재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시되어야 한다.</p> <p>★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눈뜨면도착 Create transportation ourselves</p>  </div>



눈뜨면도착 공동대표 박주혁씨의 이야기

(출처: 유튜브 <http://youtu.be/1PeqlFvif3c>)

분당에서 신촌까지 1시간 30분. 출근시간 만원버스에 치여 지친 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통학을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대학생 통학 프로젝트 “눈뜨면 도착”, 학생들로 부터 시작된 작은 시도지만 지역주민들이 SNS에서 모여 노선을 만드는 “커뮤니티 버스”는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눈뜨면 도착’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주혁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기업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문제확인

- 문제가 제시된 후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확인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그룹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해결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Tip : 각 모듈별로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주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와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Tip : 각 모듈별로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시청하고 분석 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눈뜨면 도착 홈페이지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 문제 제시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Tip :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5) 문제해결안 발표

- 문제 재확인을 통해 그룹별로 최종 문제해결안을 만들어 각 그룹별로 준비한

		<p>문제해결안을 발표한다.</p> <p>★Tip: 성공요인 - 긍정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함, 문제인식,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기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함 : SNS를 적극활용,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정신, 책임감, 승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함,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등...</p> <p>- 이러한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기업가정신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상적으로 보이던 ‘기업가정신’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학생, 자본의 부족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불편함, 네트워크 등)하여 자신의 목표(통학이 불편한 대학생들을 도움)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긍정성, 책임감 등)과 행동양식(구체적인 실행력 등)이다.’</p> <p>-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어들은 이미 각 팀별로 정리한 부분과 일치함을 참가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p> <p>★Tip in Tip : ‘기업가 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다.’</p> <p>-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의를 한 페이지 가득하게 큰 글자로 출력하여 단어 단위로 잘라서 학생들 모둠에 전해주고 각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팀에게 상품이나 보상을 해주면 효과적으로 개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 및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6)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p> <p>- PBL학습결과를 정리하며 학습결과와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학습결과의 평가는 그룹별로 제시된 문제해결안에 대한 지도자와 참가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수행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p> <p>☆Tip :</p> <p>- 같은 문제이지만 팀별로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p> <p>-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팀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p> <p>- 개별적인 성찰과 느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발표합니다.</p>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며, 기업가정신의 실천 자체가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이 되었다. 청소년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청소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실천을 위해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으로 정의하며 연구가 시작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 개발자의 능력과 정책, 선행연구를 참고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도전이 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창업적, 창조적 과정이다.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현재의 자원이나 능력을 뛰어 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전인성과 도전정신, 자율성의 회복을 위해 시도이다. 청소년이 이 사회에 단지 적응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출발점에 있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급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방법 등에서 다양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체험학습연구소 김정주 소장은 “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등으로 진로관련 교육이 많아져서 수요가 있을 것을 생각되고,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창업 프로그램을 개별 시설단위에서 여가부나 경기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³⁴⁾ 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 수요가 증가 될 것이라고 보며, 어느 때 보다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병일 외, 2013). 기업가정신은 지속적인 발전과 가능성의 요체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과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겸비한 청소년을 기대해 본다.

34) 본 프로그램에 관한 체험학습연구소 상임이사 김정주 소장의 논찬 원고에서 발췌함.

제 VII 장

정책제언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방향
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단계별 추진 전략
3. 청소년 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 연계 방안
[2015-2017 추진]

제 VII 장

정책제언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방향

창조경제의 국정전략은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도전정신과 아이디어 창출력, 혁신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처한 청년실업 위기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은 학문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업가정신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이자 접근방법이며, 아울러 행동과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문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욕구, 위험부담의 감수, 개혁성, 통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는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의 역량이 관련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동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차원의 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로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장애 요인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지원에 대한 지금까지와 차원을 달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리개발과 실천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시의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방안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주체들 간의 인식 공유 및 실천 합의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질적 양적인 측면 모두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학교 및 민간 영역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주로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위주여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이 주요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 주체들 간에 이 개념에 합의가 미흡한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 3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시의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체들 즉,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교육기관 및 부처들 간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이 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반기업정서 의식이 높고(창업진흥원, 2009),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한문성 외, 2010).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이 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공유와 인식 확산을 기반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육적 합의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의 체계적인 개발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며,

주로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활성화와 보다 다양한 진로 개척, 경제활동인구 전반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교육과 창업교육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관련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콘텐츠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이 아닌 기업가적 사고방식 및 태도 더 나아가 행동양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은 기업가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과 연관된 것으로 일시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정규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밖 외부 프로그램들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하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이론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 실습, 견학 및 체험, 캠프, 경진대회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통합 교육프로그램 형식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역시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 개설과 함께 방학 후, 주말, 방학 프로그램 그리고 특별활동(연구과제,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관한 독립교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현재 중고등학교 정교교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의 한 단원으로 편성하여 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진로와 직업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포함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연계할 경우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실제 창업 경험과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과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인력활용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학부모 사전 교육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지역단위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 있는 접근 방식으로 다각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체제 구축

앞서 언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교육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유사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복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예산활용과 사업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정부기관들과 민간 기관들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 간 연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경향이 있다.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주체들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접근 방안으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과의 후견인, 전문 강사, 사업장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 역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창조경제시대 도입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또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및 창업교육은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불릴 수 있는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규교육과정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일부 편성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교원 양성과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및 창업교육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풀 확보와 현재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실천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자원지도를 작성하고 기업가들에 대한 인력풀을 전문 분야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6)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없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청소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사회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체제에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바로 끝없는 도전과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더 및 구성원들 스스로 리더를 키우는 리더십의 발현, 조직적 차원에서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문화의 조성, 정부 및 대기업과 각 기업가정신 기관들의 제도적 정비와 노력 이러한 요소가 삼위일체로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인재양성과 활용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체험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함양되고 실천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와 실천이 기업가 정신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검증해 가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지원 단계별 추진 전략

<p>목표</p>	<p>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 변화 주도 능력 강화</p>
<p>전략</p>	<p>단계별 실천 과제[2015-2017년 추진]</p>
<p>청소년 발달단계별 기업가정신 학습체계 구축 [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 기초단계→역량인식단계→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 운영 ■ 대학생 :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창업단계→성장 단계로 운영 ■ 지역 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과정 운영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확대 ■ on-off 라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 멘토링 시스템 구축
<p>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5-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교육·훈련 전문 인력(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양성체계 구축 ■ 예비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인턴·엔턴 제도 운영 ■ 창업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엔젤창업매칭펀드 조성 및 운영) ■ 대상별·영역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
<p>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지원 기반구축 [2015-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기업가정신 교육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인프라(청소년 기업가정신 지원센터 등) ■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실패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청소년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과 적극적인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상담, 체험학습, 캠프 등 ■ 다양한 청소년활동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시행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4. 7.).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안)중 IV.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에 제시된 모형 참조.

1) 생애 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 강화[2015년 추진 과제]

(1) 현황

기업가정신은 '현실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회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성취해가는 기본정신'으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관련 개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초·중·고 과정에서는 주로 기본적인 경제개념과 및 시장의 원리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기초 교양수준에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마련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비즈쿨(Bizcool, 2002)을 계기로 2014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학생 선택프로그램: 미니컴퍼니 경영'에서는 학생과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등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경영 CEO 조기 육성, 청소년 단계별 창업 경제교육체제 마련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실전형 모의창업시뮬레이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애 전주기적 측면에서 단계별 표준화된 교육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립한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전주기적 기업가정신 학습체계 강화' 전략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대책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책 및 추진방안

- ① 초·중·고등학교: 기초단계→역량인식단계→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생애 주기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 운영

기업가정신 핵심역량 및 단계별 성과목표 마련 국내외 여러 교육과정을 참조, 시범적용 및 보완을 거쳐, 향후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설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공개한다.

또한 초중고에서 대학생과 일반청소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목표 및 학습내용을 체계화시킨 기업가정신 학습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 학교 급별 관련 교과 성취 목표와 성취수준에 맞게 체험활동 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팀원들과 협력하여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도록 내용을 설계한다. 나아가 협력과 검증을 통해 찾은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면서 실행능력, 팀워크, 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는 커리큘럼 마련 시 진로교과 위주로 하되, 교육과정 수준에 따라 기업, 경영 및 경제지식 등의 내용은 경제관련 교과에도 편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는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11년부터 이미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별도의 인정교과서를 제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초중고 전체학교에 적용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역량 교육의 차별화와 체계화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즈쿨(Biz-cool) 프로그램 대상학교를 매년 약 5% 정도 확대하고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 후·주말·방학 창업캠프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술창업교육패키지'보급하도록 한다. 동시에 우수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연중 경진대회와 공모전, 그리고 연말 성과발표회 공개개최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② 대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및 예비 창업단계 → 창업단계 → 성장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및 관리

창업선도대학을 현재 23개에서 매년 5~6개교 정도 신설하여 '17년까지 40개교까지 확대하고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시제품제작,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분산 운영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관련 기구와 활동들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한다.

기업가정신 교양과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창업을 지향하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도 기업가정신을 경험하고 나아가 창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양교과 교재 및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동시에 온라인에 공개된 기업가정신 강좌, 자료 등을 링크하여 보조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드림엔터 기업가정신교육 실시로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및 창업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스토리를 공유한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인과 선배 창업자를 연결하는 창업 멘토링을 활성화 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센터 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협력·연계하여 핵심 커리큘럼 공유 및 상호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기업과 학교 간의 연계 과정 운영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가칭)'를 중심으로, 대학, 민간단체, 기업체 등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주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마련한다. 미국 카우프만재단의 분석 결과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 졸업생이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 보다 25%정도 더 많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이다(이윤준, 2012: 241 재인용).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별 구성단체 및 피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경험담 공유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 단위가 전국적 연계 협력체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정부-민간기업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민간기업의 기업가정신 교육 후원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기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연계시킨다.

대학생 창업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예비창업자 지원제도(Pre Incubation System)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이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1)에서 도입하여 그 동안 상당수의 예비창업자들을 시장에 진출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이윤준, 2012: 223).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우선 예비창업자들에게 추가기술개발, 시제품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자금지원 방식에서 단순히 정부 혹은 은행을 통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패자부활을 통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2002)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 3개월 이내에 흑자를 달성하는 기업 비중이 신규창업은 34.1%에 비해 재창업은 55.6%로 성공률이 높다는 사례도 있다.

창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이들에게 예비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회계, 재무, 법률 등 창업실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예비창업자들은 시장 및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기존 창업자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운영, 투자유치 등에 관한 컨설팅과 실질적인 자문을 위한 1:1 on-off 라인 창업멘토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2015-2017년 추진]

(1) 현황

현재 기업가정신 교육은 160여개 대학들에서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벤처)창업론’, ‘창업과 경영’ 등과 같은 교양강좌 선택 수준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 과정과 일반인 대상의 창업교육 과정이 명확한 구분 없이 실제 창업을 위한 의식교육 보다는 기능중심의 단순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윤준 외, 2012; 정치근, 2013; 한문성 외,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2001년 12월부터 비즈쿨(BizCool)이라는 교육 길라잡이를 개발하고 2012년부터 학교교육 과정에 비즈니스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험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을 하고 청소년들이 기업가적인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강조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마이스터(Master)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는 청소년의 직업관련 및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들의 창업활동을 강조하며 이들이 기술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적성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윤준 외, 2012; 허석재, 2009; 천수경, 정화영, 2009). 이와 더불어 2013년 5월부터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 대책 및 추진방안

①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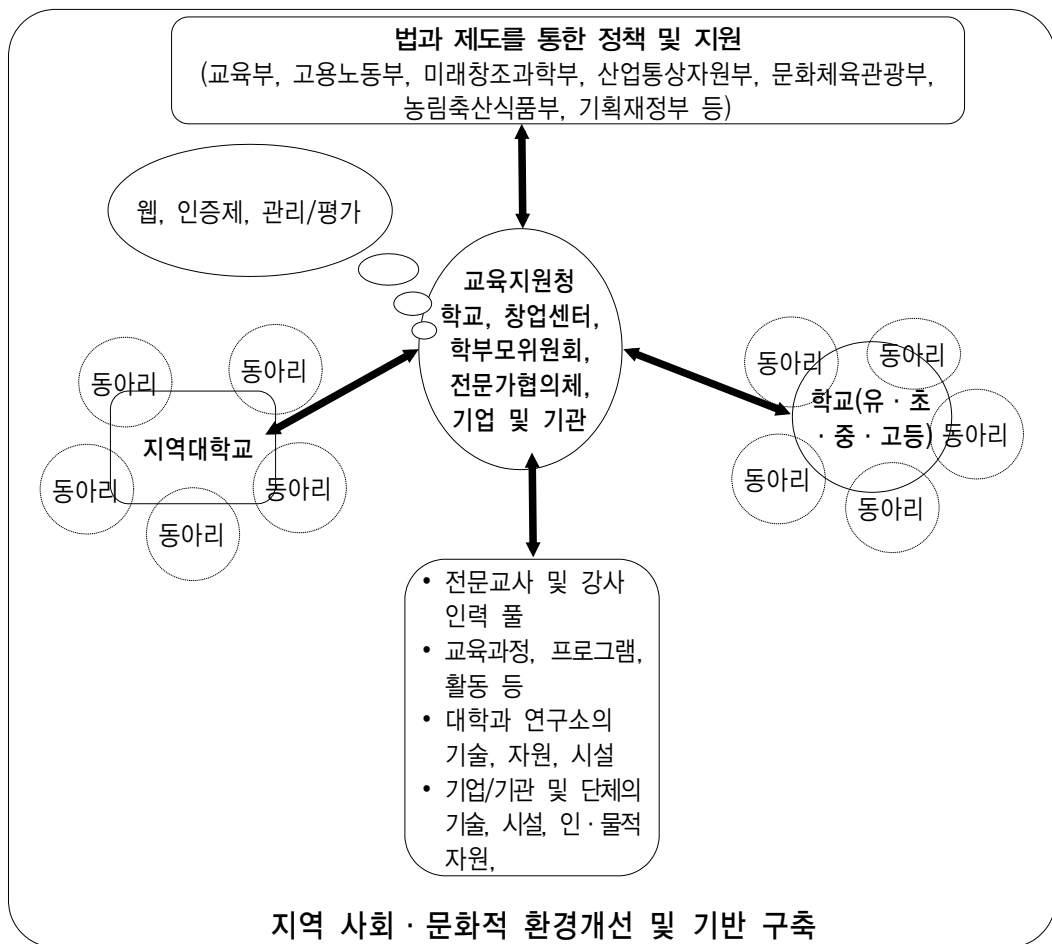
먼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 관련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현장 경험 등을 겸비한 갖춘 전문 인력이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을 전담할 전문교사를 포함하여 이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관련 법·제도 등의 미흡하여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사 연수나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담당자를 간헐적으로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인력풀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은 하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디자이너,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② ‘청소년 주도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 운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아우르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은 총체적인 지역사회 ‘청소년 주도형’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참여 핵심주체로는 시·군 단위의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의 창업센터, 기업·기관·단체, 학부모, 전문가협의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청소년 주도형’ 모형은 교육의 핵심인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초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육모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학부모가 존재하며 학교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기업/기관/단체와 전문가집단 등과의 네트워크와 연계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이 핵심주체들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교육모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미래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 VII-1】 과 같이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 창업센터, 기업·기관·단체, 전문가협의체 등이 제도적으로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청소년주도형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교육모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형이 지역사회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요 핵심주체들이 다음에 제시된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VII-1】 ‘청소년주도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③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학교 및 다양한 활동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한 예로 **‘VENTURE STAR :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용을 구성해 보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각 주제 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진로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생한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와 교육현장의 교사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은 교육으로 가능하다. 교사 직무 연수와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창업 역량에 관한 가치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고 각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지원 정책 개발과 인프라 구축[2015-2017년 추진]

(1) 현황

정부 부처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경제교육 중심의 교육과 경제교육 및 창업 중심의 교육 사업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부분인 경제교육과 창업교육 및 지원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목적을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비즈쿨(Bizcool)’이 유일한 교육제도이다. 비즈쿨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 및 금융 기초이론에서부터 비즈니스 리더십 및 실전 창업체험까지를 종합적인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경제교육 및 창업교육 중 가장 청소년에게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09: 13-17).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 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을 포함,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백 개에 달하는 창업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2012년 전체 424개 대학 중 175개 대학에서 학생 창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창업지원액 239억 원 가운데, 84%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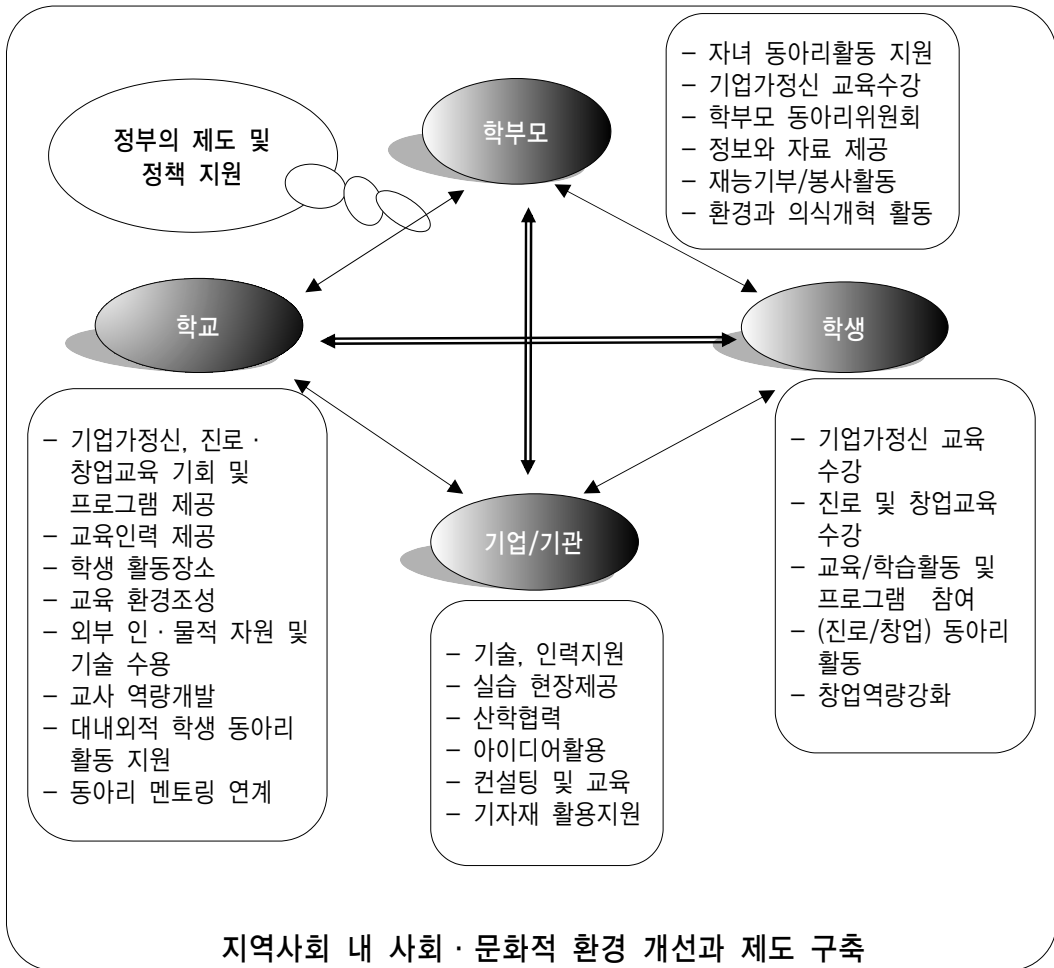
대학 내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획일적 지원내용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창업 후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멘토가 부족하고 인력채용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장현숙, 2014: 1).

(2) 대책 및 추진방안

①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구축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두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청소년 주도형 교육모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개별 이익집단(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 등)이 다음 【그림 V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사회·문화적 환경과 구조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 협력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그 방법 및 전략을 논의하고 실현가능하게 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토대 구축에 대한 요청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이러한 교육 협력 시스템은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제공·전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주목적을 둔다.



【그림 VII-2】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②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유사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복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예산활용과 사업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부처 간의 역할과 기능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들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증가와 이들의 학업중단 및 사회 부적응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대안의 한 가지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을 전담하여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지역 단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중앙과 지역단위 「(가칭)청소년 기업가정신함양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모델 구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협의체 혹은 컨설팅 그룹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청소년 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 연계방안[2015-2017년 추진]

1) 현황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과 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인 도전의식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빠른 변화들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44차 다보스포럼(14.1.22~25)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도 창의성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며, 한국은 이런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

중소기업청(2011)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년창업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등 각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생부의 참가규모가 일반부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이는 청년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체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운영체계 마련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몇 가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2) 대책 및 추진방안

(1) 청소년활동과 기업가정신 함양 연계 기반 구축

현재 한국의 청년 기업가정신 정책은 주로 창업활동으로 표출된다. 창업이나 창작기회를 조성하거나 기업가로서의 소양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창업에 중점을 두다보니 청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부재하며, 학교 밖의 청소년기관 및 시설, 단체에서의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사실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활동은 청소년의 가능성, 기회, 꿈,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 그 자체로 교육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지만 이를 청소년 활동과 기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과 공통의 기획, 평가 주체 없이 교육이 단절적, 일회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지원 강화와 그에 근거한 기본계획, 전담추진체계,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활동전문가 양성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과정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만으로는 실천적인 자질 함양이 부족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활동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기업가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지 아니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아직 합의된 바 없으나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면 기업가는 성과를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다.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인생 전환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게 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에 일조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어릴 적부터 경제의식을 심어주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단위의 교육전략을 수립할 때, 창업교육을 포함하여 청소년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활동의 정책사업 가운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동아리활동,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계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국가 정책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범적용 및 확산으로 전국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연계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 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하여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진로와 연관된 청소년 동아리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창업 공간,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수준의 관심제고와 지식이나 기술습득에서 나아가 창업이 새로운 도전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을 구비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진로활동 프로그램 연계 운영

학교 교육정책의 청소년의 진로교육 강화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정보제공, 학교-체험시설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업학교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 기관에서는 지역 내 대학·기업과 연계한 강의, 전공 체험, 실습 참여 등을 확대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미지메이킹·모의면접, 장기 직장체험 기회제공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내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양활동 프로그램이 선행 및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정책 추진에 따라 진로와 직업체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다문화/탈북청소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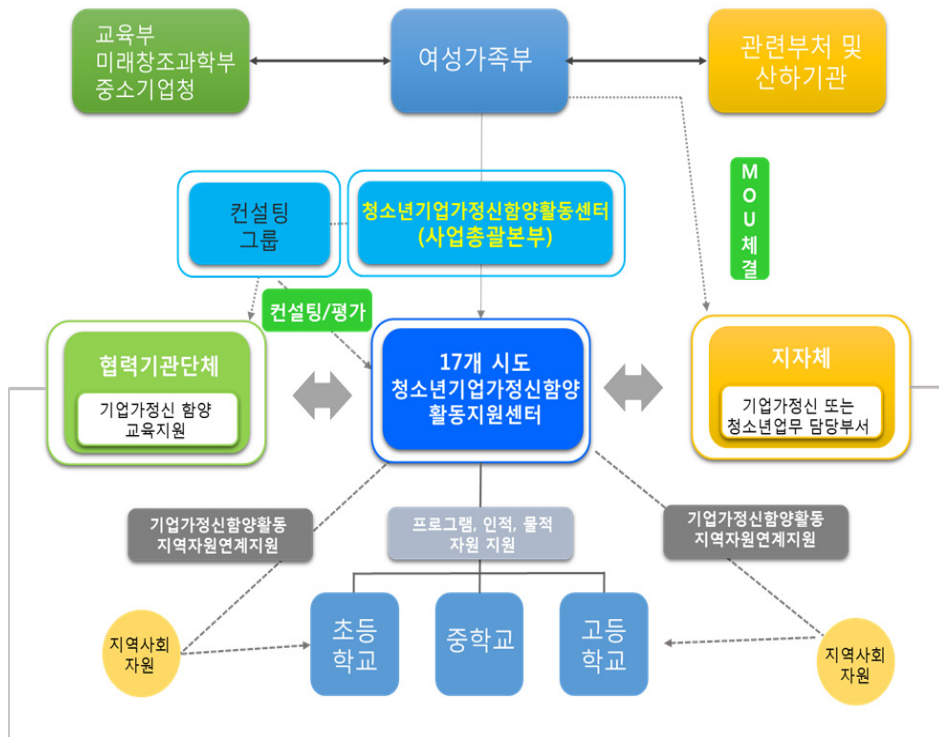
(3) 전담기구 설치 및 지역 네트워크 활용 연계

그 동안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분리되고 청소년활동이 입시와 유리되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현장체험, 토론, 실습 등 참여형으로 개선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운영되어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하는 경험으로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 VII-3】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성가족부산하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센터(사업총괄본부)」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시도교육청 및 학교, 그리고 청소년 단체와 기관들과 적극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 간 협력 모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시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담당부서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서들 간의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활동지원센터」는 지역 단위의 코디네이터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지역사회 민주시민역량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컨설팅 그룹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림 VII-3】 청소년기업가정신함양 활동지원센터 시범운영 모델

또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특성화 고교의 학교 밖 직업세계의 경험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투자,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되 사례로 글로벌 창업을 준비 중인 해외봉사 및 인턴사업 경험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한 일반 초·중·고, 대학생 대상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지도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축적된 전문적 노하우와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청소년 기업가정신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 및 다양한 멘토와 후원자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 내 청년 기업가정신 강좌를 개설하여 청년 기업가정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원봉사 멘토로 확보하여 창업은 물론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인애, 강미량, 김선자, 김종화(2003). **PBL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 강인애, 김현우, 황선하(2011).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의 '글로벌 창업교육캠프' 사례연구. **경제교육연구**, 18(2), 153-183.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상업정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23.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4). **창업과 경영 교육과정 개정 시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
- 국무총리실(2013). **창조경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발자취 돌아보기**. <http://pmoblog.tistory.com/747>에서 2014년 7월 28일 인출.
- 금기현(2014). **창조경제 실현, 기업가정신 교육에 달려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20613483874783>에서 2014년 4월 18일 인출.
- 금융감독원(2014). **금융교실**. <http://edu.fss.or.kr/fss/edu/edu/junior1.js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금융감독원(2014). **금융교육 안내**. <http://edu.fss.or.kr/fss/edu/edu/junior1.js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금융감독원(2014).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실적**. <http://edu.fss.or.kr/fss/edu/edu/class1.js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기획재정부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2014). 경제교실 플래쉬 목록.
<http://kids.mosf.go.kr/index.ph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기획재정부(2014).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http://kids.mosf.go.kr/>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김규상(2010). **창의적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과제 관련 해외출장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근영, 최숙희(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4. 12월호**, 1-37.
- 김기태(2012). 경영학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설계 및 적용 사례, **한국질서경제학회**, 15(4), 63-85.
- 김성수(2007). **성공한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서울: 삼영사.
- 김승경, 김명희(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환, 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 김종석, 권남훈, 이광훈, 이철인(2005). **고등학교 경제분야 교과서 내용 검토**. KDI 경제정보센터.
- 김종재, 윤종록, 이경근(2005).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 서울: 박영사
- 김종호(2012). **경제교사 연수 표준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종훈(2013). **창조경제를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21.
- 김주미, 권선윤(2013).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51, 1-14.
-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129-134.
- 김준배(2013). 미국 기업가정신 연구 '크로스 캠퍼스' 열풍
<http://www.etnews.com/201302010464>에서 2014 08월 27일 인출.
- 김진영(201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경제교육의 동향. **Click 경제교육**,

- 7월호, 32-33.
- 김진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충렬(2007). **창업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홍길(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론**. 탐북스.
- 남춘애(2012). **비즈쿨(Bizcool)교육특성, 사회적지지 및 교육기반특성이 학교성과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 **새정부 국정과제**.
- 매일경제 어린이 경제교실(2014). **어린이도 경제교육이 필요한가요**.
<http://kids.mk.co.kr/new/>에서 2014년 9월 11일에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2013.07.18.). **미래부, 청소년 기술창업교육에 본격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05.21). **ICT인력양성의 상징, 대학 ITRC·ICT융합센터 기업가정신 교육 전면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07).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안)**. 관계부처합동.
- 박동(2013). **창업정신 고취를 통한 청소년 도전 문화 조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꿈을 향한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67-87.
- 박동, 김안국, 황규희, 이종선, 이봉주(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기본연구 2010-1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선영(2013).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환, 김용태(2009).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2(4, 75), 1777-1801.
- 박종규(2014). **기업가정신 교육의 현황 및 극복 과제**. **The HRD Review**, 17(1), 256-266.
-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외(2012).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GEM): 2011 연구 보고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중소기업청.
- 배종태(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한국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 1-7.
-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 및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배종태, 차석민, 김영환, 이정우(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 (사)창업진흥원 최종보고서.
- 벤처스퀘어(2013). <http://www.venturesquare.net/42675>에서 2014년 8월 26일 인출.
- 송재길(2011).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의 관계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송정현(2012). 송정현의 기업가정신 세계여행 칼럼: '한국의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설계 및 평가에 대해'. <http://wet-entrepreneur.tistory.com>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 아이빛연구소(2014).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육**.
<https://www.ivitt.com:450/default.as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안선영, 김희진(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연구보고 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현봉(2011). **청년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방안**. 기술보증기금, Brief Report, 1-17.
- 오영수, 박형준, 최종민, 김영우(2012).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교사 설문 조사**. 한국경제교육협회.
- 온양풍기초등학교. (2012). **창의적 체험활동 경제교육 교사용 자료**. 온양풍기초등학교.
- 윤선구(200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사회와 철학**, (5), 155-188.
- 이미자, 김중규(2013).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1(9), 56-65.
- 이민화(2013). **기업가 정신 교육혁신 창조경제연구회 제 4차 포럼 연구보고서**. 창조경제연구회, 13-42.
- 이민화(2013.12.09). **응답하라, 기업가 정신**.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34492>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이승배(2014). **기업가정신과 청년창업**. 서울: 조명문화사.
- 이윤석(2014).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경제**, 109호, 14-19.
- 이윤준 외(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정책연구 2012-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현숙, 백민정(2012).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65-84.

- 장현숙(2014).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한국무역협회**, 13(16), 1-19.
-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경제교육. http://ecoedu.fki.or.kr/issue/m_ecoedu.aspx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 정지호(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차근(201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70호 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옥준필(2005). **초·중등학교의 산학협력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건목(2008). **기업가정신이 동태적 능력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사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원표(2011). **체험경제교육 실시한 부천 창영초등학교**.
<http://www.hangyo.com/APP/ereport/article.asp?idx=18440>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2014). **미국대학생 창업인프라 심층조사**.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 차민석, 안상현, 이정우, 김영환(2012). 청년기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체계 설계와 정책방안 수립.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1), 93-125.
- 창업넷 홈페이지(2014). **청소년비즈쿨 소개**.
http://www.changupnet.go.kr/home/bizCool/info.do?mid=1077searchBizcoolIntroCode=BIZCOOL_INTRO01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창업진흥원 (2013.08.06). **대학가 청년 창업,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창업진흥원 보도자료.
-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용역결과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 창업진흥원(2013).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실태조사**.
- 창업진흥원(2014). **청소년비즈쿨**. <http://www.kised.or.kr/bus/edu1.asp>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천수경, 정화영(2009).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파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4(4), 89-114.

청소년 기업가지원 자금제도(2014).

http://www.jfc.go.jp/n/finance/search/02_zyoseikigyouka_m.html에서 2014년 5월 9일 인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2014). 어린이 금융교실. <http://www.fq.or.kr/>에서 2014년 8월 26일 인출.

최경호(2014). 이공계대학 교육혁신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427>에서 2014년 8월 22일 인출.

최병모, 김정호, 이미경(2005).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체계 분석: 자발적 내용표준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2(1), 335-355.

최병일, 황인학 외 (2013). **기업가정신-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요건**. 한국경제연구원.

최정임(2007). 대학수업에서의 문제중심학습적용 사례연구: 성찰일기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3(2), 35-65.

최정임, 장경원(2010). **PBL로 수업하기**. 서울: 학지사

카우프만 재단(2014). <http://www.kauffman.org>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커리어넷(2014).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Wi-Fi 창업과 진로.

http://www.career.go.kr/cnet/front/web/courseEdugs/courseEdugs07_view13.do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나라지표(2014.03). 청년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에서 2014년 7월 23일 인출

통계청(2013.12.11). 고용동향 2013년 11월. 통계청 보도자료.

하규수(2013).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의 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꿈을 향한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27-66.

학습피라미드(2014). <http://simrihak.tistory.com/90>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한국경제교육협회(2012). **경제교육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초등학교용)**. 한국경제교육협회.

한국경제교육협회(2014). **경제교육사업**.

- http://www.beacon.or.kr/Menu.bcn?method=menuView&pageMode=beacon_home&top=2&sub=0&sub2=0&sub3=0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창업진흥원 용역보고서
- 한국은행(2014). **어린이 경제마을·청소년 경제나라**.
<http://youth.bokeducation.or.kr/index.do>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2014). 'Wi-Fi 창업과 진로'
http://www.career.go.kr/cnet/front/web/courseEdugs/courseEdugs07_view13.do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길석(2007).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47, 379-405.
- 한길석(2013). **창업과 기업가정신**. 서울: 비앤엠북스.
- 한문성, 천규성, 안웅, 원성권, 강영규, 고종남 외(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창업진흥원.
- 한진수(2004). 미국 초등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의 이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3, 345-365.
- 허석재(2009).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경험과 요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윤(2013.04.29). 해외 글로벌기업가센터 현황.
<http://www.etnews.com/201304290204>에서 2014년 7월 28일 인출.
- 현대경제연구원(2013).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 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 545, 13-35.
- 황성수(2013).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 **The HRD Review**. 58-70.
- Dcamp(2014). 청년창업재단. <http://dcamp.kr/>에서 2014년 8월 26일 인출.
- JA-Korea(2014). <http://www.jakorea.org/>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KBS(2014.4.23). 변화를 위한 도전: 핀란드, 알토대학교 스타트업 사우나.
- NFTE-Korea(2014). <http://www.nftekorea.com/main.asp>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 Start up alliance(2014). <http://startupall.kr/>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 Aghion, P. & Howitt, P. (1997).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 Amabile, T. M. (1997). Motivating Creativity in Organization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1), 39-58
- Baron, R. A. (2007).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In R. J. Baum, M., Frese & R.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pp. 19-3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anchflower, D. G. & Oswald, A. (2009). What makes a young entrepreneur? In Furlong, A. (Ed.)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188-199).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Bygrave, W. D.(2004). The entrepreneurial process. In W. D. Bygrave & A. Zacharakis(Eds.).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erto, S. T., Holcomb, T. R., & Holmes, R. M.(2009). IPO Research in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Moving the agenda forward. *Journal of Management*, 35, 1340-1378.
- Chrisman, J. J., Bauerschmidt, A., & Hofer, C. W. (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 5-29.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Dalrymple, K. R., Wuenschell, C., Rosenblum, A., Paine, M., Crowe, D., von Bergmann, H. C., ... & Shuler, C. F. (2007). PBL core skills faculty development workshop 1: an experiential exercise with the PBL proces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1(2), 249-259.
- Dess, G. G. & Lumpkin, G. T., & Eisner, A. B.(2006). *Strategic management: text and cases, 2nd Edition*. Mcgraw Hill Irving, Boston.
-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arper& Row, New York.
- Ensley, M. D., Carland, J. W., & Carland, J. C. (2000).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the lead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4), 59-77.

- Entrepreneur(2014). *Top 25 Colleges for Entrepreneurship for 2015*(Undergrad). Retrieved 2014. 08.12. <http://www.entrepreneur.com/topcolleges/undergrad/0.html>
- European Commission(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07).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09). *Entrepreneurship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2014).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 Furlong, A. (2012). *Youth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Geoff Norman(2004). Beyond PBL.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9(4): 257-260.
- Heinonen, J. & Poikkijoki, S. A. (2006). An entrepreneurial-direct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5(1), 80-96.
- Hindle, T. (2008). *Management ideas and gurus*. London, GB: The Economist Newspaper Ltd.
- Hisrich, R. D. & Peters, M. P. (1989). *Entrepreneurship: Starting, developing, and managing a new enterprise*. Homewood, IL: BP/Irwin.
- Holen, A. (2000). The PBL group: self-reflections and feedback for improved learning and growth. *Medical Teacher*, 22(5), 485-488.
- Islam, S. (2012). *Young entrepreneur world: How 25 teen-entrepreneurs succeeded and left world leaders scratching their heads*. London, UK: Marshall Cavendish Business.
- Lena. L & Wong. P. (2003). Attitude towa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new

- venture creation.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1(4), 339-357
- Lumpkin, G. T. & Lichtenstein, B. B. (2005). The role of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opportunity recogni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4), 451-472.
- Markman, G. D. (2007). Entrepreneurs' competencies. In R. J. Baum, M. Frese &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pp. 67-9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rew, L. (2001). Managing curriculum change. *Management of the business classroom, National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yearbook*, 39. Reston, VA: National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elton, S. (1995). Help for teenagers. *Nation's business*. 83, 50.
- NESTA. (2009).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 Rauch, A., & Frese, M (2007). Born to be an entrepreneur? Revisiting the personality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In R. J. Baum, M. Frese &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pp. 41-6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ispoli, A. (2013). *The young entrepreneurs: What YOUNG entrepreneurs can teach ALL people about life, success, and prosperity!* Henderson, NV: Motivaltional Press.
- Ronstadt, R.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7-23.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tital,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e, S.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Northampton: Edward Elgar Press.
- Tan, W. L., Willimans, J., & Tan, T. M. (2005). Defining the 'social' in 'social entrepreneurship': Altruism and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353-365.

- Timmons, J. (1990). *New Venture Creations*. Irwin. Homewood, IL. 서울: 창업진흥원.
- Timmons, J. A. & Spinelli, S. (200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McGraw-Hill/Irwin
- Van der Sijde, P., Ridder, A., Blaauw, G., & Diensberg, C. (2008) (Eds.). *Teaching entrepreneurship: Cas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Rostock, Germany: Physica-Verlag Heidelberg(A Springer Company).
- Westhead, P. & Wright, M. (2013). *Entrepreneur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YES(2014). *Inter-regional SWOT*. Retrieved 2014. 08.03.
<http://www.young-entrepreneurs.eu/swot.php>
-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YES). (2014). *Regional Action Plan*.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
- Zimmerman, J. (2009).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ship: A research structure based on 12 practitioner case studies. *Journal of Business Case Studies*, 5(5). 69-78.
- 姜永培(2011), 韓日中における大學生の就労意識に関する比較研究—私立大學を中心として, 日本文化研究, 第40輯, 21-36.
- 岡田悟(2013), 我が國における起業活動の現状と政策対応-國際比較の観点から, レファレンス 213.1, 國立國會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경제산업성 신규산업실(經濟産業省新規産業室)(2014).
<http://www.meti.go.jp/policy/newbusiness/>에서 2014년 6월 20일 인출.
- 經濟産業省(2007), 起業家教育導入實踐の手引き.
- 경제산업성(2014). <http://www.willseed.co.jp/school/result/index.html>에서 2014년 6월 25일 인출.
- 國立教育政策研究所(2004), 職業觀勤勞觀を育む學習プログラムの枠組み(例).
- 國民公庫(2008), 新規開業白書.
- 近畿經濟産業局(2005), 地域で育む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事業實施報告書.
- 內閣府(2013), 平成25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 大阪商業大學起業教育研究會編(2005), 高校生のための起業教育ワークブック, 4-5, 大阪商業大學.

渡辺幸男, 黒瀬直宏, 小川正博, 向山雅夫(2001), 21世紀中小企業論, 有斐閣.

미야기현교육위원회(2014). 기업가 교육모형.

http://www.edu-c.pref.miyagi.jp/longres/H16_A/shinro/handbook/에서 2014년 6월 20일 인출.

小本恵照(2006), 若年者の創業實態と起業家教育への期待, ニッセイ基礎研REPORT, 1-8.

兒美川孝一郎(2005), 日本におけるキャリア教育の登場と展開(2)-初等中等教育における起業家教育, 法政大學キャリアデザイン學會紀要 2, 3-19.

일본정책 금융공고(2014). 일본정책 금융공고 자료.

http://www.jfc.go.jp/n/finance/search/02_zyoseikigyouka_m.html에서 2014년 5월 9일 인출.

佐々木正剛, 小松泰信, 横溝功(2007), 農業高校における経営者能力を育む起業家教育, 岡山大學農學部學術報告, 96, 65-70.

地域活性化センター(2012), 平成23年度地域活性化ガイドブック-起業・創業支援による地域活性化.

清水希益(2002), 學校における起業家活動教育について, 經營經理研究第69号, 77-106.

홋카이도교육위원회홈페이지(2014). 우수사례학교

<http://www.koukou.hokkaido-c.ed.jp/entrepreneuring/n10.pdf>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부록

부 록

1. 교사용 면접조사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인터뷰(면접) 조사

기업가정신이란, “통제 가능한 자원 활용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학교, 금융 등)가 참여하여, 기업가정신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금융, 경제 분야의 기반 지식을 확보하고, 기업가적 문제해결 역량을 통해 능동적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먼저 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작성 요령은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문항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한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도중 질문항목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 메일(harry912@nypi.re.kr) 또는 02-6913-89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주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사,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창업가 혹은 대학생, 전문교육을 받은 학

	부모교사
교육내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방법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방법상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인력육성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지원방안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체제 확대	교육체제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생용 면접조사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인터뷰(면접) 조사

기업가정신이란, “통제 가능한 자원 활용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학교, 금융 등)가 참여하여, 기업가정신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금융, 경제 분야의 기반 지식을 확보하고, 기업가적 문제해결 역량을 통해 능동적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먼저 본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작성 요령은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문항에 대한 의견을 제한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도중 질문항목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 메일(harry912@nypi.re.kr) 또는 02-6913-89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필요성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의 주체	2.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누가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교육내용	3.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방법	4. 청소년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문인 력육성	5.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부지 원방안	6.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체제 확대	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 강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항	
1.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시점과 계기는 무엇인가요?	
2.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3.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청소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5.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청소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Nurture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e Business Startup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measures to nurture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e business startups, and a three-year project spanning from 2014 to 2016. In its first year, the project included discussions on youth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artups in connection with the creative economy, case studie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es, and perception studies among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served as the basis for the presentation on the implications,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domestic policy to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courage business startups. In the second year, a concrete roadmap will be created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legisl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policy proposals and the practicality of the procedures to implement policy measures. The final year will se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education models and programs and the presentation of measures to build support systems on such topics as talent nurturing, new growth engines, social issues, and utilization of practical technology in each sector of the creative economy.

The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nd sectorial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artups among the youth. First, as for the policy directions, the youth should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nurture a can-do attitude and an entrepreneurial mindset as part of the efforts to support the creative economy at the national level. To this end, efforts need to be made to change the overall perception of society in order for young entrepreneurs to be sought after as a key growth engine driving the national economy. A main strategic point is to establish a lifecycl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ystem and develop education models

reflecting objectives and education content corresponding to each stage of development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s all the way to universities.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rocess requires consensus and cooperation among students, parents, teacher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t the same time, compan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to work closely at the local level, especially with regard to training professionals and places for apprenticeship.

Meanwhile, there is limit to what education and training can do to promote entrepreneurial spirit and capacity.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devices need to be introduced to assist community youth organizations to mobilize local re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omoting youth entrepreneurship. Central and local control towers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entire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efficient implementation.

Key words: Youth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Capacity, Creative Economy, Measures to Promote Business Startups, Life-cycle Education System, Control Towers

집 필 진

◆ 집필진 ◆

천 정 응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II-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 개념

박 주 현 (경산1대학교 외래교수)

II-1. 청소년 창업의 개념과 중요성, II-3. 한국에서의 창업활성화 지원현황

조 영 아 박사

III-1.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 진단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IV-1.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실태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IV-2. 일본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정책

임 효 신 박사

IV-3.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

남 부 현 (선문대학교 교수)

VI-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교육모형 개발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VI-3.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욱·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34-2 94330

979-11-5654-033-5 (세트)